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1-10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24. 6. 5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문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6. 5.

평가위원

단 장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간 사

은종환 경성국립대 행정학과 조교수

팀 장

이재완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부교수 (1팀장)

이 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조교수 (2팀장)

우상철 경북회계법인 이사 (계량팀장)

위 원 (가나다 順)

김지원 한경국립대 공공행정전공 부교수

박규동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조교수

박정호 상명대 행정학과 조교수

배상현 경북회계법인 이사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

이옥환 강원대 바이오산업공학부 교수

임성돈 상지대 스마트팜생명과학과 조교수

자문위원

주성돈 명지전문대 조교수



차례

I. 평가 개요 및 총평	1
1. 평가 개요	2
2. 평가 종합	8
3. 평가결과 총평	12
II. 기관별 평가 보고서	29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0
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6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06
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50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91
6. 한식진흥원	236
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77
8. 축산환경관리원	317

I. 23년도 평가 개요 및 총평

1. 평가 개요

1)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과

(1) 평가 배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기타공공기관도 경영 개선과 부채관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해왔다.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부터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 2021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이 추가되고, 23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가되어 2024년에 10년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 평가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포괄적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3) 23년도 경영실적평가 일정

- 농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24.3.6
- 23년도 평가편람 및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개선: ~24.3.12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접수: ~24.3.20(금)
- 경영평가단 사전워크숍 및 기관설명회: 24.4.5(금) 14:00~18:00
- 서면평가: 24.3.25(월)~24.4.19(금)
- 현장실사: 24.4.22(월)~24.5.10(금)
- 중간평정회의(온라인): 24.5.14(화) 19:00~
- 중간보고서 기관 송부: ~24.5.22(수)
- 기관 이의제기 접수: ~24.5.24(금)
- 기관 이의제기 검토: ~24.5.29(수)
- 경영실적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4.6.5(수)

(4) 경영평가단(참여연구진) 구성

구분	역할	이름	소속	직급
1팀	경영관리 (단장)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
1팀	경영관리	박규동	서울시립대	조교수
1팀	경영관리	김지원	한경국립대	부교수
1팀	주요사업 (1팀장)	이재완	호서대	부교수
1팀	주요사업	임성돈	상지대	조교수
1팀	계량	우상철	경북회계법인	이사
2팀	경영관리 (2팀장)	이 현	신한대	조교수
2팀	경영관리 (경영관리간사)	박정호	상명대	조교수
2팀	경영관리	이동규	동아대	교수
2팀	주요사업 (주요사업간사)	은종환	경상국립대	조교수
2팀	주요사업	이옥환	강원대	교수
2팀	계량	배상현	경북회계법인	이사

2) 경영실적 평가방법

- 각 공공기관의 2023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목표 달성의 절대적 수준, 22년도를 포함한 최근 경영추세와 비교한 상대적 개선도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범주는 경영관리(50점)와 주요사업(50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범주는 경영전략,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 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경영전략부문은 리더십(비계량),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비계량), 국민소통(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고, 사회적 책임부문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계량 및 비계량), 안전 및 재난관리(계량 및 비계량), 친환경·탄소중립(계량 및 비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및 비계량), 윤리경영(비계량)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재무성과 관리 부문은 재무예산 관리(비계량), 재무예산 성과(계량)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였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부문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비계량), 노사관계(비계량)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범주는 주요사업별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비계량) 및 목표달성도(계량)를 토대로 기관별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였다. 23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별로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도전성을 6등급 평가하여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반영하여 평점을 산출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경영전략(국민소통(2)), 사회적 책임(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1), 안전 및 재난 관리(2), 친환경·탄소중립(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1)), 재무성과 관리(재무예산 성과(3))으로 구성되었으며,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목표대 실적 평가방법 등을 통해 평가하되, 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소관 부처의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계량위원들의 엄격한 확인 점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는 경영전략(리더십(4),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9), 국민소통(1)), 사회적 책임(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1), 안전 및 재난 관리(2), 친환경·탄소중립(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1), 윤리경영(1)), 재무성과 관리(재무예산 관리(8)),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9), 노사관계(3))로 구성하여 세부평가항목 및 비계량실적 평가 매뉴얼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경우 8개 기관의 주요 사업단위별로 추진계획·활동·성과·환류 과정에 대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계량지표의 경우 목표달성도에 지표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환산점수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가점지표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3),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감점지표는 총인건비 관리(△2)로 구성되었다. 종합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종합평가결과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가점 포함)의 합이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S,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A,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B,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C,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D,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E를 각각 부여하였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기준 및 수준 정의>

등급	수준 정의
탁월 (S)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평가지표 세부 내용은 8개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관별 주요사업 세부지표 내용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23.11.)」에 의거한다.

3) 평가지표체계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16	14	2
	(1) 리더십	4	4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정부정책방향 등 반영도)	9 (3)	9 (3)	-
	(3) 국민소통	3	1	2
	2. 사회적 책임	11	6	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	1	1
	(2) 안전 및 재난 관리	4	2	2
	(3) 친환경·탄소중립	2	1	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	1
	(5) 윤리경영	1	1	-
	3. 재무성과 관리	11	8	3
	(1) 재무예산관리	8	8	-
	(2) 재무예산성과	3	-	3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12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9 (2)	9 (2)	-
	(2) 노사관계	3	3	-
소 계		50	40	10
주요사업 (50)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30	7.5*	22.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0	20	-
	소 계	50	27.5*	22.5
합 계		100	67.5*	32.5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3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1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1	-
감점	총인건비 관리	(△2)	-	(△2)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가중치에 따른 최대 변동분을 의미함

2. 평가 종합

1) 종합평가결과

-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2023. 11.)에 따라 경영관리 범주(50점 만점)와 주요사업 범주(50점 만점), 가·감점지표(가점 5점, 감점△2점)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등급(우수) 2개 기관, B등급(양호) 4개 기관, C등급(보통) 2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S등급(탁월)과 D등급(미흡) 이하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들은 평균 73.690점(양호 수준)의 득점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별 총점 결과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82.152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81.194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6.608점) > 축산환경관리원(71.607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71.185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478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69.267점) > 한식진흥원(67.031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의 득점 결과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36.177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5.569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4.947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32.957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31.704점) > 축산환경관리원(30.643점) > 한식진흥원(30.263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30.217점)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의 득점 결과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44.475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44.247점) > 축산환경관리원(39.964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9.039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38.550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38.274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37.728점) > 한식진흥원(36.268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기관별 평가 등급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A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식진흥원 C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지표별 평가 총괄〉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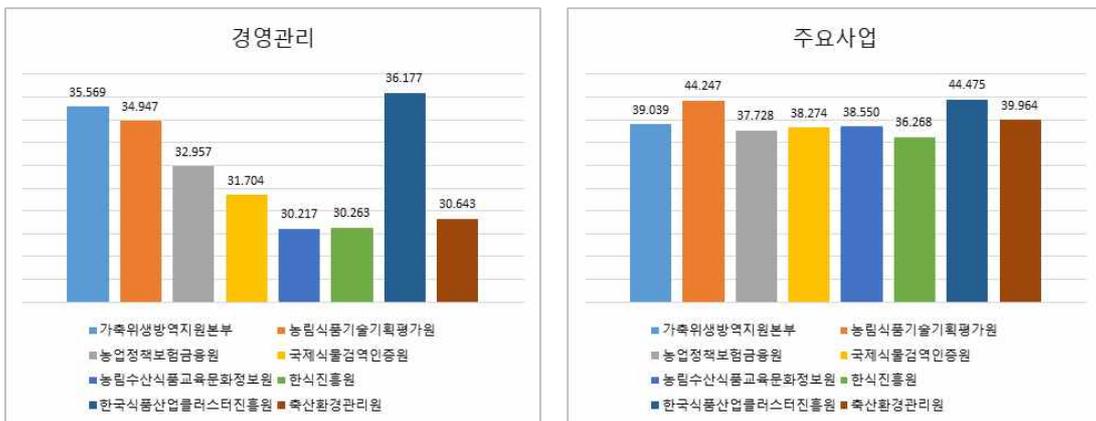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본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금융지원	정험인	국제검증지역원	농림수산물교육정보원	한식진흥원	한국산림기술연구원	축산환경관리원
경영관리	경영전략	16	11.133 (69.58)	10.904 (68.15)	9.208 (57.55)	9.754 (60.96)	9.414 (58.84)	8.772 (54.83)	12.345 (77.16)	9.385 (58.66)
	사회적책임	11	7.599 (69.08)	8.297 (75.43)	8.109 (73.72)	7.135 (64.86)	7.391 (67.19)	8.241 (74.92)	7.863 (71.49)	6.633 (60.3)
	재무성과관리	11	8.962 (81.47)	7.996 (72.69)	7.890 (71.73)	8.440 (76.73)	6.912 (62.84)	6.000 (54.55)	6.969 (63.35)	7.000 (63.6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7.875 (65.63)	7.750 (64.58)	7.750 (64.58)	6.375 (53.13)	6.500 (54.17)	7.250 (60.42)	9.000 (75)	7.625 (63.54)
경영관리 특점	50	35.569	34.947	32.957	31.704	30.217	30.263	36.177	30.643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30	25.539 (85.13)	26.747 (89.16)	26.066 (86.89)	25.774 (85.91)	26.050 (86.83)	25.768 (85.89)	27.850 (92.83)	26.589 (88.6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0	13.500 (67.5)	17.500 (87.5)	11.663 (58.31)	12.500 (62.5)	12.500 (62.5)	10.500 (52.5)	16.625 (83.13)	13.375 (66.88)
주요사업 특점	50	39.039	44.247	37.728	38.274	38.550	36.268	44.475	39.964	
합계	100	74.608	79.194	70.685	69.978	68.767	66.531	80.652	70.607	
가점 득점	5	2.000	2.000	0.500	0.500	0.500	0.500	1.500	1.000	
감점 득점	△2	-	-	-	-	-	-	-	-	
총점	100	76.608	81.194	71.185	70.478	69.267	67.031	82.152	71.607	
등급		B	A	B	B	C	C	A	B	
순위		3	2	5	6	7	8	1	4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경영관리(50점 만점) 범주와 주요사업(50점 만점) 범주의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36.1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30.217점으로 평가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44.4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이 36.268점으로 평가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평가범주별 종합 득점 분포〉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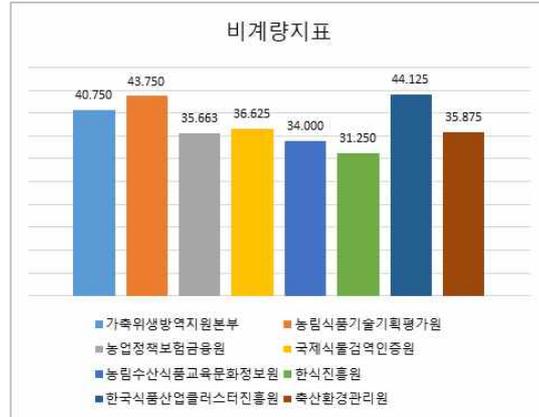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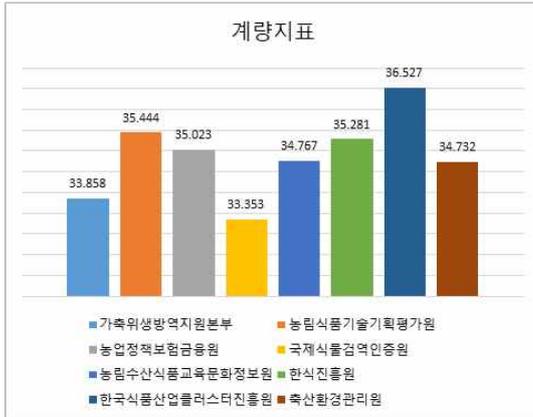


- 계량지표(40점 만점) 평가와 비계량지표(60점 만점)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계량지표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36.52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35.444점, 한식진흥원이 35.281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5.023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34.767점, 축산환경관리원이 34.732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3.858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3.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 비계량지표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44.125점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43.75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0.75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6.625점, 축산환경관리원이 35.875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5.663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34.000점, 한식진흥원이 31.250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결과>

(단위 : 점)



3.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범주 총평(지표별)

(1) 리더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국정과제, 정부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자율개선과제를 포함하여 기관장 경영계약과제를 체결하고, 경영계약과제 성과지표 개선에 노력하였다. 기관별 핵심가치를 토대로 경영목표를 고려한 기관장 경영방침과 전략방향을 재정립하였고, 현안과제와 혁신과제 추진에 있어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일부 기관은 경영목표와 경영진 1:1 매칭 등 책임관리제 운영을 통해 경영계약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등 지표관리체계가 우수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 및 사업혁신의 제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경영계약목표 실현을 위해 세부 과제들의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대부분 기관장의 전문적이고 균형적인 리더십에 기반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혁신과제와 현안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진 책임경영 실현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다수 기관들의 경우 기관장 경영계약과제와 기관 경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체계화하는 등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전략체계 개선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사업전략에 대한 전체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를 통해 단계별 계획 수립과 과제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과 달성을 위한 리더십 실행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전문성 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 안건 사전설명 등 이사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경영제언 확대, 의결건수 향상, 사전심의율 100% 유지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현안과제 추진에 있어 SNS, 언론 등 대외소통 노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부소통 채널의 고도화와 함께 경영혁신과제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내부소통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션, 비전, 핵심가치 등 조직의 가치체계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가치체계를 개선하거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또한 가치체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핵심가치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조직 내 혼선과 비효율을 고려하여 변경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체계 내재화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중장기 전략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의 변경 등 중장기 전략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다만 기관들은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 일반적으로 전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도출 및 운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의 대표성, 도전성,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 내 강력한 전략 실행 및 소통을 위해 전략목표나 전략과제와 관련하여 모호한 단어나 부적당한 표현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강화를 위해 전략목표나 전략과제에 따라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지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기관들은 ESG 전략을 수립하고 ESG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ESG를 기관 경영전략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기관 경영전략, 혁신전략 등과의 중복으로 인해 경영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ESG 전략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국민소통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에 자료를 공시하고, 고객만족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고도화하였으며,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정보공개 확대 등 국민소통 지표와 관련하여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분석과 전년도 지적사항을 포함한 기관 내부 추진 역량 및 실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선과제 혹은 전략과제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나 전략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도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전략체계 상에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소통 결과를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기관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일자리 양의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의 양적 확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기관 전략방향에 따른 인적자원 소요계획, 재무역량 및 전략과 논리적으로 연계한 일자리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교대제 변경, 탄력정원제 실시 등을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대상 대비 이용률이 낮은 점도 대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여성관리자와 여성직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들은 절대적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여성 임원 비율도 낮은 상황이다.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 및 여성 임원 선임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 여성관리자(여성임원) 목표제를 토대로 중장기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여성관리자 후보군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 기관들의 경우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및 중장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내부 일자리(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와 외부 일자리(핵심-조달-위탁사업 등)를 구분하여 중장기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개선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안전 및 재난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기관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산업재해 등 근로자 피해방지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안전관리 범위를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수년 동안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안전관리체계와 재난관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시설물 취약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제안제도를 통한 취약성 도출에 있어서 단순히 양적인 접근만을 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성과를 도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다.
- 기관들은 평시와 비상시에 대한 구분을 통해 비상관리 체계에 있어 지휘·통제와 초기대응 등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기능연속성계획 및 재난대비계획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조직과 인력의 변화가 없고, 안전담당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한 실제 교육 전후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표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재난대비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미집행된 내역이 존재하거나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여 향후 집행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친환경·탄소중립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 추진체계(조직,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기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친환경경영 내재화를 위해 탄소중립 서약 및 선언, 환경보호 의식 내재화수준 진단, 에너지지킴이, 환경보전 활동 마일리지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ESG 경영 등 환경경영전략 수립 이후 좀 더 진일보된 전략으로의 고도화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일부 기관들은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환경경영지표 발굴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채널을 다각화하며, 상시 성과관리 모니터링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의 전년 대비 증가 비율,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등 항목에서 자체평가기준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기관들은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조달청 e발주시스템과 나라장터 활용, 협력·위탁업체 대상 거래관행 및 선금결제방식 관련 모니터링 등 협력·위탁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식별 및 요구분석이 미흡하므로 VOC 채널다각화와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협업네트워크 관리 및 이해관계자 니즈 반영에 기반한 지역상생추진전략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8) 윤리경영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대부분이 윤리경영 측면에서 반부패 청렴 활동,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청렴교육, 인권경영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노력과 성과를 보였다. 기관 대부분이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경영실적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청렴도 지수의 상승, 청렴교육 실적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청렴체감도가 일부 기관에서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고,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과 청렴 활동을 통한 성과가 인정되었다.
- 그러나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수의 기관이 회계담당자 교육 및 훈련 강화, 회계 관계직원의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 통제 규정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의 경영성과가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구성원의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기관의 회계 담당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은 공공기관의 결산 및 회계검사 과정에서 회계오류가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기관이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에서 우대하고, 다른 직원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회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직원의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년도 평가에서 다수 기관들의 적극적인 경영 개선실적 제시가 필요하다.

(9) 재무예산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편성·집행하였고, 예산집행률 제고로 예산 몰아쓰기를 방지하고 예산집행 책임성 확보를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제고한 점이 인정된다. 대다수 기관들은 재무관리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프로세스별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전 직원 대상 기관 내 예산집행주기, 예산편성 및 집행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담당자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교육 콘텐츠 개발과 확산, 교육 역량기여도 평가 등 보다 진전된 노력이 요구된다.
- 상당수 기관들은 예산제약 하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복리후생비 절감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구성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리후생제도의 적정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전적 복리후생과 비금전적 복리후생 지원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체감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비금전적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들은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체재정성과 모니터링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재정예측모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자체 예산운용지침, 재정운용계획을 중장기 경영전략과 보다 촘촘하게 연계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정성과운용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대내·외 기관이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특성을 고려한 자체 재정예측 모델 구축 및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체계 고도화에 노력하였다. 우선, 조직성과관리지표를 간소화하고 다면평가를 세분화하여 직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다. 조직운영 방향을 기관 경영전략과 연계하고,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능통합, 직제개편, 또는 인력 재배치를 시행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다. 또한 직무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조직문화와 관련된 기관 구성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저연차 직원들과의 조직융화 문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등은 기관 대부분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 인사관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 기관들은 현장직의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승진채원을 마련하거나,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 임시조직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경영전략과 연계한 조직운영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대다수 기관들이 인사제도 만족도와 공정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인사교류제도 등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기관은 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구성원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과정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 교육훈련 만족도와 이수율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대다수 기관들은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직무 전문성 향상과 ESG 분야별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의 경우 단순히 교육훈련시간 외에 교육훈련성과 점검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훈련체계를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매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훈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하거나 그동안 누적된 구성원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체계화하여 역량개발 모델과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종합하면 많은 기관들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교육 및 역량 개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직문화 만족도,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역량중심의 교육훈련체계 정립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11)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직무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절차에 충실하기 위해 직원 설명회 및 의견수렴·반영으로 직원 수용성 향상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직무중심의 보수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직무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된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개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사 간 협력적 소통을 통해 보수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 발생하는 점도 확인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의 적극성과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한 기관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직무급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기관들도 직무급 비중이 낮거나 소극적으로 직무급을 설정한 경우가 많기에 직무급 비중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요컨대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련 인사제도, 평가제도, 직원들의 수용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정착과 효과성을 향상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12) 노사관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은 노사 공동으로 노사관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된다. 대다수 기관들의 경우 노사관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관계의 구체적 개선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투입이나 활동 중심의 실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도 확인된다.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관계 관리의 전략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성과관리 노력은 지속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들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운

영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노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향상되었으며, 소통채널의 다양성이 개선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소통채널 운영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성과를 점검하는 데 다소 미흡하여, 단순 개최 횟수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의 경우 기관들은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관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역량강화 영역 설정, 역량별로 요구되는 교육훈련 내용 마련, 역량강화가 필요한 대상의 구분(예: 직급, 직군 등)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의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훈련과 관련 활동이 지속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범주 총평(기관별)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기관은 설립목적인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가축방역사업’ 과 ‘축산물위생사업’ 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 풀(Pool)을 도출하고 국정과제, 정부정책 및 ESG와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SMART, 전략평가, ESG평가를 통한 적합성 분석 후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가축방역사업은 성과목표로 악성질병 차단방역 노력, 축산농장 차단방역 수준 제고, 방역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방역, 역량 및 기반시설 활용 서비스 개선을 설정하였으며, 축산물위생사업은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검사기술력 향상,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업 확대, 해외축산물 검사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였고 설립목적과 중장기적 관점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들을 적절히 구성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 방역 대응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조기 럼피스킨 백신접종안정화로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zero를 달성하였다. 자가진단 알람톡을 도입해 최근 3개년 평균 대

비 15건 추가 검색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표창 수상 및 내부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ASF 확산 차단”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의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스마트 장비 도입, VR 교육시스템 활용, 내부 전문가사 육성을 통한 현장 맞춤형 강의를 통해 도축검사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축산물 PLS 제도의 정착 및 HACCP 사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현물 검사 비율을 높여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성과지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내지표와 대외지표의 통합, 목표 미달 사업 조기 식별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성과관리 노력이 요구되며, 검사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위험성이 높은 도축 검사 환경에서 검사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노력이 요구된다.

(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관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미션과 ‘농식품 산업과 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에 맞춰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농식품 R&D사업 기획’, ‘농식품 R&D사업 관리’,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 풀을 도출하고 전략연계, ESG 연계성 및 SMART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후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은 성과목표로 식품 R&D사업 기획의 합목적성 확보, 촘촘한 R&D 기획을 통한 투자공백 최소화를 설정하였다.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를 성과목표로 정하였다.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사업은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튼튼한 기업성장 지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든든한 성과 확산을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였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중장기적 관점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들을 적절히 구성하고,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목표치 설정, SWOT 분석을 통한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별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평가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식품 R&D 관리체계 명확화 및 간소화를 통해 협

약변경 요청일~승인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달성하였으며, 질 중심의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2023년 사회문제 해결 우수성과 2건을 수상하였으며, 수소트랙터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으로 실증 규제특례를 획득하였다. 수혜자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23년 전문기관 연구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연구자 만족도가 전년 대비 5.2% 향상되었으며, 기관 보유 농식품 R&D 정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품질관리 강화, 기술 인증 접수 및 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여 데이터 품질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다만,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을 우선 폐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신규 참여 연구기관 등 집행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구기관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집행오류 예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된 데이터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신규사업과제 발굴 시 농업 현장, 농식품 기업, 학계의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R&D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기관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기관 설립목적에 맞춰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고 3대 전략 방향을 모색하여 주요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관리’, ‘농식품모태펀드운용’,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을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중요도를 사업비, 인력, 정책중요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및 조직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 풀을 구축하고, SMART, ESG 연계, 전략 연계 방식으로 적합성을 분석하여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성과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중장기적 전략 방향과 연계하여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산출(output),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와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농업재해보험관리 사업의 계량지표로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농업정책보험사업의 지속성 관리 노력’, ‘손해평가사 교육성과’를 선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및 재해보험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가당 최대보상한도를 증액하고 역대 최고의 농작물가축보험 및 농업인 안전 보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보험 운영 프로세스별 제도 개선 및 사업 점검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재해보험사업의 지

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비교적 가입률이 낮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관리,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보험 확대, 손해평가사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농식품모태펀드운용 사업의 계량지표로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선정하여 농식품산업 투자 확대 및 경영체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을 관리·운영하였다. 투자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관리 노력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확대, 조기 투자 체계 구축,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통해 ‘23년 2,142억 원의 펀드를 추가 결성하여, 총 2조 250억 원의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한 것은 사업성과관리의 측면에서의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매출이 증가한 피투자기업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투자정보 플랫폼의 이용 편의 성과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계량지표로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을 선정하여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지도와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검사 단계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사업자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과 재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대출기관 귀책 사유에 의한 지적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기관은 ‘아시아메미나방의 예찰방제와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 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춰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고 4대 전략 방향을 모색하여 주요사업으로 ‘아시아메미나방 선박검역’, ‘아시아메미나방 예찰·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 풀을 구축하고, SMART 분석을 통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였다. 선정된 성과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중장기적 전

략과제와 연계되어 적절히 구성되었으나 선정과정에서 SMART 분석, 경영전략, 국정 과제, ESG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아시아메미나방 선박검역 사업의 계량지표로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와 ‘선박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성과’를 선정하여 검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고객과의 교류를 강화하며, 검역환경 개선 및 검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 선박 검역 전용 AMG 탐지 장비 개발을 통한 현장 적용을 시행하였고,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준수 및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였다. 다만, 검역보조인력의 업무역량 향상을 통한 검역 품질 향상 및 표준화를 위해 아시아메미나방 탐지 장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기관은 아시아메미나방 예찰·방제 사업의 계량지표로 ‘AGM 발생 대응 노력’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단위 사업을 통해 예찰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AGM 예찰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발생 빈도 변화를 예측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AGM 발생 예측 모델의 개선을 통해 AGM 확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사업의 계량지표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물검역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담당 식물검역기관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에 기여하였다. 다만, 병해충 신속 통지율의 경우 과정평가를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환류 활동이 요구된다.
- 기관은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사업의 계량지표로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성과’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직무전문가 확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조사품질 향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특히,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하여 3년간 안전사고 zero를 유지하고 외래병해충 예측정보 시스템 개발 착수를 통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이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 핵심인력 육성’,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 풀을 도출하고 적합성 분석 후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기관의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농산업 미래 선도인력 육성, 현장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양성, 도시민 귀농귀촌 인력 육성을 성과목표로 하였고,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은 디지털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고도화, K-농업 글로벌 브랜드화를 성과목표로 하였으며,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은 농업·농촌 가치 인식 제고,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및 성장기반 확산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 기관은 3개 주요사업, 계량지표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였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중장기적 관점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들을 적절히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업 미래 선도인력 육성사업은 청년농 생애주기별 성장관리를 통해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농업 분야 인력구조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및 예비 귀농귀촌인의 육성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은 농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전후방산업 육성 지원으로 농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고자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은 이슈 분석 보고서 FATI 발간, 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인기 유튜버와 연계한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농촌 가치를 홍보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농촌 가치 확산 성과 및 식량작물 소비인식 확산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농업 핵심인력 육성,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차등)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한식진흥원

- 기관은 설립목적인 ‘한식, 한식문화 및 한식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여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사업별로 성과지표 풀을 도출하고 적합성 분석 후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기관의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사업은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성과목표로 하였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사업은 한식 통계조사 활용성 제고를 성과목표로 하였으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식포털 서비스 고도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였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중장기적 관점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들을 구성하고 평가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식산업 협의체를 발족하였고 해외한식 확산에 따른 한식교육 고도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다만, 한식 포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한식 포털 한식 콘텐츠 활용도 등의 목표 대비 미달성 성과지표의 경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 기관은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의 경우, 한식기록 집적 실적, 한식 국가통계 활용 실적, 한식포털 한식 콘텐츠 활용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한식기록 집적 실적시 기록, 조사 등으로 국한된 주관적 자료의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식의 국내외 확산은 A50B 행사를 통해 외국인 다수 참석을 통해 한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민간 대관 확대를 통해 한식진흥원의 확산에 기여 및 해외우수한식당 지정제를 효율화하여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K-미식벨트 조성시 1-3차산업 연계 방안 및 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해외 한식 산업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한식산업 미래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식의 고급화 추진 사업을 추진하여, 미쉐린 셰프팀과 연계하여 10여종의 수출유망품목을 활용한 신메뉴 15종 개발 완료하였으며, 신메뉴 미디어 콘텐츠 17편 및 레시피 E-book 제작 및 보급하였다. 또한, 한식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유관단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해외한식당 운영 컨설팅에 대한 사후 피드백과 영상 조회수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신메뉴 개발 등이 한식 미래가치 제고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기관은 ‘상생 공동체 구현을 통해 식품기업 육성 및 식품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이바지’ 라는 미션과 ‘대한민국 식품산업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파트너’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 ‘기술 지원 사업’ 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사업별로 성과지표 풀(Pool)을 도출하고 적합성 분석 후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기관의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은 성과목표로 식품 창업·벤처 육성,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 식품클러스터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정하였다. 비즈니스 지원 사업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 상생협력 비즈니스 확산, 미래혁신 식품인재 양성을 성과목표로 정하였다. 기술지원 사업은 ‘식품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미래먹거리 창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였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중장기적 관점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들을 적절히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하에서 평가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육성지원으로 실질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식품벤처센터 운영 고도화성장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 하였으며, 매출액과 고용증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기관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거래 활성화, 클러스터 잠재회원사 확대, 소비자 접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푸드비즈온과 푸드폴리스마켓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B2B매칭 상담 지원을 통해 구매의향서 체결 금액을 전년대비 65% 증가 하였다는 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유통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수출상담회 대면참여율이 제고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은 식품기업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기술 성장 지원 및 식품산업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 지원 강화와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관내 입주한 기업 뿐만아니라 권역별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클러스터 활성화인지, 비즈니스 지원인지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사업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장기 전략체계 하에서 주요사업의 체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8) 축산환경관리원

- 기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 라는 미션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관리사업’, ‘산업인프라 활성화 사업’, ‘디지털 혁신사업’ 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사업별로 성과지표 풀(Pool)을 도출하고 적합성 분석 후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축산환경 관리사업은 성과목표로 가축분 처리 다각화, 환경친화 실천 축산농가 확대를 정하였다. 산업인프라 활성화 사업은 축산환경 분야 전문인력 육성, 축산환경 산업 육성·지원을 성과목표로 정하였다. 디지털 혁신사업은 축산환경 정보 DB화로 디지털 체계 구축, 지역단위 양분관리 체계 구축을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였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중장기적 관점과 연계하여 성과지표들을 적절히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평가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최초 가축분 바이오차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설비 준공(2개소)에 기여하였다.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관련 분야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에 대한 신뢰도 향상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 현장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별 교육거점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가통계 승인을 통해 신뢰성 있는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의 경우, 목표대비 104% 달성하였으며 실용성 있는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관은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 성과는 국가통계 승인과 연계하여 축산환경조사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다만, 23년도에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의 경우 24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상향 재설정 필요하며 시험분석 항목 다양화를 위한 인력 확대 및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진행 예정으로 표기된 추진 내용은 차년도에는 정량적 자료가 요구된다. 그리고,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만족도의 절대적 수준 자체가 높지가 않다는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수료생의 만족도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I. 기관별 평가보고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9.625	2	1.508	16	11.133
	(1) 리더십	4	B0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B+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	-			
	(3) 국민소통	1	B0	2	1.508		
	2. 사회적 책임	6	3.750	5	3.849	11	7.599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C	1	0.463		
	(2) 안전 및 재난관리	2	B0	2	1.386		
	(3) 친환경·탄소중립	1	B+	1	1.0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0	1	1.000		
	(5) 윤리경영	1	B0	-			
	3. 재무성과 관리	8	6.000	3	2.962	11	8.962
	(1) 재무예산관리	8	B+	-			
	(2) 재무예산성과	-		3	2.962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7.875	-		12	7.875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B0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B0					
(2) 노사관계	3	B+	-				
소계		40	27.250	10	8.319	50	35.569
주요 사업 (50)	1. 가축방역사업	12	7.500	18	15.900	30	23.400
	(1) 가축질병시료채취 추진노력도	-	B	7	6.300		
	(2) 농장예찰가축질병검색률 향상도	-	C	6	5.100		
	(3)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	B	5	4.500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0	-			
	2. 축산물위생사업	8	6.000	12	9.639	20	15.639
	(1)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 제고 노력	-	B	8	6.081		
	(2)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	-	B	2	1.658		
	(3)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	A	2	1.900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	-			
소계		20	13.500	30	25.539	50	39.039
합계						100	74.608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1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5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76.608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3개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2년차 新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계약과제 성과지표를 개선하였다. 기관장은 전국 57개 임차 사무소 사무환경 개선, 현원의 96%에 달하는 현장직원 안전관리 강화(보건안전예산 증액, 안전전담부서·전담인력 확충, 개인안전장비 확대)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4대 전략목표(가축방역, 축산물위생, 혁신경영, ESG경영)와 6개 경영계약과제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현안과제 4(현장직원 급여체계 개선)의 경우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 기관은 3대 영역(방역, 위생, 검역)에서 공무원(가축방역사 496명, 도축검사원 403명, 관리수의사 73명) 처우 개선, ESG 경영전략(3대 방향, 9대 전략, 29개 실행과제) 수립 및 노사공동 관리체계 도입, 안전보건 경영체계(ISO45001 인증 획득) 강화 통한 산업재해율 22% 감소 등 성과 달성에 있어 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인정된다. 쌍방향 예찰앱 도입을 통해 자가진단 알림톡 활용 확대에 노력하고, 가축방역 교육 체계 개편 성과도 인정된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17건 검색 등 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 및 사업혁신의 제도화를 위해 기관장 상임화를 향한 전략적 소통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본부와 도본부의 조직 위상 구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본부 명칭을 ‘광역지사’ 등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기술환경 및 기관 위상에 부합하도록 기관 명칭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이사회 전문성 제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 참관제 등 4대 개선과제를 추진했고, 사전설명 등 이사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경영제언(8→24건), 의결건수(15→19건) 향상, 사전심의율 100% 유지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4대 현안과제(ESG경영, 경영혁신, 현장안전관리 등) 추진에 있어 SNS, 언론 등 대외소통 노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부소통 채널이 지역사회행사 참여, 7개 기관 공공협업네트워크 등에 제한되어 있어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12대 경영혁신과제의 지속가능한 추진

을 위해 내부소통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청렴도 향상(5→4등급)은 일부 인정되지만 절대 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미션·비전을 재해석하고, 경영전략 체계(4대 전략, 12대 전략과제)와 연계한 ESG경영전략(3대 방향, 9개 전략과제, 29개 실행과제)을 수립하였다. ESG기반 기관장 新경영계약과제(2대 목표, 6개 실행과제)에 대한 실행·점검체계 고도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4대 핵심가치(안전, 소통, 신뢰, 책임) 내재화를 통해 충청권 ESG공공협업네트워크 참여 확대, 노사공동 12대 개선과제 및 ESG경영 강화, 인권영향평가 1등급 등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시된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기능이관 등 사업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가령,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후 검역완료서 발급에 있어 정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역할체계, 방역완료서 발급에 있어서도 지자체와 역할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높은 공무원 이직률, 지자체의 가축방역관 구인난을 고려할 때 가축방역관 자격체계 개선 등 전문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단체 등 이해관계집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12개 전략과제를 개선하고, PDCA 기반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과제별 자원배분 개선에 노력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신규사업 TF팀을 통해 미래과제를 발굴하여(신규사업 2건, 사업 조정 2건) 4대 전략목표별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발굴·확산한 성과가 인정된다. 특히 가치체계 공유도가 향상되고, 직원 유형별 혁신역량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기관의 혁신과제 추진동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기관장 기자간담회 등 한정된 활동을 넘어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혁신계획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ESG경영전략 내실화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과제 보완도 필요하다.

- 기관은 규제혁신·적극행정, 공공서비스 혁신(디지털, 스마트, 차단 방역, 안전체계), 업무혁신에 노력했다. 공공기관 혁신방안 대응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협의체, 정책홍보협의회, 공공협업네트워크, 경영자율협의체, 지역발전협의체 등 내·외부 협력 기반 경영혁신체계를 구축·운영한 점도 일부 인정된다. 혁신 보상체계 강화로 8명 감축, 37명 재배치, 업무추진비 25백만원 절감 등 일부 경영효율화 성과를 달성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3대 혁신과제 성과 제고를 위해 12대 전략과제와 4개 현안과제의 연계성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기관이 보유한 축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축산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벌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6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별점 3.5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와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88.35 전년대비 향상도 : 96.54	90.81	1	0.908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86.13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3.07점)으로 양호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88.35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4.17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96.54점을 7:3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0.81점으로 총 점 1점 중 0.908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국민투표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국민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경영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경영개선 반영(3건) 등 국민소통 강화에 노력하였다. 경영공시지침을 토대로 공시 체계 개선에 노력하였고, 민원처리체계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실태평가에서 2년간 ‘우수’ 등급을 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체계적인 축산농장정보 DB 수집·관리를 통한 국민·방역 유관기관에 동물약품 등 관련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 공유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튜브 노출수, 유입률, 조회수 등은 단편적 성과라는 점에서 가치공유도 외에 고객유형별 소통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하고, VOC 접수처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차 고객 범위를 축산농가 외에 동물의학 등 관련 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언론, 전문지 등을 통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실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66.10	0.7	0.463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0.00	0.3	0.0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66.10%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463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0.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재수립, 정·현원차 결원을 해소 및 사전심사제를 통한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무기계약직 중도퇴사율이 6.5%로 높고, 최근 3개년간(2021-2023년) 지속 증가 추이에 있으므로 구체적 원인분석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인턴 직무만족도를 기재부 공공기관 만족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세심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기관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유연근무제(단축근무, 시차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남성육아휴직 사용인원도 증가하였다. 다만, 유연근무제 평균 사용률(54.1%)이 기관 목표 설정치 및 기타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평균사용률(69.2%)에 미달하므로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독려가 요구된다.
- 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연1회), 장애인제한경쟁채용제도 도입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 3개년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고졸, 다문화가족 등 채용 역시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위한 다각적 채널을 확보하고 장애적합 직무의 적극 발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78.63	1	0.786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보통	1	0.6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78.63점으로 0.786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개선 2건, 권고 3건으로 총 12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43%로 보통 기관에 해당하여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협의체(월 1회), 위험성평가(연 1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23년 9월)하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부 위원들의 안전전문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별도 안전보건자문위를 구성하여 외부 안전전문가 정책조언과 제언 채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 기관은 자가진단 알람톡 도입으로 가축전염병 추가 검색 등 재난예방에 기여하고 전화예찰의 모바일 환경 전환, 드론을 통한 ASF 확산방지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재난 및 안전예방 노력과 성과창출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 다만, 산업재해대비대응매뉴얼 구축(2022년 6월) 및 재난안전관리종합대응매뉴얼 수립 보고(2022년 12월) 이후 2023년 제도적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재난 유형별 다각적 대응 시나리오 수립으로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무기계약직 현장근로자 비중이 높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최근 3년 간 발생한 4건의 중상재해 중 3건이 2023년에 발생하였음에도 특별한 보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산업재해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제안 및 안전신고제도 현장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안내 및 홍보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 및 재난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교육, 공동재난모의훈련 확산 등 내·외부 모니터링 체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는 최근 3개년 (21년: 88.80(보통 등급); 22년: 90.00(S 등급); 23년: 78.63(B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인정보호관리체계 개선 노력과 관리 측면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3개년 정보보안감사 결과에서도 지속 지적받는 내실있는 보안감사 수행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600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4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975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38.91%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108.07%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74,471천원으로 전년 22,079천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43,438천원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0.4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사적 ESG 경영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3대 방향, 9개 전략과제, 29개 실행과제)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특히 친환경경영 추진체계 측면에서 직전 2개년도(2021, 22년에는 에너지절약 추진위, 에너지지킴이만 운영된 반면 2023년에는 ESG 전담조직 및 경영위원회 구성, 경영실무협의체 운영 등 추진체계를 개선하였다.
- 기관은 3개년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정부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3개년 중 가장 온실가스 감축률(38.91%) 및 개선효과가 높다. 정부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계획 대비 427%를 달성(목표: 34백만원, 실적: 146백만원)하였다. 다만,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환경경영 지표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 식별 노력과 환경경영지표 발굴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채널 다각화나 상시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환경경영 의식 내재화와 구성원의 친환경, 탄소중립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방식 및 협업관리방식의 체계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찾아가는 교육 또는 녹색제품 구매 다각화를 위한 환경지킴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현장근로자 역시 ESG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100.00	0.25	0.25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100.00	0.15	0.150
여성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100.00	0.15	0.150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100.00	0.25	0.250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5%	100.00	0.15	0.150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100.00	0.15	0.150
계			1.10	1.100
인정 점수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품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품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역사회 공공협업네트워크를 구축 및 추진하였으며, 세종시 공공기관 최초 “도시양봉” 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부와 지역 생산품 구매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관 주차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상생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조달청e발주시스템과 나라장터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액수의계약 입찰 확대와 비대면 평가에 따른 또 다른 공정경쟁 제약사항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기관은 홈페이지 내 부패관련 신고(익명신고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채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운영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협력 및 위탁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래관행과 선금결제 방식 관련 의견수렴 채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기관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체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공공기관 청렴사회협의회에 참여하며, 갑질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였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운영하여 선제적인 점검, 관리 및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고,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배포하며,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 서약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활동 실적이 있다. 또한 채용 전반에 대한 점검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렴교육 실적이 존재하며,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소속기관별 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기관의 2023년 농식품부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청렴체감도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내부 청렴체감도(사익추구, 부당예산집행, 부패경험)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윤리경영과 관련한 기관 내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기관은 2023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적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저조한 회계담당자 교육·훈련강화,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계 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 개선(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채용,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 회계 통제 강화방안 마련 및 이행 등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 세분화(기존 3단계 → 5단계), 예산운용 검토회의 도입을 통한 예산 전 과정 연계집행률 점검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2년 연속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달성하였다.
- 기관은 인사·복무 관리(인재개발부) 및 인건비 운영 부서(경영지원부)의 통합을 통한 경영지원실로의 대부서화, 노사합동 대응팀(TF) 운영을 통한 급여체계 개선(대우수당 현실화: 정율→정액) 노력을 통해 예산제약에 대응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기관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직 근로자(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재원부담이 농림식품축산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에 입각한 인건비 재원조달 및 지출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업무협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지자체 보조금사업 추진절차 체계화(보템 e)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였으며 체크리스트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예산제약 하에서도 심신건강 복지프로그램 등 비금전적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기관 구성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돋보인다. 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내 예산집행주기 및 중장기적 전략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현황을 공유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대내외 아이디어 수렴 채널 확대와 정책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재무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가능한 조직 및 예산담당자 역량강화 제고 역시 병행이 필요하다.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콘텐츠구성과 역량기여도 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정성과운용계획 및 재정운용결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내외 기관이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재정 예측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목표대실적	100.00	98.43	98.74	3	2.962
사업비 예산현액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목표대실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98.43%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98.74점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2.962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속직원의 만족도 조사결과의 실질적 환류를 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의견수렴 결과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성과관리지표를 간소화('22년 91개 지표 → '23년 50개 지표)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를 세분화하여 차등화된 보상환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기관은 현장직의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관리자 보직을 축소하여('22년 22명 → '23년 18명) 승진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공무직 승진(41명)을 진행하는 등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이는 인사제도 운영 만족도 향상 및 직원 고충 신고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 기관의 교육훈련 만족도도 높고 교육이수율이 상향되는 등 구성원 역량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교육 노력도 확인된다. 기관은 인사교류제도 근거규정 및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고, 인사교류 대상자 승진을 시행하였으며, 전문직위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였다.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직군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며, 별도직군 관리유연화를 시행하는 등 행정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임피제 대상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도 확인된다.
- 그러나 구성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불만족 평가가 높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기관이 저연차 직원들과의 효과적인 조직융화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유사직렬 및 직무를 통합한 실적이 있다. 신규 직무 평가를 진행하고, 신규 직무에 직무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급 도입을 완료하는 등 연공성 연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되었다. 전사적 의견수렴과 노사 공동 참여에 기반하여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었다.
- 그러나 기관의 현행 직무 등급 체계는 연공성이 여전히 강한 측면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 향후 부서원의 직무등급도 좀 더 세분화되고, 전체 보수대비 직무급의 비중도 더 증가하는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첫째,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살펴본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3년에 노사 공동으로 급여체계 TF를 운영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등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직운영준칙 제정, 임금피크제 운영제도 개선 등 노사공동의 개선성과가 존재한다. 또한, 노사가 상호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인력배치의 조정과 부서별 표준화를 추진한 실적이 확인된다. 그 결과, 노사 간 소통의 횟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노사관계만족도, 소통만족도, 교육 만족도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노사 공동의 노력과 성과가 다수 확인되었고, 노사 간 소통의 양이 대폭 증가한 부분도 기관의 노사관계 노력과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소통의 횟수 등으로만 성과를 집계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소통 기회의 결과와 환류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노사관계 노력의 질적인 성과도 측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① 가축방역사업

(1) 가축질병시료채취 추진노력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채취 실적 / 목표 채취수) × 100	목표대실적	655,242두	765,303두	100.00	7.000	6.3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채취(주요 질병)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 목표 대비 실적을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시료채취사업 2023년 목표치는 655,242두(수)이며 실적치는 765,303두(수)를 기록하여 시료채취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총 7점 중 7.000 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6.3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가축방역사업 중 시료채취사업(주요질병) 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정성 향상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배분하여 전략일관성을 가지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시료채취 실적/

목표(계획) 채취 수 × 100)은 투입(input) 내지 활동(activity)에 가까워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과거 3개년 실적 추세를 고려할 때, 22년 실적치보다 23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도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농장예찰가축질병검색률 향상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질병검색건수 / 예찰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건수) × 100	목표대실적	최고: 72.23 최저: 65.28	76.23	100.00	6	5.1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예찰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건수 대비 질병검색건수의 비율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농장예찰 가축질병 검색률 2023년 목표치는 최고 72.23%, 최저 65.23%로 나타났으며 실적치는 76.23%를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총 6점 중 6.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1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가축방역사업 중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에 대한 질병 검색률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정성 향상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검색률이라는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일관성 측면에서 ‘예찰보고서 제출 실적/사업계획’ 및 ‘질병검색건수/외부기관 검사의뢰건수’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설정하여 지표를 구성하여 계획 대비 실적, 실적 대비 검색률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과거 3개년 실적 중 최대값(73.34%)을 기준으로 그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목표(72.36%)를 설정하여 도전성이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과거 3년간 실적 중 최대치를 기준으로 일정 % 이상 높게 설정할 필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현행화사업 완료율(50%) + 지자체 인허가매칭률(30%) + 현장평가향상도(20%)	목표대실적	95.70	97.18	100.00	5	4.500

나. 평가내용

- 신뢰할 수 있는 축산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살생 시 신속한 확산차단 및 조기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현행화사업 완료율(50%), 지자체 인허가 매칭률(30%) 및 현장평가향상도(20%)의 합계로 실적을 산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현행화사업 완료율 100%(가중치 부여시 50%), 지자체 인허가 매칭률 99.79%(가중치 부여시 29.93%) 및 현장평가 향상도 86.25%(가중치 부여시 17.25%)를 달성(가중치 부여시 총 97.18%)함으로써 목표치인 95.70%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 총 5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5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장정보현행화 전문기관으로 축산농장 정보를 최신화 관리하여, 평시 가축 질병예방사업의 기반정보를 제공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차단방역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정성 향상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배분하여 전략일관성을 가지며, 현행화사업 완료율, 인허가 매칭률, 현장평가 향상도 등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평가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농장정보현행화 관리 노력도는 조만간 임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 대비하여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규지표로 23년 목표치를 22년 실적 95% 기준으로 매년 0.7%씩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23년 실적치가 97.1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를 다소 과소 설정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을 설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국정과제, 정부정책 및 ESG와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SMART, 전략평가, ESG평가를 통해 계량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대표 지표 설정시 외부전문가(컨설팅기관)만이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앞으로 외부고객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기관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사업 지표와는 별도로 내부지표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외 지표와 대내 지표가 불일치하는 한계를 나타내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사적 방역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렘피스킨 백신접종 및 확산 방지를 달성하여 조기 렘피스킨 백신접종안정화로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년 동기간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136건 감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기관은 1종 가축전염병 발생, 초동방역을 통한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지도 목적 중심 합동점검 운영방식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고, 농장 구조 및 지형 상 충족이 어려운 농가에 평가방식 다양화를 통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축산농가방역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를 통해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zero를 달성하였다.

- 기관은 자가 진단 알림톡 도입을 통해 전화예찰 사업방식을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여 가축전염병 17건 조기검색,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5건 추가 검색 등의 성과를 거두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표창 수상 및 내부 적극행정 ‘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가축 방역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여 생뿔돼지 이동경로 추적 및 포획 지원에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ASF 확산 차단” 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의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축산농장정보 DB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제역 개체번호정보 공동 이용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방역정책 정보지원 등 농장정보 제공 및 활용분야를 확대함으로써 현행화 전담기관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산란계 농장의 참여 희망조사 결과, 미참여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해외악성가축질병 청정화의 초동방역투입 정확도,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의 전화예찰 질병검색 건수, 방역인프라 조성 및 교육개편의 농가정보 현행화 노력도 등 단위사업의 계량지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지표의 목표수준에 대해서도 성과를 적절히 달성하였다. 이러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통해 기관의 전략목표와 ESG 경영전략 달성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기관은 디지털 방역시스템 도입에 따른 알림톡 농가 회신율이라는 계량지표에 대해 목표(40.0%) 대비 실적(32.0%) 달성률이 80% 수준에 불과하여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관은 목표 미달치를 인식한 시점에서부터 미달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모니터링·평가시스템과 연계한 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 등을 통해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업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 노력을 추진하였다.
- 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통해 강화 및 보완요인을 도출하는 환류 활동, 외부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을 수행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치하였으며, 2023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한 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2 축산물위생사업

(1) 도축검사 이상보고 정확도 제고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Phi^{-1}(\text{오류율}) + 1.5$	목표부여 (편차)	최고: 3.55 최저: 2.65	3.37	84.46	8	6.081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상보고 폐기건수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포유류와 가금류의 도축검사 이상보고 실적을 합산하여 향상도를 산정하고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포유류와 가금류의 도축검사 이상보고 오류율은 3.05%로서 단기 실적은 3.37을 기록하였으며 목표치 최고 수준은 3.55, 최저 수준은 2.65로 나타나 평점 84.46로 총 8점 중 6.757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6.081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폐기건수와 위생사업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 이상보고 실적을 합산하여 이상보고 실적의 정확도 향상을 평가하는 지표로,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향상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도축검사 이상보고의 오류율을 평가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결과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

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사원들의 검사 건수의 증감에 따라 오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높다는 점과 검사원의 검사 건수에 대한 노력도를 고려해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에 도전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지만, 검사원과 수의사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상보고건수와 폐기건수가 집계된다는 점과 검사원의 소극적인 이상보고가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표의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축산물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불합격건수/이상보고건수) × 100	목표부여(편차)	최고: 50.80 최저: 29.30	48.64	92.08	2	1.658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용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이상보고 건수 대비 불합격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고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이상보고 건수 대비 불합격률은 48.64%이고 목표 최소치는 29.03%, 최대치는 50.80%로서 92.08점의 평점을 기록하여 1.842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658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이상보고 건수와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불합격 건수의 실적을 비교해 제거성과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수입 식용축산물의 안전위험요소 제거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의 대표적 업무에 해당하여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식용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했을 때 가중치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도축검사이상보고’의 경우 정확도 제고노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본 지표는 제거성과율로 평가하고 있어 지표 간 평가산식의 통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상보고건수가 낮을수록 실적치가 높아지는 현행 산식을 통해 검사원들의 소극적인 이상보고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도전성을 저해하고, 지표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산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3)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 달성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100점-Σ클레임 발생점수	목표대실적	0건	0건	100	2	1.9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화를 통해 신뢰도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클레임 발생 유형별로 부여된 점수와 건수를 통해 산정된 점수를 100점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산정하고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현물검사 클레임 건수는 0건으로 평점 100점을 기록함으로써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9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현물검사 클레임 제로화를 통해 신뢰도 향상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기관의 대표적 고유 업무에 해당하여 성과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배분의 적정성과 결과 중심의 지표 구성, 평가데이터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년간 현물검사 클레임 발생 건수가 0건임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이미 검토가 진행된 감점 점수 배정에 대한 기준설정의 근거 마련을 통한 지표설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는 현물 검사 클레임의 목표는 더 이상 향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전성 측면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4)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 로 평가한다.

(4)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축산물위생사업의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있으며, 객관성 있는 평가(SMART, ESG, 전략)를 통해 지표를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평가대상 사업의 성과지표풀(Pool)을 추가로 발굴하여 다변화하고, 주요사업과 세부사업, 실행과제, 성과목표 간 연계성을 높이며, 유사한 성과지표들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영평가 및 외부 자문을 통해 계량지표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도축검사이상보고율’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 기관은 중장기 관점을 고려해 사업추진 전략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평가대상 사업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과 인적자원을 배분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개선을 도모하였다.
- 축산물위생사업 대부분의 실행과제는 검사원 역량 강화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현재의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방법을 다변화하여 교육 및 훈련의 효과성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필요시 개선점을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도축 검사 환경에서 검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축산물 위생사업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한 도축검사원 업무능력 제고’, ‘도축 검사연구회를 통한 검사원 근무 여건 개선’, ‘HACCP사업 지원을 통한 아전 축산물 제공’,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홍보·정보전달’, ‘현물 검사 대응 역량 제고’의 실행과제를 계획하여 집행하였다.
- 기관은 스마트 장비 도입, VR 교육시스템 활용, 내부 전문 강사 육성을 통한 현장 맞춤형 강의를 통해 도축검사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교육예산

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업 선진지 견학은 검사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선진화된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선진지 견학이 실질적인 개선의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 견학 후 평가 및 토론, 지속적인 후속 조치, 결과공유 및 확산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도축 검사연구회를 통한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안전을 도출하여 2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개정(안)을 통해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 도축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배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검사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검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를 적절히 집행한 기관의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장 맞춤형 신규 기자재 도입을 위한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축산물의 PLS 제도의 정착 및 HACCP 사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축장의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입 식용축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BSE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물검사 비율을 높임으로써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축산물 위생사업의 성과를 위한 기관의 바람직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축산물위생사업의 단위사업 중 협업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의 ‘도축장 HACCP 점검 참여도’는 계량지표를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였으며, 도축검사 직무능력강화의 ‘도축검사 이상보고율’은 91%와 해외축산물 대응능력강화의 ‘현물검사 위험요소 제거 성과’는 96%를 달성하였다. 다른 모든 계량지표는 목표치의 90%를 상회하였다.
- 비계량 지표는 목표 수준 대비 높은 성과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한 도축장 조사평가 참여 140건과 ‘현물검사 안전성 확보 노력’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 교육 38건, 현장 관리 감독 427건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목표수준 설정에 있어 구체성을 높이는 측면에

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주간회의 및 월간회의를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체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완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기관은 2022년의 자체평가 결과를 2023년의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2023년의 결과는 다음 연도의 환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인력효율화로 정원감축(전화예찰직 240명), 인력재배치(전화예찰직 인력 37명을 사무운영직으로 재배치)를 하였으며 전화예찰의 모바일 환경 전환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직원 업무효율화(업무량 감소 8.7%) 및 민원감소 성과를 창출한 부분이 인정된다.
- 기관은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본부 조직개편과 대부서화를 통해 관련 유사 기능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혁신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추진으로 2023년 목표액 106백만원을 절감하여 2년 연속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대우수당 지급방식 개선(정률 → 정액)으로 인건비 부담완화에 기여하였다.
- 기관은 경영혁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선발대회를 통해 국민제안 중 우수사례를 도출(96건)하고 전 직원 공유를 통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제도개선(98건) 및 현업 적용을 통해 생산성 제고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3점 중 1점을 부여한다.

② 성과중심 보수체제 확대 노력과 성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23년 직원의 대우수당과 승진가급 개편을 진행하여 인건비 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총인건비 내에서 성과급을 확대(전년 대비 0.12%) 하는 등의 노력과 실적이 존재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과중심의 보수체제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3]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23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 45001)을 획득하고, 전화예찰 업무를 디지털 전환하고, 열화상 드론으로 방역활동 고도화를 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할만한 노력과 실적이 존재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극행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4]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0.77%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0.77%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9.750	2	1.154	16	10.904
	(1) 리더십	4	B+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B0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5	-			
	(3) 국민소통	1	C	2	1.154		
	2. 사회적 책임	6	3.750	5	4.547	11	8.297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B+	1	1.000		
	(2) 안전 및 재난관리	2	B0	2	1.737		
	(3) 친환경·탄소중립	1	C	1	0.81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0	1	1.000		
	(5) 윤리경영	1	B0	-			
	3. 재무성과 관리	8	5.000	3	2.996	11	7.996
	(1) 재무예산관리	8	B0	-			
	(2) 재무예산성과	-		3	2.996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7.750	-		12	7.750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B0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B+					
(2) 노사관계	3	B0	-				
소계		40	26.250	10	8.697	50	34.947
주요 사업 (50)	1. 농식품 R&D사업 기획	5	4.375	7	6.150	12	10.525
	(1) 농식품 R&D산업·기술 동향 조사분석	-	C	3	2.550		
	(2) 농식품 R&D사업 기획·발굴 실적	-	B	4	3.600		
	(3)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A0	-			
	2. 농식품 R&D사업 관리	7	6.125	9	7.650	16	13.775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관리 노력	-	C	5	4.250		
	(2)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최소화 노력	-	C	4	3.400		
	(3)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A0	-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	8	7.000	14	12.947	22	19.947
	(1)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	B	7	6.300		
	(2)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성과	-	A	7	6.647		
(3) 농식품 R&D성과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A0	-				
소계		20	17.500	30	26.747	50	44.247
합계						100	79.194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2.0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81.194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자율개선과제(자율책임경영)를 포함한 3대 경영계약과제(개방형 R&D, R&D혁신생태계)의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하고, 목표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99.6%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경영목표와 경영진 1:1 매칭 등 책임관리제 운영을 통해 경영계약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지표관리 성과지표(혁신계획 목표 이행률(신규), ESG경영수준 진단 등 6개)를 통해 리더십 성과를 관리하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기관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역동적 농산업 육성을 위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R&D혁신 전략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경영계약과제별 정책초점을 고려하여 6개 세부과제의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전년도 기재부 경영평가단의 6개 분야 16개 지표, 총 40건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농림식품 R&D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 기관장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리더십, 전문성에 기반한 변혁적 리더십이 확인된다. 미래 농식품 R&D과제(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등 현안과제별 경영진 책임경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능 중심 조직 구성을 고객 관점에서 기술 분야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경영목표3이 기술상용화 촉진으로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 목표인지 디지털 역량 강화가 목표인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경영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ESG경영 인식 수준이 소폭 향상(84.3→85.6점)됐으나, 경영진 주도의 인식 개선 활동 등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 기관은 비상임이사 전문성·다양성 확보(특허, 법률, VC, 3대 농정분야 등 8개 전문분야), 경영제언 이행률 증가(52.6% → 93.1%), 이사회 활성화 지수 향상(71.6→89.8점) 성과가 인정된다.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 등 보상체계 개선을 포함한 조직·인사제도 고도화를 통한 구성원 동기부여로 혁신마일리지 참여율 증가(83→99%) 등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연구관리 서비스 만족도 개선(17개 R&D기관 중 3위), 고객만족도 상승(미흡→보통), 구성원 가치체계 인지도 향상(80.2 → 86.5)에 이어 경영진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3대 현안과제 관련 농식품 R&D의 지속성을 위해 경상과제와 현안과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전략과제, 추진과제, 세부실행과제 체계화를 통한 구체적 현안과제 발굴·매칭을 위한 경영진의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비전 재해석 및 핵심가치 의미 구체화를 통해서 4대 핵심 가치와 4대 기관장 경영방침을 연계하여 구성원들의 가치체계 내재화(80.2→86.5점)에 노력하였다. 경영목표와 전략체계를 진단하고, iPET혁신단을 통한 혁신추진전략 고도화 및 이행체계 개선으로 전략과제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과제 36개 성과 지표들에 대해 경영목표를 100% 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농식품 R&D성과의 공유·확산체계 고도화, ESG경영체계 강화 등 전략과제(실행과제)의 내실화를 통해 4대 전략목표 성과 향상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략목표 1(농업 미래성장 산업화)과 관련하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R&D 혁신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경영목표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기관은 국정과제, 과학기술 정책·농정현안을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기능조정을 통한 R&D사업 조정, 핵심농정 이행기반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투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특히 친환경 식품용기 연구 등 R&D대상과 범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통해 실용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강화하고 농업인, 농식품산업, 소비자 등 고객관점 연구개발전략을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 기술거래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nati.or.kr/>)에 산업·기술시장 관련 정보 제공 확대에 점차 노력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연구들의 경우 결과 활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농식품 R&D 규제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진행될 범정부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연계를 고려하여 농림식품 R&D통합정보시스템(www.fris.go.kr)의 연구성과물 콘텐츠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혁신추진체계 고도화를 통한 경영혁신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농식품 R&D

정보개방 확대, R&D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 디지털·데이터기반 혁신을 강화하였고,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농산업체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노력하였다. 특히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노력과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농림식품 신기술인증(6대 분야) 목표인 기술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위해 신기술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농축식품 녹색인증에 있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한 인증효과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벌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2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별점 14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2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와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93.44 전년대비 향상도 : 100.00	95.41	1	0.954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89.55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4.77점)으로 양호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93.44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6.72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100.00점을 7:3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5.41점으로 총 점 1점 중 0.954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3대 이해관계자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신규 소통채널 2개를 신설하고 전문가, 지자체·지역주민, 연구자, 농식품 중소기업, 청년·학생, 농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고객 의견을 반영한 사업 개선에 노력했다. 농식품 R&D데이터 개방실적 120% 확대, 사전정보공표 지표 9건 확대, 기술정보 105건 선제공시 등을 토대로 국가 R&D데이터 품질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SNS 구독자 증가 등 일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객유형 맞춤형 채널별 소통 노력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농식품 R&D성과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향후 채널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소통전략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국민용 홈페이지에서 홍보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 기술 등 세부사항 설명은 최소화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식품 R&D데이터 개방·공유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자·사업자 등 전문가용 연구개발정보시스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100.00	0.7	0.7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100.00	0.3	0.3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중 0.700점을 획득하였다. 기관의 2023년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 핵심기능과 연계한 청년고용친화형 R&D 패키지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전년 대비 111% 상승한 57명 고용),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시니어 일자리 창출('22년: 90명 → '23년: 99명) 등 공공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정·현원차 관리를 통해 결원율을 전년 대비 감축하고,

2-Track 임금피크제를 통한 별도정원 관리 외 세르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기울였다.

- 기관은 가점부여 등 다양한 사회형평 인력채용 우대조치 수행을 통해 장애인, 취업 보호대상자, 청년 등 사회형평 계층 채용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 심리안정휴가 신규 도입, 현혈공가 등 기존 휴가제도 사용을 촉진, 자동육아 휴직제 운영 등 적극적 가족친화 문화조성 노력이 돋보인다.
- 기관은 면접전형 사고관리를 위한 예비면접관 위원제도 및 탈락자 피드백 제도 도입을 통한 채용프로세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채용 이후 중도퇴사 및 업무부적응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 고용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여성임원 및 관리자비율이 현재 정부목표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여성고위관리자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산 등 개선 과제발굴과 체계적 관리 노력 역시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73.74	1	0.737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우수	1	1.0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73.74점으로 0.737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권고 1건, 통보 2건으로 총 4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0%로 우수 기관에 해당하여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안전보건 예산투자를 전년 대비 확대하고(* 22년: 437억 → ' 23년: 530억) 매월 2회 안전관리자의 상시 위험성 평가, 구성원의 안전보건 전문자격취득 유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 안전보건제안제도 활성화(직원 참여율 전년 대비 8.6배 증가) 노력 등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보완 등 관리감독체계 외연 확대에 부합하는 전체적 조정기제 강화와 역할분담

명확화를 위한 정교한 성과관리 프로세스 구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자문회의를 통한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과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한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 파악에 기반하여 자체안전보건지표를 신규 발굴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 기관은 내부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및 확대(전년 대비 운영개수 2배, 참여인원 2.1배 증가)하여 기업건강증진지수 상승 등 내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기관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이 1회성 상담 및 캠페인에서 종료되지 않고 업무상 질병 등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적관리하고 상담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조기에 위험군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지역사회(나주, 광주 소방관서) 협조 공동재난훈련, IoT 기반 관정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농가 물 부족/과다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에 안전신기술을 적용하고 관리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600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21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64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41.62%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115.62%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47,662천원으로 전년 45,373천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69,117천원 대비 31.04% 적은 금액으로서, 총점 0.4점 중 0.21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자체수립 ESG 경영전략에 따른 친환경 업무환경과 탄소중립 투자유치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2022년 수립된 ESG 경영전략과제 및 성과지표가 2023년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외부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수준진단 및 컨설팅 받은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신규과제 발굴 및 지표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존 투입지표 중심(안전환경이슈보고서 발간, 안전환경 R&D 투자규모,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의 성과지표를 산출 및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임직원 참여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서약 및 환경보전캠페인 실시, 그린오피스 프로그램 설치 등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보전 마일리지 신규 도입, 에너지지킴이 활동점검 및 포상 등을 통해 내부구성원 환경인식도를 제고하였다. 다만, 기관특성을 고려한 환경경영 전략과제 및 지표 발굴을 위해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

로부터의 아이디어 수렴 및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고 환경경영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100.00	0.25	0.25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100.00	0.15	0.150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100.00	0.15	0.150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100.00	0.25	0.250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100.00	0.1	0.100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100.00	0.1	0.100
계			1.0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품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금액의 생산가능품목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품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금액의 생산가능품목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고유업무 기반 농식품 ‘기술인증’ 제도 활용 판로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매출액 확대, 중소기업 기술마케팅 지원활동 확대를 통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등 투자유치 연계(2023년 총 41억원)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R&D 코디네이터 도입을 통한 전문가-수요기업간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컨설팅 효과개선 등 지역 농업사회 연계 기술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식품 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농업·농촌 상생협력을 통한 “농어촌ESG 실천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기 구축한 지역사회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협업과제를 발전시켰으며 상생결제제도 이용 확대 등 협력업체 자금유동성 개선과 계약보증금 면제(5천만원 이하 계약건에 한함), 인지세 공동부담(50%) 등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지역발전 추진체계상 추진계획 수립 주체의 이원화(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계획수립 단계 및 실행부서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성과모니터링 방식 점검 및 체계화가 요구된다.
- 기관은 거래관행과 선금결제 방식의 오류예방 및 개선을 위한 교육강화와 더불어 체크리스트 활용 등 자율점검기제를 강화하고 협력·위탁업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개선 의견수렴 채널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노력과 실적이 존재한다. 연구개발비를 전수조사하여 상시 점검하는 등 사용관리 체계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며,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특별공급된 주택에 대한 관리방안도 제시하고 이행하였다. 기관은 ‘23년에도 인증받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유지하였고, 공정채용 우수기관을 연속 인증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등급도 유지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연구수행 현장만족도와 종합청렴도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진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 그러나 기관이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미흡하다. 회계담당자 교육·훈련강화, 회계 관계 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 통제 강화방안 마련 및 이행 등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예산편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수요조사를 확대(6회)하고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사업비 상반기 조기집행 및 예산집행원칙 내부방침 수립과 교육을 통한 예산물 아쓰기 방지 등 합리적 예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지방이전(2019년)으로 인한 금융기관 차입으로 부채비율(188.09%)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비율을 2023년 35.08%로 감축하였다. 또한, 자체연구 진행으로 위탁용역비 절감, 1인당 선택적복지포인트 전년 대비 6% 감액 등 복리후생제도 점검·조정과 기관장 및 상위1직급 인건비 동결과 같은 운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상경비 절감 목표의 122%를 달성(79백만원 예산 절감)하였다.
- 기관의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외부환경변화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신규 정책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통한 성장유지와 더불어 기관자체 리스크관리 및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재무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2030년까지 31억원의 부채를 모두 상환한다는 목표를 정립한 만큼 중장기 경영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한 중기 재무관리계획수립과 연간 재정운용계획 및 결과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 역시 있다.
- 기관은 복리후생 감축기조 하에서도 근골격계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상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도입 등 비금전적 근로자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구성원들의 내부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제도의 적정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금전적 복리후생과 비금전적 복리후생 지원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복리후생 항목의 신규 도입 및 폐지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체감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재무관리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콘텐츠구성과 전 구성원 대상 재무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재무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정책제언 수렴 채널을 다각화하고 예산절감 또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제안에 대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목표대실적	100.00	99.83	99.87	3	2.996
사업비 예산현액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99.83%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99.87점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2.996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평가는 6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이 경영전략과 잘 연계되어 수립되고,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핵심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셋째,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넷째,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기관 특성에 따라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승진제도 등의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R&D 직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주무부처 정책 지원 강화, 디지털 정부 구현 지원 조직 신설·강화)을 이행한 점이 확인된다. HRD 교육 참여율 확대를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개선하였고 교육별 만족도 측정 문항도 개선한 점이 확인된다. 또한 기존 파견 대상자의 업무 부담(행정 업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역량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R&D 연구현장 지원, 세르파 프로그램)를 위한 노력과 실적도 존재한다.
- 기관은 인사관리의 합리성, 구성원 역량 개발·전문성 제고, 성과 평가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구성원의 만족도(인사제도, 인사운영, 성과평가제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기관 최초로 인적자원 개발(Best HRD)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역량을 활용한 실적도 확인된다.
- 그러나 기관의 조직문화와 관련한 만족도는 조직 및 인사관리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저연차 직원과 기존 직원 간 조직 친화력을 증진하는 조직융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성원의 조직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직무 분류별로 필요한 역량을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단위직무별 통폐합을 이행하는 등 직무급제도에 대한 개선 실적이 존재한다. 또한 직무평가를 이행하는 등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한 노력도 인정된다.
- 기관은 전문직위별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등 직무중심 전문직위제를 확대·운영하여 직무급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노사협력에 기반하여 비보직자의 직무급을 증가시키는 등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수비중(직무급 비중)도 전년 대비 확대한 실적이 있다. 그 결과, 직무급제에 대한 직원 만족도 향상이 있었고, 직무급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상생협력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사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첫째, 노사 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살펴본다.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사관계의 증진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노사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하였고, 협의체의 활동도 정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총인건비 제도 내에서 구성원이 수용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위 직급 중심의 임금 인상을 합의로 도출하였고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문제도 해결하는 개선실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이 원인이 되어 노사소통, 구성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노사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그러나 기관이 노사 참여와 소통을 개선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사소통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제고된 것은 맞지만, 노사 만족도 조사에서 노사 참여와 소통에 대한 일부 문항(노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 경영진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직원의 의견을 반영, 고충이나 합의된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 기관이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노력)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만족도 조사설계를 점검(조사시기, 조사문항, 조사방식)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① 농식품 R&D사업 기획

(1) 농식품 R&D산업·기술 동향 조사·분석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농식품 R&D 동향조사 실적×0.7 + 농식품 R&D기술 분석 보고서×0.3	목표부여	최고: 8.43 최저 6.13	11.00	100.00	2.10	1.785
	목표대실적	1.00	3.00	100.00	0.90	0.765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농식품 산업·연구개발 관련 미래 사회·환경변화 및 최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식품 R&D 동향조사 실적 및 농식품 R&D기술 분석 보고서 발간 실적에 각각 0.7 및 0.3의 가중치를 적용한 실적치를 산정하였고 각각 목표부여 및 목표대실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농식품 R&D 동향조사 실적은 11건으로 목표치 최고수준인 8.43을 상회하였고 농식품 R&D 기술분석 보고서 발간 실적은 3건으로 목표치인 1.00을 상회함으로써 총점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적용한 득점은 2.5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미래사회 환경변화 및 최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 성과대표성이 있으며, 동향조사 실적 및 분석 보고서라는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략일관성을 갖고 있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향조사 및 기술 분석 보고서 발간 실적보다는 이들 자료에 대한 활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과거 3개년간 실적추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목표치를 22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농식품 R&D사업 기획·발굴 실적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R&D사업 기획 실적×0.6 +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0.4	목표부여	최고: 9.46 최저: 6.88	10.00	100.00	4.00	3.6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식품 산업·연구개발 관련 미래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기술 정책 및 농식품 연구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사업 기획·발굴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R&D사업 기획 보고서 실적 및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에 각각 0.6 및 0.4 의 가중치를 적용한 실적치를 산정하였고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하

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R&D사업 기획 보고서 실적 및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은 각각 10건씩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 최고수준인 9.46을 초과달성하여 총점 4점 중 4.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적용한 득점은 3.6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미래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 및 농식품 연구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사업 기획과 발굴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 성과대표성이 있으며, 기획 실적 및 정책 제안 실적이라는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일관성 측면에서 R&D사업 기획 실적(0.6)에 비해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0.4)의 가중치가 낮게 책정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R&D기획 정책 제안 실적의 경우 과거 3개년간 실적 중 최대치보다 23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것은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3)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미션과 ‘농식품 산업과 기술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에 맞춰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사업으로 ‘농식품 R&D사업 기획’을 선정하고 전략적 R&D 투자기반 조성, 미래 선도형 R&D 기획 강화라는 세부사업을 설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PEST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선정하여 전략연계, SMART 분석, ESG 연계 등 종합분석을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catch up 전략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별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산업 선도 R&D 추진을 위한 인적 역량 결집을 수행하여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신규사업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농식품 R&D 기획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으며, 정책개발실을 통해 ‘이슈발굴 → 중장기 전략 마련 →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업무를 단일 본부 체제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획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 기관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규사업 기획 연계성 및 정책연구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식품 분야 주요 대책 및 중장기 투자전략, 기술로드맵 등 정책 기획에 반영하여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10대 전략과제 및 지역상생 농산업 현장문제해결 R&D정책(‘23.1), 스마트농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기관은 농식품 R&D 중장기 목표 이행 및 투자 전략을 마련하여 핵심기술 분류 재배치, 중점 전략 연계성 분석을 통해 중장기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정책연계 신산업 분야 R&D기획을 위한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농식품 정부정책 이행 및 미래기술 육성을 위한 新산업 분야 신규 R&D 발굴·기획하였다.
- 기관은 정부 R&D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분야 선도기술과의 융합·혁신을 위해 정책 연계형 다부처 중대형 사업 공동기획(2건)을 추진하였으며, 대내·외

협업을 통한 효과적 일몰혁신 대응으로 최종 점검결과 ‘적정’ 통보를 하여 연구단절 방지 및 안정적 R&D 지원을 수행하였다.

- 기관은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연계-수요중심 R&D 과제기획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의 기획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과제기획체계를 고도화하였다.
- 그러나 과제기획 절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의 경우 기획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한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추후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창의도전형 융복합 사업의 경우 경쟁형 R&D 사업 특성에 따른 투자 매몰비용 방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으나,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없거나 낮은 성과를 보인 사업을 우선 폐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전략적 R&D 투자기반 조성 사업의 기술·정책 동향조사 및 기술분석 실적, R&D 기술이슈 분석 정책 활용률, 신규사업 기획 아이템 반영 건수 등 계량 성과지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인 기관의 혁신방향(Think-Tank 기능 고도화)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력운영 체계 고도화 및 사업기획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R&D 기획이슈 및 신사업 발굴체계 고도화를 달성하였다.
- 기관은 미래 선도형 R&D 기획 강화 사업의 정책·현장 연계 신규사업 기획, 농산업 현장수요 과제기획 반영률, 농식품 분야 신규 R&D 예산 확보액 등의 계량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예산심의 총력 대응(과기부, 기재부, 국회)으로 기관 소관 주요 R&D 예산 대비 신규예산 비중 3.8%p 증가시켜 전략적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R&D 투자 안정화를 달성하였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실행과제 현황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직 내부 및 외부 평가를 통해 iPET 혁신마일리지 포상, 공무 국외출장 및 연수, 올해의 iPET인 포상 등을 통해 우

수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환경 모니터링 및 타기관 벤치마킹,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도 분석 및 지표 롤링 등의 환류 활동을 하였다.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연구 강화를 위한 책임위원제도 신설 및 대국민 행사(성과전망) 개최, 성과 공유, 타부처 협업 확대 및 온·오프라인 활용 농식품 미래이슈 공유(푸드테크, 우주농업 등 4회) 등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였으며, 내부 공유회의를 통한 기획 연계 방안 마련, 기획부서 수요 기반의 동향조사 분석 실시, 유관부서(정책개발실, 사업관리본부)와 정책수요 및 현장수요 관련자료 수시 공유, 종자 경쟁력 제고, 푸드테크 등 정책연계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 등의 보완사항 개선 노력을 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식품 R&D사업 기획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0” 로 평가한다.

2 농식품 R&D사업 관리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관리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①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0.6 + ②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0.4	목표부여	최고: 17.56 최저: 12.77	19.37	100.00	3.00	2.550
	목표대실적	70.46	71.47	100.00	2.00	1.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수행기관 등의 맞춤형 관리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을 각각 0.6 및 0.4의 가중치로 환산하여 실적을 산정하였고 각각 목표부여 및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당해연도 관리과제 수 대비 컨설팅 실적건수로 산출되는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도는 2023년에 19.37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당해연도에 도출된 SCI 논문의 mrrIF 평균값으로 산출된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도는 71.47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총점 5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2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수행기관 등의 맞춤형 관리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 성과대표성이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전략일관성 측면에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노력(0.6)보다는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0.4)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은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나, 연구개발과제 관리 노력은 투입(input) 또는 활동(activity)에 해당하여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제고 노력의 경우 과거 3개년간 실적 중 최대치와 23년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최소화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0.5 +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 활동률×0.5	목표대실적	110.65	117.89	100.00	2.00	1.700
	목표대실적	78.19	83.63	100.00	2.00	1.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사용 기준 위반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목표인원 대비 수료인원)과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 활동률(관리 과제 수 대비 상시점검 수행 실적)에 각각 0.5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하였고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은 117.89%이며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 활동률은 83.63%로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총점 4점 중 4.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사용 기준 위반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어 성과대표성이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전략일관성 측면에서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목표 인원 대비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0.5)보다는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 활동률(0.5)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과중심성 측면에서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과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활동률은 투입(input) 또는 활동(activity)에 해당하여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연구비 사용 교육 추진 실적의 경우 과거 3개년간 실적 중 최대치보다 23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것과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 예방활동률을 3년간 실적 중 최대치와 23년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높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미션과 ‘농식품 산업과 기술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에 맞춰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사업으로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를 선정하고 농식품 R&D 우수성과 창출, R&D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PEST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선정하여 전략연계, SMART 분석, ESG 연계 등 종합분석을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catch up 전략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별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유사기술 분야별 연구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연구현장 컨설팅 추진을 통한 밀착형 과제관리 추진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연구 추진을 효율화하고, 연구성과목표제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농식품 R&D 관리체계 명확화 및 간소화를 통해 22년 대비 경상기술료 수입 389% 증가와 협약변경 요청일~승인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달성하였다.
- 기관은 정책-연구-현장의 연계를 통한 『현장으로 해결 R&D』를 추진하여 “사회문제해결형” R&D 우수성과 2건이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를 추진하여 미래 시장 선점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였다.

- 기관은 신속·유연한 R&D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를 통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이관 및 활용체계 도입을 완료('23.12.)하여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였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23년 전문기관 연구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연구자 만족도 전년비 5.2% 향상시켰다.
- 기관은 국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농식품 R&D 신뢰도」 4년 연속 '우수(90점 이상)' 을 달성하였으며, 공정 R&D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제재처분 건수 전년 대비 17% 감소 및 회수금 미납기관의 법적 조치로 1.9억 원 회수를 완료하였다.
- 그러나 홈페이지 Q&A 외에 고객의 소리(VOC)도 분석하여 수혜자나 외부 고객의 요구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오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신규 참여 연구기관 등 집행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구기관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집행오류 예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평가위원 대상 윤리교육 활동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농식품 R&D 우수성과 창출 사업의 논문 질적 우수성 향상,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경상기술료 징수액 등의 계량성 과지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인 농식품 R&D 관리체계 효율화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효율적 R&D추진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및 전문성 확보, R&D관리제도 명확화 및 간소화를 통한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였다.
- 기관은 R&D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업의 연구과제 컨설팅(%),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등급), 연구개발비 사전점검 실적(%) 등의 계량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인 연구자 중심의 R&D 활성화 노력도에 부합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정·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적극행정 및 규제 개선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추진을 달성하였다.
- 기관은 위와 같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질 중심의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2023년 사회문제 해결 우수성과 2건을 수상(과기부, '23.10)하였으며, 수소트랙터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적극행정 및 규제해소를 통한 실증 규제특례를 획득하였다. 다만,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미흡’에서 ‘보통’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나, 만족하기에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실행과제 현황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직 내부 및 외부 평가를 통해 iPET 혁신마일리지 포상, 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사항 중점 관리, 모니터링/분석·개선 등의 환류 활동을 하였다.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유사분야 연구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복연구 예방 및 연구성과 공동 활용기반 구축, 쌀가루 및 밭농업 현안 해결 현장연계(2건) 및 농촌진흥청, 가스안전공사 등 기관협력(3건) 등 지원체계 다각화를 통한 현장연계 강화함으로써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였으며, 관리제도 명확화를 통한 경상 기술료 징수 확대, 국민공감형 농식품 R&D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등의 보완사항 개선 노력을 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식품 R&D사업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0”로 평가한다.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

(1)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양질의 특허등록 실적 /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x 100	목표부여 (편차)	최고: 94.82 최저: 88.02	95.49	100.00	7.00	6.3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창출 성과 중 등록된 특허의 질적 우수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대비 양질의 특허등록 건수로 실적을 산정하였고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양질의 특허등록 실적(특허분석평가시스템 B등급 또는 특허평가시스템 B2 등급 이상)은 508건으로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 532건 대비 95.39%로 나타나 목표치 최고수준인 94.82%를 상회함으로써 총점 7점 중 7.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6.3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과의 창출성과 중 등록된 특허의 질적 우수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이 높아 성과 대표성이 인정되며, 당해연도 특허등록 건수와 이중 양질의 특허등록 건수를 합산해 우수특허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지표로 인정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표의 지속가능성과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 일관

성 측면에서 양질의 우수 특허 창출 성과의 기준을 SMART 또는 K-PEG 등급 이외 기술이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중치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목표부여 편차 방식, 평가산식과 실적 추세를 고려한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다만, 우수특허 창출 성과의 기준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낮게 설정한 것은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수특허 창출 성과의 판단기준을 SMART 또는 K-PEG 등급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하여 도전성 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text{기술인증} \times 0.4) + (\text{우수기술 발굴} \times 0.3) + (\text{기술거래 지원} \times 0.3)$	목표부여 (편차)	최고: 101.93 최저: 47.54	101.90	99.96	7.00	6.647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식품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술인증 건수, 우수·유망기술 건수, 기술거래 지원 건수에 각각 0.4, 0.3,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기술인증 건수는 122건, 우수·유망기술 건수는 97건, 기술거래 지원

건수는 80건으로서 101.90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최고목표는 101.93, 최저목표는 47.54로 산출됨에 따라 99.96의 평점을 받아 6.997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6.647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술상용화 촉진으로 농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수·유망 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을 통해 농식품 우수기술 확산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 창의적 농산업 실현을 지원하는 기관 설립의 목적과 연계한 지표의 성과 대표성이 인정되며, 우수실적 확산 측면에서의 사업의 중요도가 높아 전략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인증 수, 우수·유망기술 건수, 기술거래 지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중치를 배분하고 있어 지속가능성과 자료의 객관성 측면에서 지표의 적정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지표는 농식품 우수기술 발굴 및 확산과 관련한 3개의 대표성과를 중심으로 복합지표로 구성되어 평가산식 및 사업여건을 고려한 도전성이 인정되며, 실적추세를 반영한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거래 지원 건수를 SMK 제작 건수로 측정하는 방식은 도전성 확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5)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한다.

(3) 농식품 R&D성과 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전략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농식품 R&D 성과 창출·확산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성장을 성과목표로 한 ‘농식품 기업역량 지원 강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공유·전파를 성과목표로 한 ‘농식품 R&D 성

과확산 추진' 을 세부사업으로 도출하였다.

- 기관은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풀(Pool)을 구축하여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있는 정량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략연계, SMART, ESG연계 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내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사지표를 통합하여 6개의 계량지표와 2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른 목표설정과 도전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
- 기관은 세부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세부사업별 경영목표 및 ESG경영을 연계해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및 조직, 인력 배분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내·외부 실적점검회의 및 자체점검회의를 통해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적절히 수립하였다. 다만, 사업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식품 R&D 성과 창출·확산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기업역량 지원 강화' 사업과 '농식품 R&D 성과확산 추진'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여 집행하였다.
- 기관은 농식품 R&D 지원에서 기술개발 성공을 위한 지원, 기술 상용화 역량진단 및 애로 해소, 기술력 인증,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지원을 통해 밀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 기업역량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농식품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기술상용화 지원 정보와 R&D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 기반을 확보하고 기관이 보유한 농식품 R&D 정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품질관리 강화, 기술 인증 접수 및 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여 데이터 품질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다만,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분산된 데이터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농식품 R&D 기술상용화 지원을 위한 8개의 대외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네

트위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식품 기업 기술상용화 애로 진단 및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디네이터 전문가 규모 확대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수혜기업 수와 만족도를 향상했다. 또한, IR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투자유치를 성공한 점은 R&D 성과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농식품 R&D 성과확산 추진사업을 통해 R&D 성과 발굴 및 마케팅활동의 다각화로 기술이전 건수를 2배 향상했으며, 성공적인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최를 통해 농식품 R&D 정책 및 성과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해 홍보 콘텐츠의 다각화 및 우수성과 선정 중 국민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소통을 확대하였다. 다만, 신규사업과제 발굴 시 농업 현장, 농식품 기업, 학계의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R&D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농식품 기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상용화 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술 상용화 정보 개방·활용 확대’, ‘공공부문 판로지원 확대’ 등의 계량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인 상용화 성과 창출 지원 노력을 위해 상용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기술 인증을 확대하여 실질적 상용화 성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기관은 농식품 R&D 성과확산 추진 지원 사업의 우수기술 시장진출 촉진, 농식품 R&D 우수특허 창출 성과, 국민참여형 성과 발굴·확산 등의 계량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인 R&D 성과의 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을 위해 기술 상용화 우수성과 콘테스트를 신규 추진하고 기술이전 수요조사를 통한 기술 발굴 및 매칭을 확대하였다.
- 기관은 이와 같은 성과 달성을 통해 데이터 품질평가 최우수상, 공공조달 경진대회 조달청장 표창, 농림시책홍보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획득하였다. 다만, 국민참여형 성과 발굴·확산의 목표 설정이 과소평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비계량 성

과지표의 목표설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성과에 대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내·외부의 평가를 통해 공유 및 환류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2년 자체평가를 ‘23년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23년의 사업 평가 결과를 ‘24년 환류 계획에 반영하였다.
- 기관은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개선을 위한 환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용화 현장 애로 지원을 위한 진단 클리닉과 코디네이터 및 IR 지원을 연계해 애로사항 해소율 89.7%을 달성하였다. R&D 코디네이터 성과 창출을 위해 수석 코디네이터 및 성과관리지표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만족도를 향상했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부문 매출액 및 현장 적용 성과 창출을 위해 판매촉진 행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인증기업 공공 조달 매출액 증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그러나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나 우수성과의 경우 환류 활동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식품 R&D 성과 창출·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0” 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5대 혁신분야, 총 15개 세부과제별 이행점검으로 14개 과제목표를 달성(95.3%)하였으며 조직·인력분야 정원 3명 감축 및 소규모 단위조직 대부서화(팀폐지, 팀장의 실무자 전환)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실행예산점검위원회 등을 활용 혁신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경상비 3%, 업무추진비 10% 감축, 복리후생 축소(선택적 복지비 25% 축소)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추가과제로 보수체계 효율화를 위한 직무분류체계 통폐합, 정기 직무평가 시행, 평가방법 개선 등 직무급 고도화를 추진하여 공인노무사회로부터 2023년 공공기관 노사 혁신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혁신마일리지 제도 개선(투입성 지표 폐지 및 유사중복지표 통합조정, 성과실적 정성평가 도입, 혁신성과 창출 직원 해외연수 시행 등)을 통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구성원 혁신동기부여를 강화하였다.
- 기관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식품 R&D 미션 기반 혁신성과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 확산으로 농진청 대한민국 농식품 ESG 대상('23.11), 국회 농해수위 표창 K-ESG 경영혁신대상 수상('23.5) 등 전년 대비 4건 상승한 총 14건 대외 수상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3점 중 2점을 부여한다.

②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해당사항 없음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해당사항 없음

4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28%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7.625	2	1.583	16	9.208
	(1) 리더십	4	C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C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	-			
	(3) 국민소통	1	B0	2	1.583		
	2. 사회적 책임	6	3.625	5	4.484	11	8.109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B+	1	1.000		
	(2) 안전 및 재난관리	2	B0	2	1.484		
	(3) 친환경·탄소중립	1	B0	1	1.0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C	1	1.000		
	(5) 윤리경영	1	C	-			
	3. 재무성과 관리	8	5.000	3	2.890	11	7.890
	(1) 재무예산관리	8	B0	-			
	(2) 재무예산성과	-		3	2.890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7.750	-		12	7.750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B0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B+					
(2) 노사관계	3	B0	-				
소계		40	24.000	10	8.957	50	32.957
주요 사업 (50)	1. 농업재해보험 관리	6.7	3.350	10	8.750	16.7	12.100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	B	5	4.500		
	(2) 농업정책보험사업의 지속성 관리 노력	-	C	2.5	2.125		
	(3)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	C	2.5	2.125		
	(4)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7	C	-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6.7	4.188	10	8.816	16.7	13.003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B	4	3.600		
	(2)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	A	3	2.666		
	(3)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	C	3	2.550		
	(4)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7	B0	-			
	3. 농업정책자금 관리	6.6	4.125	10	8.500	16.6	12.625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	C	6	5.100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	C	2	1.700		
	(3)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	-	C	2	1.700		
(4)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6	B0	-				
소계		20	11.663	30	26.066	50	37.728
합계						100	70.685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0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71.185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기관장의 식량·식품, 농산물품질관리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23년 7월 부임 이후 주요사업 고도화 및 조직안정의 리더십 발휘가 인정된다. 4대 핵심가치(전문성, 혁신, 투명·공정, 고객만족)를 토대로 4대 경영목표별 기관장 경영 방침과 전략방향을 수립·추진하였고, 경영혁신 계약과제인 직무급 도입, 입찰·채용 비리 근절 등의 성과 달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사업전략에 대한 전체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특히 대표적 혁신성으로 직무급제 도입, 손해평가사 전문역량 강화, 정책자금 비대면검사 활성화, 내평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단계별 계획 수립과 과제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과 달성을 위한 리더십 실행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4개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4대 新경영목표(재해보험 65조원 가입, 펀드 투자금 2조원, 40조원 정책자금 종합관리, ESG경영)와 연계한 기관장 4대 경영 계약과제를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률 52.1%, 특수목적펀드 1,129억원 조성, 비대면검사소 20개소 증대, 직무급제 도입 등 일부 경영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경영계약과제 성과지표가 확대(6개→11개)됐지만 4대 경영계약과제별 성과지표(계량, 비계량)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표 측정방식의 객관성과 도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이사회 규정에 소위원회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사 신규선임 시 전문 분야 다양화(5개→6개), ESG소위원회 강화(3→4인), 보고안전 신설 및 심의안전 확대(7→17건), 경영제언 확대(8건→15건) 및 경영 반영(10건 중 9건 채택) 등 이사회 활성화에 노력했다. 또한 현안과제인 직무급제 도입, 정책자금 온라인 교육강화로 수요자 귀책사유액 45억원 감소, 농식품 투자정보플랫폼 고도화 통한 13개 경영체 투자유치 151억원 달성 등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비상임이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사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사회 근로자 대면참관제도를 넘어 노

사협력적 경영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직원 가치공유도(가치체계 75.87점, 경영전략 76.34점) 향상 등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매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수립하여 경영전략체계를 토대로 전략과제, 세부실행과제를 정립하였으나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현안과제, 혁신과제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국정과제, 정부정책,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션과 비전을 재해석하고, 가치체계를 재정립했다. 기관장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4대 新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방향(농어업정책보험 사업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관리, 농림수산 정책자금 관리, 경영관리)별 과제 풀을 설정하고 정책연계성, 경영목표 연계성, ESG연계성, SMART 분석을 통해 12대 전략과제를 재수정하는 등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목표 달성도 향상을 위해 전략과제별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전략과제별 장애요인과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을 강화하는 등 전략관리·실행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과제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성과 분석을 토대로 중기 인력·예산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무부처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보완 및 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분석, 경영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한 혁신과제 도출, 주·월간 보고를 통한 이행점검체계 운영 등 통상적인 혁신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사업 2개 혁신방향 추진, 계량 24개 및 비계량 20개 지표 신설 등 내평체계 개선, 51개 직무(4개 부문)로 구성된 직무급제 도입의 3가지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보장범위 확대(67→70품목), 보장성 강화(일정 품목 보상률, 가입연령 확대), 맞춤형 상품 확대 등 재해보험 상품·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주무부처, 국회,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토대로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기관의 중추적 역할이 요구된다. 가령 농업재해보험과 어업재해보험 통합 운영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물론 재보험사업에 민간사업자 확대 등 재보험 거버넌스 개선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 보험사업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재무구조에 대한 중장기 시나리오분석 등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https://assist.apfs.kr>)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투자 문제점 분석을 통한 홍보(공모전, SNS) 강화, 기능 개선(지원사업 정보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클라우드 펀딩, 구매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용역 방식을 통한 농식품 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투자기업 지원 개선에도 일부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23년도부터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의 일부 용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비대면검사 확대 등 사업방식 개선에 노력했으나, 향후 사업 범위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하여 인력 확충 외에 사업수행기반 강화에 지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과머스펀드 조성 실적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에서 특히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펀드도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소극적 대응으로 한계가 있으며, 적극행정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직원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영혁신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별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6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별점 3.5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와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특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97.60 전년대비 향상도 : 100.00	98.32	1	0.983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87.60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3.80점)으로 양호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97.60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8.80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100.00점을 7:3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8.32점으로 총 점 1점 중 0.983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산업계·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식품 투자생태계 확대,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농업재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고객 소통을 통한 경영 혁신(푸드테크, 스마트양식 등 신성장 분야 혁신펀드 신설),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정보플랫폼 운영,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등 실질적인 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1,110개, 투자자 139명 회원가입, 월 사용자 5,613명 368건의 투자제안 매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52.1% 달성, 홈페이지 원문공개율 18.8%p 증가, 정보공개목록 재분류 및 총 109건 공개여부 정정 등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업정책정보의 적극적 홍보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진단결과 A등급 달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이해관계자인 가치수혜고객 유형 분류 및 소통전략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튜브·인스타 등 SNS 소통채널 구독자를 지속 확대하고, 재해보험 운영에 있어 농림어업인 소통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시공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규정 준수 및 공시오류 방지체계 보완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실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100.00	0.7	0.7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100.00	0.3	0.3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중 0.700점을 획득하였다. 기관의 2023년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중장기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롤링 및 실행과제별 성과목표, 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농식품분야 미래인재 양성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협업기관 확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인사복무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므로 취약 부문(승진및부서배치제도, 성과평가방법, 보

상/보수체계, 기관인사제도) 개선과제 도출 및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기관은 NCS 직무기술서 및 전형별 절차를 직무특성과 역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 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정·현원차 해소 노력을 기울였으며 채용전형위원회 인력풀(pool)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구성(국가인재DB, 농식품부 pool, 자체발굴 등)하였다. 다만, 수요자 관점(채용후보자, 수험생 관점)에서 채용 운용프로세스 개선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현존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원을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여직원 간담회,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내부 의견수렴과 스마트워크 제도 활용을 통해 복리후생 내부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형평적 채용(고졸, 여성, 지역인재, 장애인, 보훈) 확대, 여성임원 2명 선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균등기회 부여 노력과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여성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기관의 특화된 여성인재 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이 실질적 양성평등 승진기회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속적 성과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88.37	1	0.88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보통	1	0.6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88.37점으로 0.884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개선 1건, 권고 3건, 통보 2건으로 총 11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29%로 보통 기관에 해당하여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고 점검관리를 위한 실무자를 11명 지정하여 월별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 내 안전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자체 전문가자격취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자문위 및 안전보건노사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개선 제언을 수렴할 필요

요가 있다. 향후 안전예산 확보에 따른 실효성있는 집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 교육이나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기관 내 산업재해(업무상질병, 근골격계질환 등) 예방 및 후속 대응관리 매뉴얼 보급 등 적극적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농식품부 주관 사이버 위기관리 숙달 훈련 만점, 농식품부 주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실태점검결과 S등급을 달성한 점이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에서 최근 3개년간 연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한 부분(개선, 권고,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여 보완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600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4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5.659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70.45%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195.69%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32,834천원으로 전년 23,289천원 대비 40.99%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22,727천원 대비 44.47% 증가함으로서, 총점 0.4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임직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서약 및 캠페인, 에너지지킴이 임명 및 활동, 혁신마일리지 연계 환경보전 활동 촉진 등을 통한 환경경영 내재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녹색제품 구매목표 초과,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2022년 8월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2023년 체계적 점검 및 보완을 통한 환경경영전략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며, 환경 관련 예산운용 내역도 주로 친환경차량 임차 및 녹색제품 구매 등 투입중심 성과지표 관리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친환경 경영전략 수립 및 자체환경경영지표 발굴이 요구된다.
- 기관은 친환경 농법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친환경 전용펀드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직간접적 탄소저감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기관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환경경영 전략과제 발굴과 친환경 연계 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및 정책제언 수렴채널을 다각화하고 발굴과제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100.00%	0.35	0.350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100.00%	0.25	0.250
여성 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	100.00%	0.15	0.150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총액의 1%	100.00%	0.25	0.250
계			1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 중소기업생산물품, 여성기업생산물품, 장애인생산물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 중소기업생산물품, 여성기업생산물품, 장애인생산물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역농산물 구매 및 소외계층 대상 다각적 사회공헌, 법정비율 초과 우선구매(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지자체 출자 펀드 신설 및 지역농식품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노력과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식별 및 요구분석을 위한 정례화,

제도화된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며 소통 및 참여채널 확대를 통한 체계적 상생협력 과제발굴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펀드개발 및 정책개선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다각적으로 식별하고 요구분석을 하기 위한 정례화, 제도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 정보공유 및 리스크 관리기법을 습득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추진전략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 제도 개선 및 약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위탁업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체감도 및 인식도 조사 등 의견수렴 채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과제발굴 및 성과관리로 연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렴시민감사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실적이 있으며, 기관의 업무범위에 기반하여 이해충돌 고위험군 직무를 발굴하여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규정 정비, 업무자와 보직자를 대상으로 법 이해 심화교육 실시)를 이행하였다. 또한, 고충처리 상담업무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충신고 및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실적이 존재한다. 기관은 기록물 및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운영을 강화하여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고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 그러나 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한 구성원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인권교육을 점차 의무화하는 추세에 있다. 인권존중 문화 조성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특히 폭력예방, 갑질예방, 개인정보보호)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또한,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기관은 2023년 경영실

적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적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회계 업무자·보직자의 심화 교육’ 실적만을 회계 관련 경영개선실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현재 저조한 회계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 관계 직원의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채용,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 회계 통제 강화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경영실적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사회 이전에 예산전략심의회를 통해 계획 대비 예산집행 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원장 주재 총괄회의체인 미래 경영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경영전략방향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심의단계를 세분화하였다. 다만, 예산프로세스(편성-집행-환류) 전반에 걸쳐 예산실무협의회의, 예산전략심의회 등 각 회의체간 유기적 연계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체계적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회의체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실적기반 예산분석 및 절감항목 식별을 통해 선제적으로 소모성 경상비 72백만원을 절감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률 95.9%(전년 대비 3.2% 상승)를 달성하였다. 다만, 자체 경상운영비 절감 노력에서 나아가 기관이 개발 및 조성하는 펀드상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에 기반한 자체 리스크 관리 및 위험예측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보험과 차별화되는 사회적 책임수행과 더불어 정책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보험사업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점검 강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예산 프로젝트별 실무담당자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고 수강인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는 양호하다. 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내 예산집행주기 및 중장기적 전략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현황을 공유하고 실무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복리후생 관련 정부지침을 100% 준수하고 전년 대비 임직원 1인당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2.49% 감소로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전년 대비 복리후생 내부 만족도 점수(전체평균 및 4개 구성항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 지원 수준’ 항목 만족도 순위(2위→4위)는 하락함과 동시에 가장 저조(4개 항목 중 4순위)하게 나타났으므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 과정에서 직원 수요 및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질적 체감도가 높은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항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5.41	96.33	3	2.89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목표대실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95.41%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96.33점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2.890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평가는 6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이 경영전략과 잘 연계되어 수립되고,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핵심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셋째,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넷째,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기관 특성에 따라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승진제도 등의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전략·공공기관 혁신계획과 연계한 조직개편(대부서화 및 정원 감축)을 시행하고 이와 연계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핵심업무 R&R을 명확히 하여 사업부서 및 경영기획 인력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였고, 특별 승진 및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경력개발경로에 기반한 순환전보를 시행하였다.
- 기관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며 인사운영제도와 관련한 구성원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관련 실적이 있다. 직무 전문성 향상과 ESG 각 분야별 교육을 강화하여 진행하였고, 성과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과 정부권고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 및 운영한 점도 확인된다. 그 결과 기관 전반에 걸쳐 구성원의 핵심업무 비율이 증가하고, 인력 효율성 제고가 나타났고, 승진 공정성 관련 지표가 향상되었고, 구성원의 교육만족도·성과평가만족도·직무이동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임금피크제 결과 신규채용도 완료한 실적이 있다.
- 그러나 기관은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폭넓게 접근하고 여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히, 개방형계약직제도, 전문직위제도,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승진제도와

관련한 개선 노력과 성과 제시가 미흡하다. 이들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직무급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직무분류 및 평가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고 관련 실적이 존재한다. 노사 공동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구성원의 수용을 바탕으로 직무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직무를 확대한 실적이 있다. 직무평가 결과와 직무등급의 연계성을 높여서 직무급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직무급 비중을 확대하였고, 노사 합의에 기반한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
- 다만 기관이 도입한 수당형 직무급제의 경우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므로 향후 공공기관 직무급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구성원 합의에 기반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구성원의 복리후생 만족도, 승진제도 운영 만족도, 직무이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행하였고 이와 관

련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승진 대상과 승진 반영요소를 확대하며, 경력경로 기반의 전보를 시행하여 내부구성원의 체계적 경력개발 지원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복리후생 내부만족도, 승진 공정성 만족도, 직무 이동 만족도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노사 공동노력으로 기관의 현안(인건비, 직무급, 복리후생)을 해결하였고 관련 실적이 있다. 그 결과 노사신뢰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고, 노사 소통 빈도도 증가하였으며 구성원의 보수체계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 그러나 기관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와 환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이 '23년도에 진행한 내부의사소통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이 의사 결정 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는 문항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기관 또한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규 직원이 계속 유입되면서 조직 내 가치관 혼재와 기존 직원들과의 조직 융화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직문화 및 구성원 간 내부소통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저연차 직원들과 사측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릴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1 농업재해보험 관리

(1)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text{보험가입금액지수}) \times 0.7 + (\text{가입농가지수}) \times 0.3$	목표부여 (편차)	100.00	100.00	100.00	5.00	4.5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보험가입금액지수와 가입농가지수에 각각 0.7 및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적치를 측정하였으며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 지수는 128.00으로 측정되어 농업정책보험 확대 최고목표치인 122.84를 초과 달성함으로서 총점 5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5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림수산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인 ‘정책보험을 통한 폭넓은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부합하여 성과의 대표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전략 일관성, 결과(outcome) 중심의 결과 중심성,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매월 적재되는 농업정책보험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20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보험 가입지수와 가입 농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에서 전체 농가를 포함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목표 부여 편차 방식, 평가 신식과 실적 추세를 고려한 목표의 도전성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지수와 가입 농가 지수의 가중치가 7:3의 비율로 산식이 구성된 것은 재해보험 가입금액의 자연 증가분이 계량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확대라는 목표를 고려했을 때 도전성에 한계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2) 농업정책보험사업의 지속성 관리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frac{\sum \text{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 + (\sum \text{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 + \sum \text{일반 상품·제도개선 건수}) \times 100}{2} \geq 5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00	2.50	2.125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①보장성 강화, ②농가부담 완화, ③재정 건전성 제고 관련 개선 건수) 합계치를 일반 상품제도개선 건수로 나누어 실적을 측정하였으며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2023년 기관의 전체 상품제도개선 건수는 61건이며 이 중 질적 상품제도개선 건수는 37건으로 60.66%를 차지하여 목표치인 50%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총점 2.5점 중 2.5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125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관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성과의 대표성이 인정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정부예산 증가 상황에서 농업정책보험사업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인정되고, 사업의 가중치 배분 적정성을 충족하며, 전략 일관성과 자료의 객관성을 충족한다. 하지만, 매년 개선 건수 중 50%를 대상으로 하여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농업정책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질적 개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outcome)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에 비추어 도전성이 인정된다. 다만, 신규지표라 할지라도 과거 3개년 실적 추세 대비 목표치의 도전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질적 상품·제도 개선 건수는 ‘보장성 강화’, ‘농가 부담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요인으로 산출되는데 이중, 재정건전성 제고 항목은 다른 두 항목과 상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적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측면에서 평가산식 대비 도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text{교육별 운영 과정 수}) \times 0.7 + (\text{실무교육 만족도}) \times 0.3$	목표부여 (편차)	100.00	100.00	100.00	2.50	2.125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업정책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 실적을 교육별 운영 과정 수와 실무교육 만족도에 각각 0.7 및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도출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2023년 기관의 손해평가사 교육 운영 과정수는 26건이고 만족도는 4.3으로 조사되어 2023년의 실적치는 19.49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목표인 17.19점을 초과함으로써 총 점 2.5점 중 2.5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125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손해평가사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 운영 다변화 및 교육 품질 제고 노력을 평하는 지표로써,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해 성과의 대표성이 인정되며,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손해평가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는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전략 일관성을 충족하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자료의 객관성이 인정된다. 다만, 실무교육 만족도는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지표이기 때문에 교육 품질 제고 노력을 통한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 구성이 요구되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

해 교육대상 인원의 참여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의 개선을 통해 적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을 고려한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한 평가방식 대비 도전성을 갖고 있으며, 실적 추세 대비 목표치 자체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산식 구성에 있어 단순히 교육 별 운영 과정 수와 실무교육의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점과 교육 별 운영 과정 수와 실무교육 만족도의 가중치 배분이 7:3으로 구성된 점은 평가산식 대비 목표의 도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4)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농업업정책보험 제도개선 및 사업관리 혁신으로 농어가 경영안정망 확충이라는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농어가 경영안정 기능 확대, 재해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재보험 사업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성과 목표로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 기관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풀(pool)을 구축하고, SMART, ESG 연계, 전략 연계 방식으로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농어가 경영안정 기능 확대를 제외한 재해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가재보험 사업 운영의 안정성 강화의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풀(pool)과 성과지표의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고서상에 성과지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풀 구축 및 성과지표 선정 시 내·외부와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표선정으로 적정성 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성과 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업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개편 및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연기금투자폴 완전 위탁 제도 활용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성과 목표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어가 경영안정 기능 확대를 위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여 농가당 최대 보상 한도액을 6.4% 증가하였고 농림업생 산액 대비 보험 품목생산액의 91.3%로 2.3%p 증가하였다. 또한 농작물·가축보험 역대 최고 가입실적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보험은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 및 연도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조한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전략 품목 중 감귤의 경우 ‘20년 기준 18.6%, ‘22년 기준 3.4%로 가입률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 산출기준이 실질적인 수확량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실효성 분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 94.4%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52.1%인 점을 고려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들의 의견을 청취 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시가가 아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점에 대한 걱정성 및 보험의 실효성 여부를 고려한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병충해 피해의 증가, 집중호우, 가뭄, 고온, 저온, 일조량 부족 등의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기관은 이에 대한 보장 확대, 특약 조건, 인정조건, 보상기준에 대한 방안을 반영한 지속적인 상품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농어업인의 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최신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의 보장 내용, 대상 품목 정보를 최신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재해보험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약 인수 점검 시 AI·GI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상을 선별함에 따라 ‘23년 현장 조사의 비율의

전년 대비 68% 감소, 점검 소요 기간이 90일에서 3일로 대폭 감소한 점, 모바일 손해평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활용률이 66.5%로 증가한 점은 사업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의 측면에서 기관의 노력이 적적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손해사정법인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손해평가사의 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한 손해평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손해평가사의 교육 품목이 확대되고 교육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육 인원 참여율과 수시 현장 교육의 참여 인원이 감소한 점에 대해 기관은 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콘텐츠개발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손해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민간보험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재보험료 수입액 확대 노력을 통한 기금 적립액 88.6% 확대, 재보험금 조기 지급률 및 실지급률 100% 달성 추진 성과는 국가 재보험 사업 운영의 안정성 강화 측면에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에서 성과지표는 6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였다. 특히, ‘손해평가사 교육성과’, ‘손해평가사 활용률’, ‘기금수익률’의 경우 목표치 대비 110%를 초과하는 달성률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손해평가사 교육 성과의 경우 교육 횟수와 만족도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평가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대상별 전략홍보 추진, 보험 운영 프로세스 제도 개선, 국가 재보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민간재보험사 참여를 확대하여 성과가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위와 같은 주요 사업별 성과를 달성하여 역대 최대 보상 한도액 및 가입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상위 보조사업 기관으로 도약하였고 기금적립액을 88.6% 확대한 핵심성과는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농어업정책보험 가입금액 65조 달성이라는 경영 목표의 93.6% 달성하였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22년도 자체평가와 연계한 '23년도 자체 환류 활동을 통해 농작물 대상 품목 확대(9개), 농작물 고 보장 상품 30% 확대, 농기계 보상한도 400% 상향하였고, 검증 소요 시간의 획기적인 개선(90일에서 3일)을 통해 검증조사 82.6% 확대하였다. 또한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통한 실적 개선과 계량지표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어 환류 활동이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 94.4%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52.1%인 점과 연도별 가입률의 증감이 정체된 점을 고려하여 개선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추가적인 계량지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x 10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00	4.00	3.6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지침·운용계획 상 목표비율 대비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을 목표비율로 나누어 실적치를 계산하며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모태펀드 추가조성액은 47,000백만원이며 모태펀드 출자약정액은 131,670백만원으로 280.15%의 출자승수비율을 달성하였고 2023년 목표 출자승수비율 279.72%를 초과달성함으로써 총점 4점 중 4.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6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도별 모태펀드 운용지침·운용계획상 목표비율 대비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가중치의 배분이 적정성을 충족하여 전략 일관성을 가지며, 결과 중심성과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매년 출자약정액

에 의한 목표치의 편차가 매우 크고 실적치와 목표치가 같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지표는 사업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실적추세 대비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다만, 목표대 실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추세를 감안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운용계획상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대비 실적이 줄었음에도 득점에는 차이가 없어 산식 구성을 고려한 목표의 도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농식품펀드 투자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자펀드누적투자금액×0.5)+(피투자경영체 매출액×0.25)+(피투자경영체 고용증가율×0.25)	목표대실적	100.00	93.55	93.55	3.00	2.666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자펀드의 누적 투자금액, 피투자경영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을 지표화하여 투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자펀드 누적 투자금액, 피투자경영체 매출액 및 피투자경영체 고용증가율에 각각 0.5, 0.25, 0.2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적치를 측정하고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자펀드 누적 투자금액 실적(13,422백만원) 및 피투자경영체 매출액 증가율 실적(32.6%)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피투자경영체 고용 증가율 실적

(8.4%)이 목표치(12.4%)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93.55점으로 총점 3점 중 2.806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666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결성된 농식품 펀드의 투자실적을 측정하여 농식품 분야 투자 활성화를 확인하고, 농식품 펀드가 투자한 농식품 경영체의 기업성과를 측정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설립목적과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 확대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 방향과 연계된 성과 대표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에 있어 전략 일관성, 자펀드 누적 투자금액, 피투자 경영체의 매출액, 고용 증가율을 활용한 결과(outcome)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결과 중심성이 인정된다. 또한, 투자실적 보고,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로부터의 자료의 객관성을 충족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식품 펀드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전성이 인정되며, 과거의 실적추세 대비 목표치 자체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펀드누적목표금액의 목표치를 최근 5개년 신규 투자실적의 평균 대비 5%, 피투자 경영체 매출액 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은 최근 5년 실적의 평균 대비 5%로 일률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도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5)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 로 평가한다.

(3)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Min(IR참여 경영체 목표달성비율, 100%)+Min(IR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목표달성 비율, 100%)]÷2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00	3.00	2.550

나. 평가내용

- 투자지원사업(사업설명회) 참여 농식품경영체 확대 목표와 투자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영체의 투자유치 목표 건수를 지표화하여 투자지원사업의 확대 노력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수 목표치대비 실적치 비율과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의 투자유치건수 목표치대비 실적치 비율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금액으로 실적치를 산정하고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 수는 194개로 목표치인 196을 초과 달성하였고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의 투자유치 건수도 35건으로 목표치인 16건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총점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5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유망 농식품 경영체 발굴 및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림수산물산업 투자 확대 기반 조성 및 농림수산물경영체 성장지원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한 기관의 성과 대표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비중을 고려한 가중치 배분이 적정해 전략 일관성을 충족하고 중장기 관점을 고려한 지표의 지속가능성과 결과중심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 목표 달성 비율 및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목표 달성 비율 산출 시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의 목표 수와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 투자유치 목표 건수를 설정하여 실적을 산출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 보이며, 성과의 왜곡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 수와 투자유치 건수만을 실적으로 하여 지표를 산출해 자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표는 사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다만, 평가산식과 과거 실적 비교를 통한 실적추세 대비 목표의 설정에 대한 도전성의 제고가 필요한 점, 개별 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의 5% 상향 또는 최근 5개년 평균의 10%로 다른 기준에 의해 설정한 점, 5%와 10% 상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설명회 참여 경영체의 목표치와 투자유치 성공 건수에 대한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것에 대한 도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4)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농림수산물 산업 투자 확대 기반 조성 및 농림수산물 경영체 성장지원이라는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농식품 경영체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역동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성과 목표로 세부 사업을 도출하였다.
- 기관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풀(pool)을 구축하고, SMART, ESG 연계, 전략 연계 방식으로 적합성을 분석한 후, 3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다만, 내부의 설문조사만으로 적합성을 검토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기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성과지표가 선정될 수 있어 외부평가를 시행해 객관성 있는 정량평가 후 내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표선정이 요구된다.
- 기관은 지표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투자지원사업 고도화 노력’ 과 ‘투자생태계 활성화 노력’ 의 경우 계량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다양한 투자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위한 성과지표풀을 추가로 발굴하여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성과 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농식품 모태펀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별 인프라 및 농식품 투자시장 내 정보제공 역량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플랫폼 구축·운영, 매체 홍보, 투자

방식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한 성과 목표를 위해 특수목적 펀드(1차 농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회수 시장 지원 펀드)를 조성해 1,129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농식품 펀드 결성을 추진하여 운용계획 대비 민간투자 유치 금액을 초과 달성하고 펀드 결성에 소요 시간을 단축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전용 펀드(영파머스)를 통해 전년 대비 47억 증가한 펀드를 결성한 점과 민간 운용사의 참여가 2배로 증가한 것은 사업이 적절히 진행된 성과로 판단된다. 또한, '23년 범부처 벤처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12.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펀드의 투자금액이 2.6% 증가되었고 신규 운용사 비율이 21% 증가된 것은 사업성과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관의 노력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상담,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 농식품 경영체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농식품 경영체 수가 2.4배 증가한 점, 투자금액이 4.4배 증가한 점, 농식품 모태펀드 정책 고객의 고객만족도가 5.7% 상승한 점은 농식품 기업의 지원에 대한 기관의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인정된다. 다만, 피투자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가 지속적인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투자기업 지원 프로그램추진 시 피투자기업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 13개 경영체로부터 151억 원의 투자를 성공한 점은 투자생태계 활성을 위한 기관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 운용계획수립 및 실행을 통해 조직 운영체계, 단계별 추진체계, 단계별 고도화 방향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의 이용 편의성, 정보의 일원화, 플랫폼을 통한 투자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에 대해 실적 달성으로 설립목적 및 중장기 경영 목표, ESG 경영 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계량 성과지표 중 ‘모태펀드 출자 승수 비율’ 과 ‘투자지원사업 추진 노력 및 성과’ 의 경우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농식품 펀드 투자 성과’ 는 고용증가율이 목표 대비 미흡하여 목표치의 93.5%를 달성하였다.
- 비계량 지표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실적으로 운용 계획상 목표 대비 펀드 결성률 100% 달성하였으며 민간투자자 유치 확대로 펀드 결성에 성공하였고, 우수 농식품 경영체 발굴을 확대하여 31개 사가 377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투자받은 기업의 매출액이 32.6% 증가해 투자유치를 통해 경영체의 가치 증진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다만,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사업’ 을 포함한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한 실적 및 성과분석이 요구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업을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22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지적사항을 연계해 ‘23년도 사업계획에 환류하여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고, ‘23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는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고도화 추진계획을 구축하였으며 보완사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24년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우수한 출자자 모집 확대’, ‘투자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농식품산업의 투자정보 생산 확대’ 의 성과 목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계량 사업지표 중 목표치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농식품 펀드 투자 성과’ 성과지표의 경우 투자 받은 피 경영체의 매출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이 반영된 ‘24년도 추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3 농업정책자금 관리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검사 실시기관 수 ÷ 검사 목표기관 수 × 10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00	6.00	5.1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검사 목표기관 수 대비 검사 실시기관 수의 비율로 실적을 산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현장검사 290건, 비대면검사 120건으로 총 410건의 정책자금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시 수립한 목표기관 수(410건)를 모두 충족함으로써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총점 6점 중 6.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1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 실시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을 통해 전략일관성을 가지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중심성 측면에서 (검사 실시기관 수 ÷ 검사 목표기관 수 × 100)은 산출(output)에 해당되어 결과

(outcome)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후 산출과 결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요구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검사주기 5년에 맞추어 검사기관 수를 설정하였으나, 과거 최고 실적치 등을 기준으로 기관 실정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기관 수÷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10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00	2.00	1.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중점점검 대상 목표기관 수(당해연도 검사계획 수립 기준) 대비 중점점검 대상 검사 실시기관 수의 비율로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검사계획 수립시 중점점검 대상 목표를 28개 기관으로 설정하였고 28개 기관 모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100.00%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총점 2점 중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7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대상 기관에 대한 검사 실시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을 통해 전략일관성을 가지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중심성 측면에서 (검사 실시기관 수 ÷ 검사 목표기관 수 × 100)은 산출(output)에 해당되어 결과(outcome)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후 산출과 결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요구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중점점검 대상 기관 기준에 따르면, 기관경고 받은 지 2년 경과한 기관, 임직원 징계를 받은 지 2년 경과한 기관,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정부자금을 회수한 지 2년이 경과한 기관의 경우 중점점검 관리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기관 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도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당해연도 점검건수÷목표 점검건수×10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00	2.00	1.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외부 경영변수에도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감독 가능하도록 비대면 검사 점검건수 증가를 지표화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점검건수(전년 점검건수 × 110%) 대비 당해연도 점검 건수로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는 8,011건으로 목표 점검건수인 5,770건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총점 2점 중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7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외부 경영변수에도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비대면검사 목표 점검건수를 전년 대비 10% 증가하도록 설정하여 비대면 검사 확대를 통한 검사 효율성 증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을 통해 전략일관성을 가지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성과대표성 측면에서 비대면검사 확대를 통한 검사 효율성 증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증가율은 부적절하며, 전체 점검건수 대비 비대면 검사 점검건수의 증가율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연도 점검건수 ÷ 전년도 점검건수 × 100)은 산출(output)에 해당되어 결과(outcome)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추후 산출과 결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요구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과거 3개년 실적 추세와는 무관하게 (전년도 비대면검사 점검건수 × 110%)로 설정한 것은 도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4) 농업정책 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춰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고 4대 전략방향을 모색하여 주요 사업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 을 설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SMART 분석, ESG, 전략 연계성을 분석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 pool에서 지표를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기관(컨설팅업체)만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앞으로 외부고객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지기금 및 농안기금에 대한 정식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농안기금의 사후관리 객관화 및 농지기금 사후관리 부실처리 규정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 조치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용자금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적발 위주에서 사업 및 자금을 종합관리하는 정책자금 감독기관으로 체제를 개선하였다.
- 기관은 정책자금 검사 단계별 ICT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비대면검사를 통한 검사기법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인건비 52백만원, 출장여비 16백만원 절감)하였으며, 부정수급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 위한 사업자중심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출기관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 및 사업자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23년 사업자 귀책사유 지적금액 13.5% 감소시켰다.
- 기관은 개인정보 열람권 확보와 재심제도 실효성 강화를 통한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검기관 제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심의 프로세스의 개선(대면심의로 전환 및 전향적 규정 해석)을 통해 기존 대비 의견수용률 11%p 증가시켜 재심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그러나 온라인 채널(유튜브) 개설 및 콘텐츠 탑재에 대한 조회수나 구독자 등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이들의 만족도나 학습내용의 숙지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 및 자금을 종합관리하는 정책자금 감독기관으로 체계를 개선하였으나 수검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기관 귀책 사유에 의한 지적이 여전히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비대면검사 점검 건수 증가 등 계량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전체 감독체계 구축 및 규정·제도 개선 등 행정조치 처분을 시작하여 정책자금 종합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협·산림조합으로 비대면검사 확대 및 기관 수 확대, 대출취급자에서 사업자로 대상 확대하는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책자금 ICT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검사 법적 정당성 및 행정적 공정성 강화 및 적극행정을 통한 농어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검사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비계량 성과지표를 달성하였다.
- 기관은 위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ICT 관리체계 확대 등 검사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회 및 농식품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검사주기 5.0년을 3년 연속으로 달성하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통해 ESG 경영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체계적 관련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2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Total 관리·감독기관으로 전환, 비대면검사 기관 수 확대 및 검사기법 고도화, 사업자 대상 온라인교육을 추가하여 정책자금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의 환류 활동을 하였으며, 23년 자체 평가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감독시스템 공고화, 유튜브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에 교육 콘텐츠 개설 등 커뮤니케이션 다양화, 정부부처 사업자 간 소통 활성화 및 의견 공유 등의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종합감독 기관으로의 행정 권원 확보 및 강화, 수산업·임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홍보, 부처간 협의 및 R&D 활동 강화로 전문성 확대 등의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관은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을 통해 비대면검사에 대한 검사건수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목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출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중점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목표설정의 객관성을 가시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업정책 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합의에 기반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한 실적이 있다. 성과급 지급 관련 구성원의 불만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체계 개편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노사협의회 협의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평가 단위가 세분화되고, 성과지표가 확대되었으며,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성과 자체평가가 신설되었다. 인사평가와 성과평가를 분리하고 비계량 평가점수도 표준화 하는 등 개인과 부서가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요소를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점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해당사항 없음

4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60%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8.375	2	1.379	16	9.754
	(1) 리더십	4	B0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C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5	-			
	(3) 국민소통	1	D+	2	1.379		
	2. 사회적 책임	6	3.375	5	3.760	11	7.13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B0	1	0.883		
	(2) 안전 및 재난관리	2	B0	2	0.891		
	(3) 친환경·탄소중립	1	C	1	0.986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C	1	1.000		
	(5) 윤리경영	1	C	-			
	3. 재무성과 관리	8	6.000	3	2.440	11	8.440
	(1) 재무예산관리	8	B+	-			
	(2) 재무예산성과	-		3	2.440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6.375	-		12	6.375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C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C				
	(2) 노사관계	3	B0	-			
소계		40	24.125	10	7.579	50	31.704
주요 사업 (50)	1. 선박 아시아메미나방(AGM) 검사	10	6.250	21	18.532	31	24.782
	(1)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	-	B	15	13.176		
	(2) 선박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성과	-	B	6	5.356		
	(3) 선박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			
	2. AGM 예찰 방제	3	1.875	3	2.158	6	4.033
	(1) AGM 발생 대응 노력	-	B	3	2.158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			
	3.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2	1.250	2	1.684	4	2.934
	(1) 수입재식용식물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노력	-	B	2	1.684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			
	4.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5	3.125	4	3.400	9	6.525
	(1)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성과	-	C	4	3.400		
	(2)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			
소계		20	12.500	30	25.774	50	38.274
합계						100	69.978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0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5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70.478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기관장 3대 경영계약목표 및 6개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평가 반영을 통해 경영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특히 기관장은 경영계약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 운영 특성 및 업무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임원 및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등 사업혁신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직무급 도입 갈등 극복, 해외지사(파나마) 설립 검토 등 변혁적이면서 융합적 리더십 노력이 긍정적이다. 다만 세심한 리더십과 임직원들의 자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대상 실질적 권한 위임을 확대하고, 기관명칭을 업무 범위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전략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만족도(3.81점)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이사회 심의안건 16건(수정의결 1건), 보고안건 6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지의무 준수로 근로자대표 이사회 100% 참관, 자문위원회 개최 증가(1→2건), 경영제언 확대(5→15건) 등 제한적이지만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된다. 다만 비상임이사(9인) 구성에 있어 전문분야를 정책, ESG, 경영, 법률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사회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은 이해관계자 유형별 핵심소통가치와 소통전략을 체계화하고, 소통채널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4대 현안과제(아시아메미나방 AI탐지장비 개발,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근절, 부서장직 복수직화·근무형태 다양화 통한 조직활력 제고, 고객중심 열린 경영) 추진에 있어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선박검역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간제근로자 응시자 체력전형제 도입 등 현안과제 추진 노력도 긍정적이다. 다만, 기관장 경영계약과제와 기관경영목표의 연계성 낮고, 경영계약과제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도전성이 다소 미약(가령, 식물검역 병해충 검출실적, 외래병해충 발견실적의 목표치)하다는 점에서 성과 중심의 리더십 관리를 위해 객관적인 성과지표 구축 등 지표관리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3대 경영목표, 4대 전략방향 및 12대 전략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4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24개 실행과제별 부서책임제 및 7개 핵심업무 연계를 통해 실행과제 이행동력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장 3대 경영계약과제(수출식품 FSMC검역 지원,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ESG기반 경영혁신)와 기관 3대 경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도 전년 대비 개선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계좌를 통한 관리 수수료 납부 시스템 개선, 관리약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의 실행과제 성과 달성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예찰·방제 대상 외래 식물병해충은 제한적임에도 미션을 ‘자연환경 보호’ 로 설정한 것은 다소 과도한 사항으로 설치 근거법률에 입각하여 도전적이되 실천 가능한 범위로 미션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재점검을 포함하여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4대 전략방향을 체계화함으로써 3대 경영목표(FSMC검역 경제적 가치, ESG경영지수, 안전사고 예방률)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G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이 별개 과제가 아니기에 경영목표 2와 경영목표 3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방향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점검체계 고도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3대 경영혁신과제(안전·보건 및 정보시스템, 예산·보수·복리후생 체계, 조직인력 역량 제고)와 함께 아시아매미나방 AI 탐지장비 개발, 근무형태 다양화 등 4대 현안과제 추진에 노력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 다만, 4대 전략방향 중 S와 T는 통합 후 전략과제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환경 변화, 고객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4대 주요사업(FSMC 선박검역, FSMC 예찰·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특히 3대 경영목표별 실행체계와 4대 전략방향별 실행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실행가능한 경영전략체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12개 전략과제, 24개 실행과제, 7개 핵심업무를 전략 중요성 및 비중에 따라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벌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4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벌점 6.1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에 따라 총점 1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와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100.00 전년대비 향상도 : 89.63	97.93	1	0.979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100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60점)으로 우수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100점(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20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89.63점을 8:2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7.93점으로 총 점 1점 중 0.979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고객유형별 소통쟁점을 파악하여 소통채널을 일부 정비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공유(210건)에 노력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검사정보 제공 환경 개선,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전공표 대상정보 및 사업실명제 등 정보 최신화 등 정보공개·개방 내실화 노력도 일부 인정된다. 또한 주무부처 감사 지적사항인 다수인관련 민원 사전예방대책 미수립 지적에 대한 개선 조치, 노사협의회 결과 13건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노사소통 효능감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약칭 등 브랜드이미지(BI)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기관인지도 향상 노력의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홍보 및 언론소통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영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이 매년 발생하고, 23년도에는 전년대비 증가(6점)했다는 점에서 경영공시 자체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 원문공개 및 사전공표 등 정보공개체계 개선과 함께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관 규모에 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기에 이해관계자 유형별 핵심소통가치와 소통전략을 체계화하여 소통채널 운영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실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83.33	0.7	0.583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100.00	0.3	0.3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총 12개월 중 1월 및 2월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없어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83.33%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표 가중치 0.7점 중 0.583점을 획득하였다. 기관의 2023년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 결과 법정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최근 3년간 청년인턴의 지속적 채용연계 성과(2023년 기준 청년인턴 중 총 14명 채용연계)를 도출하였다. 다만, 비

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사공동협의 대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책제언 및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현장근로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실질적 고용의 질 개선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휴직예정자 상·하반기 조사 및 정년퇴직 예정 결원 조기채용 등을 통해 정현원차를 최소화(2023년 정원대비 현원 비율: 98.2%)하였으며, 여성임원 고용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다만, 사회형평채용 관련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3.6%)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장애인적합직무 발굴 및 기도입한 장애인제한경쟁채용과 기관 채용우대조치에 대한 적극적 홍보채널 구축 및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원격근무 시스템 및 자동육아휴직제도의 신규 도입, 현행 공가 확대 등 일과 삶 균형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2015년 9월)하고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과 2023년 11월 노사공동 제도개선위원회 실시한 이후에 기관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후속 제도 개선사항이 미흡하므로 구체적 개선과제 설정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69.11	1	0.69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미흡	1	0.2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69.11점으로 0.691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2건, 통보 2건으로 총 16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100%로 미흡 기관에 해당하여 0.2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전년 대비 안전예산 집행을 증가하고 위험성 평가 조직을 구성하여 원 사업장 전체 및 전 공정 대상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율예방체계 구축노력을 기울이고, 재난유형별 안전사고 매뉴얼 확보, 안전근로자참여를 통한 안전근로협의회(연 2회) 운영 등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가능한 안전조직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총괄관리책임자 1명 지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안전전문가 육성 또는 외부 전

문가 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2023년 12월말 수립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이 향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급사업장을 포함한 현장 안전 및 재난관리체계의 지속적 보완노력 역시 필요하다.

- 기관은 선박검사자 체력기준을 신규 설정 및 시행하였으며 드론검역 실시로 고소작업 시 발생가능한 추락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아시아메미나방 인공지능 탐지장비를 통한 효율적 검역으로 구성원의 구석진 곳 검역시 발생가능한 위험 및 질환예방에 기여하는 등 현장근로자 안전제고 노력을 강화하였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재해발생시 대처방법 매뉴얼 배포 등 적극적 안내와 접근성 높은 신고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직전 2개연도 대비 저조한 점수를 받았으므로(21년 78.25점, 22년 87점, 23년 69.61점), 원인분석 및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성 강화와 모의해킹 공동훈련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586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4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45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35.16%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97.66% 감축을 달성하였고 총점 0.6점 중 0.586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00,576천원으로 전년 48,717천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9,734천원 대비 933.21% 증가함으로써, 총점 0.4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022년 수립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을 재검토 및 개선하고 ESG 활동과 연계하여 FSMC 예찰, 쓰담달리기, 아름다운 농촌만들기(농촌 클린활동) 등 다각적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만, 기관의 신규 환경경영지표 발굴실적이나 기존 지표의 개선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예: 온실가스배출량, 폐음식물자원화 21% 자원화 등 2020년부터 존재) 향후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과제발굴과 연계 환경경영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내·외부 의견 수렴 채널 다각화 및 상시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화를 위한 노력 역시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친환경차 확대, 녹색제품 구매확대(2022년: 49백만원 → 2023년: 83백만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4행시, 환경보호 의식 내재화 수준 진단, 탄소중립 노사공동 선언’ 등 구성원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처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실천이 현장에서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체계적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 기관 구성원들이 환경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기관 및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 경영지표를 신규 발굴하며 친환경문화 확산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100.00	0.3	0.300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100.00	0.2	0.20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품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100.00	0.1	0.100
여성 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	100.00	0.1	0.100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총액의 1%	100.00	0.2	0.200
기술개발생산물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100.00	0.1	0.100
계			1.0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의 전년 대비 증가 비율,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물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의 전년 대비 증가 비율,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물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부산자원봉사센터 워크숍 참석, 시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진행, 지역대학 및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항·항만 내 외래해충 합동조사 및 사전방역 실시(관리급 해충검출 615건), 사회적약자기업 물품구매 확대 등 지역사회와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1회성 협의 및 워크숍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협업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상생협력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기관이 공유 가능한 자원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식별 및 요구분석을 위해 VOC 채널다각화와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한 홍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이해관계자 니즈를 반영한 지역상생 추진전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위탁업체 대상 거래관행 및 선금결제 방식 관련 정기적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호관리 조치, 이해충돌예방을 위한 조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선을 이행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도 이행하였다.
- 그러나 기관은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경영 교육 이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공무원 근로자 보호를 임시조치하지 말고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회계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회계 관계 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 통제 강화 방안 마련 및 이행 등 회계신뢰성 제고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체 예산운용지침 수립 및 예산집행실명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집행효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집행 절감액 전년 대비 13.4억원 증가, 재무안정성 상승(유동비율 681.89%, 부채비율 2.92%)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예산편성(경상경비 3% 절감, 업무추진비 동결), 재정관리점검회의(분기별) 신설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체결확대, 부당계약신고제도 운용 및 신고건수 0건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 노력을 기울였다.
- 기관은 정부권고안을 준수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운영하였고 스마트워크 운영, 자동육아휴직제도 신설 등을 통한 여가지원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확대를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다만, 자체 예산운용지침, 재정운용계획을 중장기 경영전략과 보다 촘촘하게 연계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정성과 운용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내외 기관이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재정예측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분기별 재정관리점검회의, 월별 예산이행실적 점검 등의 모니터링 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무담당자뿐 아니라 구성원의 재무관리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역량기여도 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내 예산집행주기 및 중장기적 전략과 연계한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현황을 공유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대내외 다각적 의견수렴 채널 확보 및 정책개선으로의 연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00	76.65	81.32	3	2.44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목표대실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76.65%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81.32점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2.440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평가는 ‘23년도 경영실적평가 편람에서 제시 하듯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6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이 경영전략과 잘 연계되어 수립되고,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핵심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과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의 합리성 제고)과 성과를 평가한다. 셋째,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교육 프로그램, 커리어패스 설계, 교육성과의 인사 활용 등)과 성과를 평가한다. 넷째, 합리적인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관리체계 운영, 성과 평가 지표 설정, 평가방법 및 보상체계 구축)과 성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기관 특성에 따라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 인사교류제도 및 특별승진제도 등의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경영전략 및 핵심업무와 연계하여 조직과 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 실적이 있다. 우선 검사검역팀 팀장의 복수직위를 확대하고, 실무인력 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 최초로 여성관리자를 발령하였고, 신기술 검역장비 개발·고도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수행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한 성과가 있다. 검역량 증감에 대응한 인력재배치 성과도 존재한다.
- 그러나 기관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 ESG 기반 지속가능 경영은 기관의 핵심 전략목표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 발굴이 미흡하다. 특히 환경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관의 성과를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규모 조직일지라도 개방형 인사제도와 인사교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가시적 성과 산

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분류 결과와 매칭이 가능한 외부 기관을 적극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인사교류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등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직무급제의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관의 임금체계는 기본연봉과 직무수당이 분리된 구조이며 직무등급과 연계한 직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직무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경력개발제도(CDP)를 직무평가·직무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였고,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직무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고도화는 아직 진행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 직무급의 차등폭을 확대하고,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현행 직무수당 방식은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정도로 보기엔 어려우며, 타 기관보다 직무급제도의 구축 및 개편속도도 상대적으로 더딘 측면이 있다. 기관은 적극적인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등 직무중심의 보수체계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첫째,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살펴본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실적이 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여 근로환경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추진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지침 개정을 하여 그간 미비했던 노사협의 규정을 정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정규직과 동일한 안전규정 적용, 안전화, 안전모 지급)를 이행하였다. 기관은 근무제도를 개선(휴직제도 및 스마트워크 제도 도입, 보상체계·근로환경·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 실적이 존재한다. 또한, 신규 노사협의 도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기관은 노사소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사협력 관련 지표는 목표대비 달성 초과하였으나, 노사소통 부문은 목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협력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①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1 - \{(\text{평가연도 상대국 AGM 검출 실적} \times \text{가중치})\} / 100$	목표대실적	100	97.00	97.60	15	13.176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 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확산 방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가연도의 상대국 AGM 검출 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계한 금액을 토대로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2023년 기관이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한 3척의 선박 관련 난괴(알덩어리) 검출 정도는 모두 1점으로 나타나 각 발급 건수에 1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계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실적치는 97.00점이며 총점 15점 중 14.64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3.176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식물검사원이 수행하는 선박검사를 통해 아시아매미나방이 규제국가로 유입·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아시아매미나방 선박 검역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 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과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산출(output)·결과(outcome)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높아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중치가 배분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신규지표 발굴을 통해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을 위한 지표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지표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매미나방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단순 명료한 산식으로 구성하여 개선함으로써 지표평가 사업 여건, 평가방식, 실적 추세를 고려한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평가산식 중 난괴 검출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선박검사를 통한 AGM 확산 방지 성과의 실적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선박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1 - $\frac{\{(\text{안전사고 발생인원} \times \text{가중치}) / \text{선박검역 근무인원}\} \times 100}$	목표대실적	100	99.98	99.18	6	5.356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선박 FSMC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발생 인원, 안전사고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의 합계액을 토대로 실적을 측정하고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선박 FSMC 검사 관련 안전사고는 1건으로 해당 건 직원은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1의 가중치(경상)를 적용하여 산정한 실적치는 99.98로 산정되었으며 총점 6점 중 5.951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356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식물방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의 핵심가치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검역 현장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기관 설립 목적과 연계성이 높아 성과의 대표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업의 중요도 측면에서의 전략일관성, 결과 중심의 지표 구성을 통한 결과중심성,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자 상해정도에 의한 가중치 적용에 있어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고보고서의 병원측의 의견에 충실한 상해 가중치를 판단하여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 지표는 지속해서 변화하는 현장 업무환경과 여성 검사원 및 검역 인력 고령화에도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를 결과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여건과 평가방식 대비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또한, 무상해 사고 및 아차 사고 발생 건도 산식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어 평가산식 대비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최근 6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인원과 가중치를 적용하면 안전사고 예방 성과의 실적률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 고려하여 실적추세 대비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3) 선박 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기관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아시아메미나방 선박 검역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검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국내외 고객과의 교류강화’, ‘검역환경 개선 및 검사원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3개의 단위사업을 도출하였다.

- 기관은 각 단위사업의 6개의 지표풀(Pool) 중 계량지표 2개와 비계량 지표 2개를 SMART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단위사업을 위한 지표풀의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위 사업별로 유사한 성과지표들의 수정 및 보완하고 성과지표풀을 추가로 발굴해 다변화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 선정기준을 SMART 분석과 전략연계, ESG 연계 등을 적절한 가중치 비중으로 반영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별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달리하여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신규검역장비 현장 적용 노력을 통해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하여 장비의 성능검증과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도 검사원들이 탐지장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탐지 장비 성능 보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국내 기후 및 국내외 매미나방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검역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인력확보를 및 고위험기간 검역 신청 선박과 중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AGM 검출 건('23년 44척)을 2배 증가하였으며 규제국 입항 시 합격률 99.9%로 매미나방 발견 비율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관은 세계 최초 선박 검역 전용 인공지능·ICT 기술이 도입된 아시아메미나방 탐지 장비 개발을 통해 검역 보조 인력의 검역 품질향상 및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실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단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장 사용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지역의 검역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드론을 활용한 검역 추진 건수가 13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저조하며 검사원의 드론 비행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아시아매미나방 탐지 장비에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을 드론에 도입하여 고위험지역의 검역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국내외 고객과의 지속 교류를 통한 소통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고도화와 대면 소통을 확대를 위한 고객 VOC 적극 청취 및 반응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선박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국의 선박 검역 정보를 최신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감염증명서 미소지 규제국 입항 선박 2년 연속 제로를 유지하고 고위험기간 선박 검역 신청률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검역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과 검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원 자격 취득률을 99.9% 달성한 점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국문·영문 홈페이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이 요구되며, 아시아매미나방의 영문명(AGM→FSMC)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아시아매미나방 선박 검역사업의 6개의 세부 사업 중 ‘검사원 매미나방 검출 실적’, ‘검사원 자격 취득률’, ‘안전사고 발생 건’은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였고 ‘매미나방 확산 방지 성과’는 97%, 고위험기간 선박 검역 신청률은 93%의 달성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매미나방 확산 방지 성과’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경우 ‘22년 실적에 미치지 못해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사고 발생 건’의 경우 주요 사업의 계량지표인 ‘선박 검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성과’와 유사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실적이 1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0건으로 평가되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6개의 비계량 지표를 선정하여 검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국내외 고객과의 교류 강화, 검역환경 개선 및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비계량 지표의 목표 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비계량

성과분석의 구체성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및 진단을 통해 미흡 사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 결과를 통해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기관은 외부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류 활동을 통해 신규 장비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상대국 검출량 감소를 위한 검사원 자격 취득 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의 특성별로 모니터링 채널의 주체나 주기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모니터링과 평가 및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평가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된다.
- 기관은 최근 상대국 AGM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23년 검출된 3건의 경우 모두 부산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항만별 검사 건수가 많은 지역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효율적 인력배치에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시아메미나방 선박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2 AGM 예찰 방제

(1) AGM 발생 대응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예찰 트랩 조사 이행 실적×0.7	목표대실적	100	100	79.92	3	2.158
관계기관 적기 약제 방제 실적×0.3	목표부여	최고: 140.4 최저: 93.6	101.25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향만 주변 지역 등의 AGM 발생 밀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방제 및 선박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예찰 트랩에 대한 조사 이행 실적과 AGM 밀도 감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이 약제 방제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예찰트랩 조사 실적을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한 점수와 관계기관 약제 방제 실적을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한 점수에 각각 0.7 및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트랩 조사 수는 6,672건으로 목표한 건수를 모두 이행하였고 2023년 관계기관 약제방제 횟수는 162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관계기관 약제방제 횟수 272회를 감안한 실적은 101.25점으로 측정되어 지표 평점 79.92점으로서 총 점 3점 중 2.398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158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향만 주변 지역 등의 AGM 밀도를 확인하여 필요시 방제 및 선박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예찰 트랩에 대한 조사이행 실적과 AGM 밀도 감소를 위해 관

계기관 등이 약제 방제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아사이메미나방의 예찰·방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해 성과의 대표성을 가지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배분 적정성이 충족하여 전략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과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자료 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표가 투입(input)과 활동(activity)에 해당하는 예찰 트랩 조사이행 실적과 관계기관의 적기 약제 방제 실적만으로 구성되어 평가되고 있으며 결과 중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지표의 개선을 통해 AGM 발생 감소에 대한 산출(output)·결과(outcome) 중심으로 지표의 변경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자체의 노력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관계기관의 약제 방제 실적을 합산한다는 점과 최적기 방제 실적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에 대해 적정성 판단이 요구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목표 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복합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여건, 평가방식 대비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된다. 다만, '23년 수정지표를 이용해 최근 3개년 실적을 비교해서 실적 추세 대비 도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예찰 트랩 조사 이행실적과 관계기관 적기 약제 방제 실적에 대해 목표치를 각각 부여하고 예찰 트랩 조사 이행실적에 가중치를 0.7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목표의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AGM 예찰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 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AGM 예찰·방제'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단위 사업으로 '예찰 결과 DT로 연구 활동 강화'와 'AGM 발생 빈도 변화 예측을 위한 선제 대응'을 추진하였다.
- 기관은 2개의 단위 사업별로 8개의 지표풀(Pool) 중 계량지표 2개와 비계량 지표 1개

를 SMART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SWOT 분석을 통해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량 및 비계량 지표들의 경우 결과지표로 구성하여 전체 계량 성과지표에서 산출 및 결과지표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비교적 낮은 평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23년의 목표를 설정한 점과 '예찰 정보 공유 실적', '예찰·방제 관련 자체 또는 협업 연구 실적', '예찰·방제 업무 고도화 실적'의 경우 어떠한 실적이 성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보완하여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위 사업을 위한 지표들의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며, 성과지표의 선정기준을 SMART 분석을 포함한 전략 연계 및 ESG 연계 등을 활용해 적절한 가중치 비중을 반영하고 내·외부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선정에 대한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을 배분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환류 활동을 통해 사업성과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다. 그러나 주요 2개의 사업인 '아시아매미나방 선박 검역사업'과 'AGM 예찰·방제 사업'을 위한 인력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예찰 결과 활용해 연구 활동 강화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학술세미나 참석 및 발표, 인증원-과학월간 실무협의회, AGM 유충 발생 예측 분석 관련 핵심 데이터 제공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약제 방제 총횡수와 유충 방제 최적기의 약제 방제 횡수를 AGM의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AGM 발생량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4개의 핵심 데이터를 활용한 AGM 발생 예측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요구된다. 추후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방법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있으며 AGM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및 모델 성능 평가를 통해 유충 발생 예측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AGM 발생 빈도 변화 예측을 위해 대발생 지역의 수립지나 도심지로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AGM 예찰 트랩 설치 지역을 37개소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내륙지역 예찰 트랩을 20개 설치해 전년 대비 900% 증가한 것은 AGM 발생 빈도 변화 예측을 위한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국내·외 5개 기관과의 AGM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협의체를 설립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륙지역 예찰 트랩 설치를 통한 AGM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국내 검출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항만 지역으로의 AGM 확산 차단 효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난괴 조사 지점 GPS 좌표 기록 및 장소별 제거 실적과 발견된 난괴 상태를 기록해 시각화하는 활동을 통해 AGM 발생 예측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제한적인 인원을 고려했을 때 상당 수준의 트랩 조사 수 목표를 100% 달성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2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중 ‘예찰정보공유실적’은 2회, ‘예찰방제 관련 지체 또는 협업 연구실적’은 1건, ‘예찰방제 업무 고도화 실적’은 2건, ‘내륙지역 예찰 트랩 설치 실적’은 20개로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표의 도전성이 낮아 목표치 달성의 의의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AGM 관련 관계기관 협력 기반 확대 노력’, ‘AGM 밀도 변화 예측을 위한 노력’의 주요 성과로 협력 기반 확대기여, 세미나 참석, 항만 바깥 내륙지역 예찰 트랩 설치 확대, AGM 생애·생리 특성 확인을 위한 난괴 상태 기록, 전년 대비 AGM 발생량 증감 비교분석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비계량 성과지표의 활동이 계량 성과지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의 설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은 기관의 목표치 산정 시 성과지표의 구체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실적을 제시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체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환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립목적 및 경제적·사회적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진단 및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발전·확산시키고 미흡 사례는 보완·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AGM 예찰·방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실적 보고는 연 1회 이뤄지고 있다. 세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채널의 다변화와 모니터링 주기를 적절히 분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의 모든 중요사업의 환류 활동이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자체 평가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외부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 연구를 강화하고 예찰 조사 범위를 확대한 점은 기관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AGM 발생 대응 노력’을 위한 예찰 활동률의 경우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와 ‘발생에 잘 대비 대응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산출(output)·결과(outcome)를 포함하는 성과지표로서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AGM 예찰·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로 평가한다.

3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1) 수입재식용식물 ·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text{병해충 통지 실적}/\text{병해충 발견 실적}) \times 0.7 + \{[\text{병해충 발견실적} \times \text{가중치}]/\text{병해충 발견 실적}\} \times 0.3$	목표대실적	100	91.91	93.53	2	1.684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통해 외래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 ·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병해충 발견 실적 대비 통지 실적과 발견된 병해충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병해충 발견 실적에 각각 0.7 및 0.3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로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병해충 발견 실적은 22건 및 통지 실적은 21건으로 나타났고 발견 실적 22건 중 관리병해충 3건, 잠정규제병해충 10건, 비검역병해충 9으로 각각 1.3, 1.0, 0.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실적치는 91.91로 나타나 평점 93.53점으로 총 점 2점 중 1.871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684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신속 통지를 통해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 ·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아시아매미나방의 에찰방제와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 지원’ 이

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가지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절히 배분하여 전략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산출(output)·결과(outcome)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결과중심성을 갖고 있으며,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병해충발견 및 통제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오류율(미발견율, 오판독율 등)로 관리지표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해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지표평가 방식, 산식, 과거 3개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여건 대비를 보면, 산식에서 발견실적이 부가적(Σ (병해충발견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의 노력보다는 우연히 병해충이 많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성과가 향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아시아메미나방의 예찰방제와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 지원과 식물의 검역 및 방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바탕으로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경영목표를 선정하고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강화’ 라는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 기관은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SMART 분석을 통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 선정과정에서 SMART 분석과 별도로 경영전략, 국정과제, ESG 등과의 연계성이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KPI 선정 시 주무부처나 비상임이사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나 외부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검역장소 관리 약정 신청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로 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기관 내·외부 협력을 통해 관리 수수료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 니즈(Needs) 충족 및 애로사항 적극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다.
- 기관은 발견된 병해충 정보 공유, 외부기관 전문교육 이수 및 식물검역 유경험자 채용 등을 통해 식물검역관리인의 역량을 제고하여 검역장소 관리 시 식물검역병해충 발견을 증가 등으로 식물 검역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발견된 병해충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신속 통지(21건)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에 기여하였다.
- 기관은 식물검역해충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용 시 외부 전문기관 온라인 교육(무상) 및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절감(외부 전문 강사 초빙 비용 약 1백만원 절감)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노력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였다. 그러나 식물검역관리인 역량 강화 활동의 핵심성으로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가 아닌 투입(input)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사용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 등 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가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인 식물검역 해충 검출률의 경우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재식용식물 관리 업무 시스템 고도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식물검역관리인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등에 성과를 거두었다.
- 기관은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약정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 불편 사항 해소와 동시에 편의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관리약정 업무 신속 처리 등 업무 효율성 증대로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또한 식물검역관리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외래병해충 검출 및 대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국가 농림산업과 자연환경 보호에 이바지하였다.

- 그러나 발견 병해충 신속 통지율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과정평가를 강화하여 목표 대비 실적 미달 지표를 조기에 발견하여 미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환류 활동이 요구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내부 및 외부의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장소 관리 수수료 납부 방식 다변화를 통한 민원 불편 사항 해소 등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식물검역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가적 차원의 교육 확대 필요 등의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검역장소 관리 약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 및 관리 수수료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였다.
-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발견 병해충 신속 통지율)와 같이 사업 집행 도중의 과정 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연도에 사업이 미진할 경우 그 원인을 조기에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환류 활동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4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1)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컨테이너 조사대수}/\text{조사인원})/(\text{전년도 컨테이너 조사대수}/\text{조사인원})\} \times 0.5 + \{(\sum(\text{평가연도 병해충 발견실적} \times \text{가중치})/\sum(\text{전년도 병해충 발견실적} \times \text{가중치}))\} \times 0.5}$	목표대 실적	110	150.21	100.00	4	3.4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공항·항만 등 비생물적 경로를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 조사를 위해 외관 및 내부를 조사한 컨테이너 개수를 토대로 산정한 조사실적과 공항·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시 발견된 병해충 건수에 병해충 종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견실적에 각각 0.5 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적을 측정하였으며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컨테이너 조사대수는 1,544,362대, 조사인원은 106명이었고 해충 발견 건수는 3,096건으로 비검역해충 2,481건, 잠정규제병해충 16건, 관리병해충 599건으로 유입방지 성과 실적이 150.21로 산정되었으며 목표치인 110을 초과함으로서 총점 4점 중 4.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공·항만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 조사 시 발견된 병해충의 중요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아시아매미나방의 예찰방제와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 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되어

성과대표성을 가지며,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절히 배분하여 전략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갖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 자료객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가 투입(input) 또는 활동(activity)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조사대수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추후 산출(output)·결과(outcome) 중심으로 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는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방식, 평가산식에 비추어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된다. 다만, 과거 3개년간 실적추세에 비추어 목표치 자체의 도전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2022년의 조사 컨테이너 수 및 예찰트랩설치 수 대비 병해충 발견 실적 및 붉은개미 발견실적이 낮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아시아메미나방의 예찰방제와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 지원과 식물의 검역 및 방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바탕으로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경영목표를 선정하고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라는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 기관은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SMART 분석을 통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 선정과정에서 SMART 분석과 별도로 경영전략, 국정과제, ESG 등과의 연계성이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KPI 선정 시 주무부처나 비상임이사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외부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문조사원 채용을 확대하여 직무 전문가 확보 및 전문조사관 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최고의 조사 품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항 및 항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외래병해충 정보공유·홍보를 통해 신고 장려와 조사전문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 기관은 병해충 발견 주기·위치·정도에 따른 위험도 재설정 및 조사주기 현실화 등 업무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전국 공항·항만(44개소, 110명) 3년간 조사현장 안전사고 zero를 유지하였다.
- 기관은 수출재배단지 과수화상병 시범조사 사업 참여, 외래병해충 발생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자발적 혁신역량 발굴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신사업화 가능성 및 종합 방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외래병해충 예측정보 시스템 개발 착수로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그러나 일부 단위사업(외래 병해충 조사·발견 대응체계 확립)의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도전성이 미흡하였으며(최근 2개년간 평균 실적의 2% 향상), 일부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산출(output)을 결과(outcome)으로 설정하는 한계가 있었다(붉은불개미류 국내 유입방지 3건). 또한 내부 교육 및 외부전문기관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성취도 평가 등 교육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인 외래병해충 발견 실적, 전문조사원 분류·동정 실적, 정보공유 및 홍보 실적, 신규 외래병해충 조사사업 참여 실적 등은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비계량 성과지표인 업무체계화 노력, 조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관계·유관기관 협력 강화 노력, 조사사업 효율화를 위한 노력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 기관은 외래병해충 조사·발견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주민 포함 직접고용 110명

일자리 창출, 정확하고 안전한 조사를 통해 관리해충 615건(25,556마리) 발견 및 유입차단, 민·관 협력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3년 연속 중대재해 사고 Zero, 자발적 혁신역량 발굴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교수, 연구원 등 11명 지역전문가가 참여하여 항만 조사 추진 및 사전 방역 실시 등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내부 모니터링 채널 운영 및 외부의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례를 발견하여 그를 시정하기 위한 주무부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환류를 추진하였다.
- 기관은 평가 결과, 전년도 조사 결과 및 병해충 발견실적에 따른 매뉴얼 보완·개정 및 매뉴얼 세분화를 통한 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장소별 위험도 구분 및 집중관리, 부두항만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조사지역 컨테이너 자동화 작업 중단 협조 등의 우수사례를 발전 확산시켰으며, 조사사업 고도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한 조사업무 전담 정규직 인력 충원 필요 등 미흡사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해당사항 없음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가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다. 우선, 검역 첨단장비를 개발 및 활용하여 검역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 다음으로 검역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채용에서 업무수행에 부합하는 체력검사 기준을 근거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끝으로 관리약정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개선을 이행하여 고객의 편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극행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4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57%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7.875	2	1.539	16	9.414
	(1) 리더십	4	C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B0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1.5	-			
	(3) 국민소통	1	B0	2	1.539		
	2. 사회적 책임	6	3.125	5	4.266	11	7.391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C	1	0.860		
	(2) 안전 및 재난관리	2	C	2	1.406		
	(3) 친환경·탄소중립	1	B0	1	1.0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C	1	1.000		
	(5) 윤리경영	1	C	-			
	3. 재무성과 관리	8	4.000	3	2.912	11	6.912
	(1) 재무예산관리	8	C	-			
	(2) 재무예산성과	-		3	2.912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6.500	-		12	6.500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C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B+	-				
(2) 노사관계	3	C	-				
소계	40	21.500	10	8.717	50	30.217	
주요 사업 (50)	1.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8	5.000	12	10.550	20	15.550
	(1)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	C	5	4.250		
	(2)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	B	3.5	3.150		
	(3)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	B	3.5	3.150		
	(4)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			
	2.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7	4.375	10	8.700	17	13.075
	(1)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	C	3	2.550		
	(2)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	C	3	2.550		
	(3)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	-	B	2	1.800		
	(4)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	-	B	2	1.800		
	(5)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			
	3.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5	3.125	8	6.800	13	9.925
	(1) 농업·농촌 가치확산 성과	-	C	2	1.700		
	(2) 대국민 도농교류 및 체험기회 확대 성과	-	C	2	1.700		
(3) 식량작물 소비 인식 확산 성과	-	C	4	3.400			
(4)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				
소계	20	12.500	30	26.050	50	38.550	
합계					100	68.767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0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69.267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경영계약 과제 이외에 경영성과 및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기관장 자율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기관 자체 쇄신을 통한 전반적인 기능,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고, 기관 혁신 TF 운영 및 조직 개선을 통해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와 추진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이사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이사회 개최 건수 확대, 이사회 심의 안건 수 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다만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이사회 운영을 목표로 개선과제나 전략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소위원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혹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이해관계자별 핵심 니즈를 도출하여 맞춤형 소통채널을 운영하였다. 특히 기획기사 등 언론을 통한 소통채널을 확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ESG혁신보드를 신설하여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기관 경영 개선에 반영하는 등 동기부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장 계약과제나 기관 전략과제와 차별화된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기관이 현안과제를 운영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안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현안과제는 목표치 혹은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하고 환류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 1,191억 확보로 조직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유통채널 신규 발굴, 온라인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한 매출액 향상(28.8억 → 35.3억) 등 청년농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외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여, 농식품 정책콘서트 혁신 우수과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다만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의 영농지속률이 87.5%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진단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점검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가치의 잦은 변경은 핵심가치의 조직 내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잦은 변경 활동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핵심가치 운영 현황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기존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전 및 가치체계 내재화 수준 진단, ESG 내재화 수준 진단 등과 관련하여 단순 설문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부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운영하는 등 측정방식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경영전략에 ESG 이슈를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하되, 별도의 ESG 전략체계를 운영하더라도 ESG 전략체계는 기관 경영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분명하게 포지셔닝 되도록 하여 과제 추진 및 관리 차원에서 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SG 수준 및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한 K-ESG 지수 또한 ESG 전략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내재화 활동의 주도적인 실천을 위한 혁신 추진조직으로 ESG혁신보드를 신설하였고, 기관 경영혁신을 위하여 20건의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를 실제 경영에 반영(완료 11건, 진행 4, 검토 5)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별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6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별점 3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87.82 전년대비 향상도 : 100.00	93.91	1	0.939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77.82점으로 미흡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87.82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100.00점을 5:5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3.91점으로 총점 1점 중 0.939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자문단, EPIS 서포터즈 등 국민 참여 채널을 확대하여 경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농업·농촌 이슈 데이터 수집량을 380% 확대하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디지털농업 선도를 위해 빅데이터 동향지를 신규 발간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 데이터 개방 범위를 미개방 데이터(민감데이터)까지 확대하고자, 과기부로부터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받았다.
- 기관은 농업박람회에 중국, 캄보디아 농업인 단체 통역 지원을 신설하고 K-라이스벨트, K-푸드플러스, K-스마트팜관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조성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창업도약, 투자지원, 지원정책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 다만 소통, 정보공개 확대 등 국민소통과 관련하여 환경분석 결과, 전년도 미흡한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개선과제 혹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목표나 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도출하여 성과관리 및 환류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슈 분석부터 의견수렴, 반영, 확산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조직 개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실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80.56	0.7	0.56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100.00	0.3	0.3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80.56%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560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133.3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적극적인 채용과 고용의 질 개선 등을 '23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청년 신규채용 216.7%, 청년인턴 채용 158.3%, 비수도권 지역인재 166.7%, 이전지역 인재 채용 120.0%,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우선고용 112.5%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23년 정·현원 비율은 98.0%로, '20년 97.3%, '21년 98.0%, '22년 97.5%로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어 '새정부 공공기

관 혁신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측분석을 강화하여 수요반영을 통한 수시채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채용 달성률이 78.9%인 점과 장애인 의무고용이 50.0%인 점, 그리고 채용 및 고용안정 만족도 3.83점인 점은 절대적인 수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환류 체계에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청년인턴, 환경미화 교대근무,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절감재원을 활용한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연가저축 사용이 전년 대비 13.3% 증가, 휴가사용 및 자기계발 시간 만족도 전년 대비 0.05점 상향, 유연근무제 참여자의 전년 대비 9명 증가 등의 성과를 통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관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한 점은 인정된다.
- 기관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와 관련한 성과지표 발굴과 중장기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성과달성 정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자기계발 시간 만족도는 3.70으로 다소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연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 탄력정원제 및 교대제 변경 등의견수렴을 통하여 자율증원 목표제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과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농식품부 및 기재부 채용 감사 시 채용 비리 지적사항이 없었고, 고용노동부 주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고졸자-무기계약직-별도직군-여성 등 인사,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개발교육, 복리후생제도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사회적 다양성 채용을 위해 채용 대상자에게 채용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하는 노력은 확인되지만, 전년도에 지적받은 바와 같이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고졸자, 다문화, 경력단절 여성 등 채용 대상을 보다 다각화하는 성과 창출에는 소극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자를 확보하여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상임임원은 남성 2명과 여성 0명, 1급은 남성 4명과 여성 0명, 2급은 남성 5명과 여성 2명, 관리자 후보군인 3급 15명과 여성 3명, 4급은 22명과 13명인 점이 확인되는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위직급과 여성관리자, 그리고 여성관리자 후보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편이어서 중장기 여성관리자(여성임원) 목표제와 중장기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여성의 상위직 확보를 위한 적절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여성 상급 관리자의 연차별 목표설정 시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분석을 통해 여성인재 목표 중장기 이행률(또는 이행정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80.60	1	0.806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보통	1	0.6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80.60점으로 0.806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개선 2건, 권고 3건, 통보 1건으로 총 87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75%로 보통 기관에 해당하여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내부제안 및 노사 참여를 통해 건강보건 관련 5건, 휴게시설 관련 3건, 근무환경 관련 7건, 시설관리 관련 7건 등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100% 이행한 점, 시설물 점검 중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 35건에 대해 100% 개선조치한 점, 질병 유소견자·요관찰자 근로자 상담의무 47명 및 추적관리, 그리고 청사실내 공기개선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시설물에 대한 근로자 청취조사를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 및 위험요인 16건을 파악하여 8건을 조치완료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보건·근무환경·시설 등에 대한 내부 제안 22건을 발굴하여 100% 이행 조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임신부 1명과 장애인 1명에 대한 열린 고용과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강화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취약근로자의 개별 취약성(혈압, 혈당, 스트레스 등)을 발굴하여 취약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연계하여 이전과 이후의 궁극적인 효과성을 제시하고, 취약근로자 대상별로 난이도 있는 보호

조치 활동을 평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외부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 실시 이전과 이후의 측정을 통해 성과관리를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전담인원의 교육-훈련-평가 등 궁극적인 효과 달성 정도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구성 및 개인정보 인력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 그리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 정리 총 44,241건 파기 등을 수행한바, 기관의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69.61점인 점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사이버 위협-물리적 보호 등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담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조직, 인력, 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외부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나타난 취약점을 근거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매칭하여 개선된 효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600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4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352,91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44.68%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124.10%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96,035천원으로 전년 91,331천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83,461천원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0.4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녹색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96백만원을 달성한 점, 녹지조성 면적 348㎡, 연간 전기사용량 100,000kwh(20백만원) 절감한 점, 자원순환 ESG 교육 만족도 4.79점을 달성한 점, 그리고 폐플라스틱 뚜껑 1.3천개 수집 및 지역카페 4개소 커피박 180kg 수거를 통한 커피 캔들(20개)과 커피 연필(847자루)로 재활용하여 탄소저감 67kgCo₂e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직원 친환경 및 저탄소 캠페인 참여자가 전년 대비 41.8% 증가한 점은 인정되지만 실제 캠페인에 따른 인식 제고 정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고, 기관 업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활동 및 국가 환경보전 기여도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친환경·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36.0% 대비 실적 44.66% 초과 달성한 점이 인정되고, 스마트팜 도입 전후 화학비료 사용량 9.53% 절감과 농산물 폐기(출하불가) 0.4% 감소한 점, 해외 5개국 스마트 팜 시설 60개동 (29,577㎡) 구축한 점. 농기계 8,982대를 등록하여 부품 재활용 촉진 및 노후 농기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루쌀 신제품 개발을 90종으로 확대하고, ESG 모델 체험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370.6% 상향된 점, 그리고 4개 유사 박람회를 통합하여 박람회 폐기물 감축 등 6.5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기관의 노력

이 인정된다. 다만,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인지 제고는 87.4점인 점과 해외 스마트 팜 시설 60개동 구축 및 농기계 8,982대 등록을 통한 부품 재활용 촉진 등의 궁극적인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89.28	0.25	0.25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3.70	0.15	0.150
여성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12.99	0.15	0.150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2.18	0.15	0.150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5%	59.67	0.15	0.150
윤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1.56	0.15	0.150
계			1.0	1.000
인정 점수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물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기술개발생산물 구매금액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대, 지역 소통·참여 플랫폼 주도 등 추진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사회공헌 활성화 공로 인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보육센터 졸업생의 영농 취·창업률이 전년 대비 24명 증가하여 114명 달성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선도농업인이 기부한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을 소외계층 대상 기부 90종 103명, 취약계층별 기부패키지 제작 및 기부액 9.5백만원, 그리고 지역 및 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이행과제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9건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영농지속률 87.5%인 점과 ESG 경영 상담 및 컨설팅 만족도 86.7%인 점은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전사적 노력을 통한 지역·기관 협업 플랫폼 협업과제와 지역주민과 소통 및 노력을 통한 취약계층-안전점검-시설개방 등 지역 요구별 추진내용에 따른 이전과 이후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궁극적인 개선 정도를 제시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중소기업 참여 지원 노력을 통해 공공사업 참여 확대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89.3% 달성,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전년 대비 2단계 등급 상승한 점, 하도급 사업 대상 상생결제 운영 및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과제 승인 10건으로 증가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상생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가 66.2%인 점과 표준계약서 활용-블라인드 업체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공정계약

상시모니터링 운영 등에 대한 궁극적인 효과성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평가 결과 전년 대비 등급 상승은 인정되지만 내부직원 인식 개선과 업체교육 의견 수렴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효과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90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모범거래 모델 도입에 대한 이행실적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지역과의 상생발전이 시스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과제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세종·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공공협업 네트워크 7개 기관을 신규 구성 및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여전 미흡한 상황으로 기관 내부 규정 등의 개선 실적과 성과 제시가 필요하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능간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시스템과 기반을 마련한 실적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제고하기 위해 청렴소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관의 부패사건이 ‘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일터혁신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개선된 실적이 확인된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점수가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는 데 다소의 한계가 확인된다. 기관은 종합청렴도 세부 항목별로 자체적인 진단과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비록, 청렴소통 채널확대 및 소통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동의 효과와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은 현재 관리하는 노력과 성과는 주로 산출물 중심의 개최 횟수, 추진 횟수, 강의 횟수 등으로 성과점점이 이루어져 있어 성과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 청렴·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법정 의무교육 또는 직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관이 현재 처한 특성을 고려한 청렴·윤리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의 성과가 참여횟수 및 이수여부로 제시되고 있는데, 해당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인식 내재화 수준을 추가로 점검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1) 균건한 식량안보 확보,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2023 농정방향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경상경비 3.1% 절감 및 업무추진비 10.0% 절감을 이 행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전년도 지적사항인 퇴직연금 적립율은 ’ 22년 89.22% → ’ 23년 102.56% 증가한 점이 인정되고, 금융부채는 ’ 22년 2,908백만원 → ’ 23년 2,880백만원으로 감소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361백만원 증가한 203,530백만원인 점, 매출액 성장비 율은 2.3% 증가한 8.8%인 점, 영업현금흐름도는 전년 대비 19.14% 증가한 305백만 원, 영업이익 증가액은 전년 대비 1,811백만원 증가한 1,664백만원 기록한 점은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채규모는 ’ 22년 4,787백만원 → ’ 23년 6,107백만원 증가 한 점과 부채비율은 ’ 22년 36% → ’ 23년 44% 증가한 점, 분기별 예산 집행률이 1 분기 14.1%, 2분기 29.3%, 3분기 24.7%, 4분기 28.3% 등 관리하여 미집행액 79억원 3.7% 발생한 점은 높은 사업비 92.1% 비중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비 자체의 분기별 집행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재무위험 관리 지표 고도화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지표를 분야별, 중요성 관점에서 주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핵심위험지표는 중 요도에 따라 성장성-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을 구분하여 대표 핵심관리지표를 매출 액 증가율, 총자산 수익률,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순차입금/총자산 등으로 가중치와 지표 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험신호 사전 감시 및 위기단계 진입시 조기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추정되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근거로 연도별 종합지표를 산출하여 위험요소별 모 니터링에 따른 운영기준-비용절감-자산매각-사업조정-기타 조치사항-모니터링 주기-대응주체 등을 설정하여 재무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 기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한 예산관리와 지출마감 기한 관리로 소상공인 등 대상 자금 조기 집행을 추진하여 판로지원 매출 35.3억원 확대한 점, 우수 중소기업 물품 우선 구매 32백만원 달성한 점, 사회공헌 활동비 14백만원 집행한 점, 공공계약 특례로 선금지급 한도 확대 최대 80% 달성한 점, 그리고 지급기한 단축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상생결제로 전자대금 지급 확대로 '22년 16개사 → '23년 23개사로 증가한 점과 협력이익공유제(성과공유)는 '22년 0건 → '23년 10건으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지속가능한 효율성 창출을 위한 프로세스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그 성과를 증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환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정부 지침을 100% 준수하는 제도 운영과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 지속 확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일 가정 양립 활성화 등의 추진 노력을 통해 복리후생만족도를 99%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에 마이데이터 기반 직불금 등록증 발급·발송 방식 디지털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은 먼저 비용이 발생하고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계 정립과 디지털화 과정에서의 실제 수요자(예, 농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과 실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제시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목표 대 실적	100.00%	96.32%	97.05%	3	2.912
사업비 예산현액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96.32%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97.05%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2.912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의 체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비핵심 사업의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운영 방향설정’의 내용이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과 연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된 인력운용의 체계성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배분·증원 계획을 수립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의 전략목표인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 농업 선도, 농업·농촌 가치확산 등 전략목표에 충실하도록 인력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인력배분·증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수립된 인력배분 및 증원의 분석 방법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변화와 부서별 업무량 조사 등에 근거하여 인력 배분의 방향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기관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외부 위원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합리적 인사관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사제도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의 개선 방향과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채용부터, 전보, 개인평가, 부서평가, 승진 등 거의 모든 인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나열식으로 드러내는 경우 기관의 인사제도 운용전략과 가치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23년 인사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나타난 성과를 점검하고 착안사항(문제점, 보완점)을 발굴하여 환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기관은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HRD 인재육성 전략 수립하고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직원의 니즈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이와 동시에 기관 내 각급 부서와 업무에 필요한 업무 관련 필요역량에 관한 조직의 니즈를 분석하는 접근이 균형적으로 필요하다. 기관은 추진전략으로 현재 OJT 집중 운영, 일하는 동기부여와 전문성 제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에 필요한 역량에 관한 설정(진단·점검)과 직원 개인의 교육수요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 설계가 필요하다.

- 기관은 정원이 ‘23년 현재 정원이 173명이며, 디지털 농업 분야,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분야 등 부서별로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분야별로 고유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중장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CDP를 설계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조직·기능 조정 반영하고, 직무분류체계 고도화하기 위해 전직원 설명회 및 의견수렴·반영으로 직원 수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공정한 직무평가 운영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전직원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직무분류 체계(4개 직렬, 15개 직무군) 초안을 마련하고, 부서장 인터뷰를 통해 총 84개(관리자 30, 일반직원 54) 직무를 확정하고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다만, 기관은 직무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직원의 임금에서 직무급이 차지하

는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추가로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제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노사 공동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관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전략목표-실천과제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사상생을 위해 기관장이 100%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운영성과 점검이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노사관계 개선의 성과를 점검하는 다양한 성과지표의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성과가 개최 횟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소통채널 운영의 실효성(효과성)을 점검하는 노력도 추가로 필요하다.
- 기관은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을 수행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영역 및 대상, 역량별로 요구되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현재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1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1)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선발인원 / 목표인원)×10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	5	4.2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 연도별 영농정착지원사업 목표 인원 대비 선발 인원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 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인원 실적은 4,000명으로 목표치인 4,000명을 달성하여 실적치가 100.00%로 산정되어 총점 5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2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청년농업인 육성은 선발인원/목표인원 백분율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청년농 생애 주기별 성장관리와 전문농업인의 양성 성과관리시 경계 설정을 객관화한 지표설정이 필요하며 농산업 미래인력 육성 3만명에 대한 목표설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차등)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frac{[(\text{집합교육 이수 실적}/\text{집합교육목표} \times 100) + (\text{온라인교육 이수 실적}/\text{온라인교육목표} \times 100)]}{2}$	목표대실적	100.00%	109.01%	100	3.5	3.1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수혜자의 전문역량 개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업교육사업에 계획된 집합교육과 농업교육포털에 계획된 온라인교육 이수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집합교육 목표인원은 18,845명, 집합교육 이수인원은 21,272명, 온라인교육 목표인원은 700,000명, 온라인교육 이수인원은 735,940명으로 전문농업인력 양성실적이 109.01로 산정되었으며 목표치인 100.00을 초과함으로써 총점 3.5점 중 3.5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1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전문농업인력 양성은 집합교육 이수실적/목표의 백분율 및 온라인교육 수료실적/목표의 백분율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ICT 첨단기술 활용 수준 조사(%)를 평가하는 tool의 경우에는 능력치 향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며 표준 교육과정 및 과정당 수료생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3)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수) × 100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	3.5	3.1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업 미래 핵심인력화에 필요한 도시민의 농업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실행준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당해연도 희망DB에 등록된 인원 대비 당해연도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귀농귀촌종합센터로부터 수혜를 받은인원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지원서비스 수혜자수는 22,811명, 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수는 22,811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실적이 100.0로 산정되었으며 목표치인 100을 달성함으로써 총점 3.5점 중 3.5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1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예비 귀농귀촌인 양성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예비 귀농귀촌인의 육성은 지원서비스 수혜자수/신규 예비 귀농귀촌인 수의 백분율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귀농귀촌 정착한 비율을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할 것으로 제안하며 교육·상담자 정책자금 수혜율 증가하여 1인당 수혜 금액은 다소 하락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수혜 금액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4)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농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농업 핵심 인력 향상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및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ESG, SMART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장기지속 사업으로 예산 비중은 크고 정책중요도,

ESG 측면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중에서 가장 가중치를 높게 선정하였다. 대내외 사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청년 및 미래농업 인적자원 확보의 경우, 농업계 및 비농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고 성과 지표 유효성 검토를 통한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환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농산업 미래 선도인력 육성사업은 청년농 생애주기별 성장관리를 통해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농업 분야 인력구조 불균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농업인 4천명 선발은 전년도에 비해 2배로 도전적인 추진계획으로서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영역량 강화 교육 및 적극적 판로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매출을 증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인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청년농업인과의 체계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사업 성과측정 및 개선방향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농산업 미래인력 육성 3만명에 대한 목표설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차등)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현장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실무 중심 농업인 전문성 함양 증진 및 ICT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생산기술 확산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신규농업인-농업경영인-전문농업인의 역량단계별 교육 지원 강화로 성장 가속화를 도모하였고 ICT 첨단 기술 활용 교육 확대 운영을 통한 스마트 농업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업 노동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농업교육포털 시스템 개선으로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는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표준 교육과정 중 254개 과정만 운영되었으므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요구되며 과정당 수료생의 규모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의 도시민 귀농귀촌 인력 육성은 수도권 인구 편중, 농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소멸 가속화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 및 실행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귀농귀촌 원스톱 종합지원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구축하여 귀농귀촌 실행단계(탐색-준비-실행-정착)별로 통합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의 개선을 통해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예비 귀농귀촌인의 육성은 실제로 귀농귀촌 정착한 비율을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며, 교육·상담자 정책자금 수혜율 증가하여 1인당 수혜 금액은 다소 하락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수혜 금액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관의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에서 성과지표를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예비청년농 프로그램 운영성과’, ‘전문농업인력 양성 성과’, ‘디지털 기반 농업인력 양성 성과’,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 성과’, ‘예비 청년 귀농귀촌인 창업률’로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였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성과’, ‘농업인 역량 단계별 교육 성과’, ‘귀농귀촌 플랫폼 정보제공 노력’은 기관이 설정한 목표, 실적, 성과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 결과’를 ‘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2년의 결과’를 ‘23년 환류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로 평가한다.

2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1)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실적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실적	목표부여	최고	24,734건	27,462건	100	3	2.550
			최저	16,490건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정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지원체계 강화 및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 실적(농업ON 제공 데이터 이용 건수 +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신청 건수) 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실적(데이터맵 이용 건수 + GIS서비스 이용 건수 + 분석서비스 이용 건수)을 측정하여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상향지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실적은 27,462건(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건수는 2,143건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건수는 25,319건)으로 농식품빅데이터 활용 성과 실적이 전년도 기준치 20,612건의 120%인 24,734건을 초과함으로써 총점 3.0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5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성과를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농식품 빅데

이터 활용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는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실적 및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행망(내부망)을 이용한 업무담당자(지자체, 공무원)용으로 농식품 빅데이터의 활용도 측면에서 도전적인 성과로 사료된다. 향후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가 대국민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실적과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디지털 농정서비스 이용실적 + 농정 의사결정 지원 활용실적	목표부여	최고	347,702건	371,768건	100	3	2.550
		최저	231,802건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업인의 비대면 사업신청 및 온라인 서비스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농림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간편하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업무담당자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농정 의사결정에 활용한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디지털 농정 서비스 이용실적 + 농정 의사결정 지원 활용실적)를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상향지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실적은 371,768건(디지털 농정 서비스 이용실적 370,670건+농정 의사결정 지원 활용실적 1,098건)으로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성과 실적이 전년도 기준치 289,752건의 120%인 347,702건을 초과함으로써 총점 3.0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5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성과를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는 디지털 농정서비스 이용실적 및 농정 의사결정 지원 활용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농정 의사결정 활용실적 비율의 가중치를 상향하여 디지털 농정서비스의 활용 성과 내실화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	서비스 사업화 우수실적(0.5) + 서비스 만족도(0.5)	목표부여	최고	67.37점	69.16점	100	2	1.800
			최저	44.91점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스마트농업 기술·장비 실증 확대 과제)와 연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서비스·솔루션 사업

화 실적(산업재산권 등록) 지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스마트농업 서비스 사업화 우수실적 점수(당해연도 선정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하고, 연말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사업 비율)와 서비스 만족도 점수(당해연도 선정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의 농가 만족도)에 각각 0.5 및 0.5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로 실적을 측정하여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실적은 69.16(사업화 우수실적 53.57, 서비스 만족도 84.75)으로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성과 실적이 전년도 기준치 56.14의 120%인 67.37을 초과함으로써 총점 2.0점 중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8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성과를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는 스마트농업 서비스 사업화 우수실적 및 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농정 의사결정 활용실적 비율의 가중치를 상향하여 디지털 농정서비스의 활용 성과 내실화가 요구되며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만족도 측정방법 및 목표 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4)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	수료생 만족도 달성률(0.5) + 수료생 달성률(0.5)	목표대실적	100.00%	100.00%	100	2	1.8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실적(만족도, 수료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만족도(당해연도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의 교육만족도 평균) 달성률과 당해연도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달성률에 각각 0.5 및 0.5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로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보육센터 교육생 양성실적이 100.00(만족도 달성률 100.00, 수료생 달성률 100.00)로 산정되었으며 목표치인 100을 달성함으로써 총점 2.0점 중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8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 성과를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는 보육센터 수료생 만족도 달성률 및 수료생 달성률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지속가능한 교육생 양성을 위하여 수료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수료생 만족도 실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5)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 농업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고도화’, ‘K-농업 글로벌 브랜드화’ 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ESG, SMART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은 스마트 농업의 주요사업으로 인력의 비중이 크고 정책중요도, ESG 측면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대내외 사업 여건 변화 및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환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은 농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전후방 산업 육성 지원으로 농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22년 목표 부여 방식’ 으로 최저 및 최고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향후 3년 이상의 달성 지표를 토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직불 오지급 사전방지를 통해 오지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간소화 시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성과를 통해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고도화를 모색하고자 고품질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를 하였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및 과학농정 구현, 공공데이터 주기(개방-품질관리-활용)별 관리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행망(내부망)을 이용한 업무담당자(지자체, 공무원)용으로 농식품 빅데이터의 활용도 측면에서 도전적인 성과로 사료된다. 향후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성과가 대국민 농식품 데이터 제공 이용실적과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를 통해 농림사업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디지털 농정서비스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효율적인 농업정책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농림사업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Agrix 고도화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단위사업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모색하였다. 다만, 농정 의사결정 활용실적 비율의 가중치를 상향하여 디지털 농정서비스의 활용 성과 내실화가 요구되며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의 만족도 측정방법 및 목표 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 기관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 성과를 통해 첨단기술의 현장 실증·고도화 지원으로 스마트농업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데이터-플랫폼-서비스의 선순환을 위한 핵심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장 소통·참여 홍보를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AI기술 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모색하였다. 스마트농업 서비스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지원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스마트팜 서비스 사업화 우수실적의 가중치를 높여 실질적인 민간기업의 서비스 및 솔루션 사업화에 대한 실적 성과를 상향하는 것을 제안한다.
- 기관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를 통해 청년인력 양성을 모색하였고 기후변화 등 미래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팜 우수 청년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스마트팜 ICT 컨설팅 지원을 통해 최신 스마트팜 추세를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다만, 지속가능한 교육생 양성을 위

하여 수료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관의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서 성과지표를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우수성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양성 성과’,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성과’, ‘디지털 농정서비스 활용 성과’, ‘스마트팜 ODA 지원 성과’, ‘농기자재 수출정보 활용도’로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였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스마트팜 농업 확산 기반 조성’, ‘데이터·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전략적 수출지원 기반 강화’는 기관이 설정한 목표, 실적, 성과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 결과’를 ‘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2년의 결과’를 ‘23년 환류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식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로 평가한다.

3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1) 농업·농촌 가치확산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농업농촌 가치 확산 성과	(공동체유지인식 + 환경보전인식 + 식량안보인식) / 3	목표대실적	100.00%	100.33%	100	2	1.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일반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식도 제고율 수치로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농업농촌 가치 확산실적이 61.8점으로 목표치인 61.6점 대비 100.33%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2.0점 중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7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인식데이터의 한계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렵다.
- 한편, ‘식량안보’ 보다는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식량주권’, ‘식량안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면이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목표의 절대적 수준이 도전적이지 않으며, 조사방법 상 조사대상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대국민 도농교류 및 체험기회 확대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도농교류 및 체험 기회 확대 성과	농업박람회 참여 농가 수 + 기업 수	목표대실적	140개	143개	100	2	1.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정부의 대표적인 행사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통해 대국민(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와 변화를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농업인,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성과를 통해 기관의 도농교류 가치 발굴과 확산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대국민 도농교류 및 체험 기회 확대 성과(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 농가 수 + 기업 수)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2023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 농가 및 기업수는 143개로 목표치인 140개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2.0점 중 2.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1.7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5년차가 되었음을 고려하여 농업 박람회 대외 인지도 수준, 대국민 만족도 및 박람회의 위상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관 목표를 고려하여 기관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목표의 절대적 수준 자체가 도전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식량작물 소비 인식 확산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식량작물 소비 인식 확산 성과	(쌀 소비 인식 향상도 + 잡곡 소비 인식 향상도) / 2	목표부여(편차)	최고	76.918%	77.117%	100	4	3.400
			최저	74.182%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일반국민 대상 식량작물 관련 정책 및 소비 홍보를 통해 쌀·잡곡에 대한 인식변화 및 소비 인식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식량작물 소비 인식 향상률 실적을 측정하여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한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식량작물 소비 인식 확산실적은 77.117%(쌀 소비 인식 향상도 76.567%, 잡곡 소비 인식 향상도 77.667%)로 직전년도 실적치(75.550%)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74.500%) 중 최대값인 75.550%의 120%인 76.918%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4.0점 중 4.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되나 쌀소비 인식에 대한 설문은 문항은 홍보효과를 묻고 있는 것으로 쌀 소비 인식 향상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계량지표 1번과 3번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통폐합 등을 통해 적정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되나 농정원이 추진 관리하는 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4) 농업농촌 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 기관은 미래농업 선도와 농촌가치 확산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실현이라는 미션하에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 가치 인식 제고,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및 성장기반 확산을 위해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287억원(13.0%), 인력은 32명(24.1%), 정책중요도는 23.1%로 설정하였다.
- 기관은 미션과 비전에 맞게 주요사업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과지표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사회적책임, SMART 방법으로 적합성을 분석한 후, 6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 그에 따른 목표설정과 도전성을 제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지표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다소 미약한 것

은 아쉽다. 특히, 동물에 관련된 사업은 농촌 가치 확산과 관련된다고 보이나, 반려 동물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사업은 주요사업의 목적과 기관의 미션과의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업·농촌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1) 농업·농촌 공익가치 발굴 및 증진을 위한 농식품 이슈·트렌드 분석 및 활용 확산하였다. 특히, 트렌드 및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시의성 높은 콘텐츠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 농정 소통·홍보로 국민 관심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성과로 볼 수 있으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만 초점을 두어 현재의 농산물가격급등 이슈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향후 과다공급 뿐만 아니라 과소공급에 대한 예측과 정책 대응 역량도 키워, 온전한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식량작물 대국민 긍정 인식 제고 활동, 안전·안심 우리 먹거리 소비 확산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주요 식량작물(쌀·밀·콩) 맞춤형, 참여형 소비 촉진 홍보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하여 식량작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에 기여하였다(쌀 호감도 78.8%(전년대비 0.3%p↑), 잡곡 선호도 75.4(3.8%p↑) 향상) 또한 천원의 아침밥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 확산하여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기관은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및 성장 기반 확산을 위해 대국민 농업·농촌 가치 체험 및 공감대 확산활동, 생활 속 반려문화 기반 조성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박람회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여 국민의 체감도 높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및 농촌융복합 활성화로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 동물 중심의 사업은 농업·농촌 가치와의 직접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향후 지표의 정의 및 활동 내용에 대한 방향의 조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해 실적 달성으로 설립 목적 및 중장기 경영목표, ESG경영 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지표는 계량 성과 지표 6개, 비계량 성과지표 3개로 구성된다. 계량 성과지표 6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여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슈 분석 보고서 FATI발간, 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인기유튜버와 연계한 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농촌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계량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조사과정 등이 과학적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어 이를 실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등의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을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를 '23년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23년의 사업결과를 '24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을 환류사항에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류활동에 대한 과학성을 강화하고 추상적인 면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업·농촌 가치 확산사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중심 보수체제 확대 노력과 성과

- 기관은 직무 중심 보수체제 제도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성 확보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직무급을 기본급에 포함한 보수체제 지속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과중심의 보수체제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해당사항 없음

④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61%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한식진흥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7.000	2	1.772	16	8.772
	(1) 리더십	4	D+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C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	-			
	(3) 국민소통	1	C	2	1.772		
	2. 사회적 책임	6	3.500	5	4.741	11	8.241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C	1	0.923		
	(2) 안전 및 재난관리	2	C	2	1.818		
	(3) 친환경·탄소중립	1	B0	1	1.0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	1	1.000		
	(5) 윤리경영	1	B0	-			
	3. 재무성과 관리	8	3.000	3	3.000	11	6.000
	(1) 재무예산관리	8	D+	-			
	(2) 재무예산성과	-	-	3	3.000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7.250			12	7.250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B0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C	-			
(2) 노사관계	3	B0	-				
소계		40	20.750	10	9.513	50	30.263
주요 사업 (50)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	6	3.000	7	5.950	13	8.950
	(1)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	-	C	7	5.950		
	(2)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			
	2. 한식의 국내외 확산	10	5.000	15	13.043	25	18.043
	(1) 한식 체험 확산 노력	-	B	6	5.400		
	(2)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	C	6	5.100		
	(3) 해외 한식 확산 성과	-	C	3	2.543		
	(4) 국내외 한식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4	2.500	8	6.775	12	9.275
	(1)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	C	4	3.400		
	(2) 한식 교육 만족도	-	C	4	3.375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				
소계		20	10.5	30	25.768	50	36.268
합계						100	66.531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0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67.031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한식진흥원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으며, 기관장 계약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지표의 대표성, 적정성, 도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지표는 개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활용한 ESG 경영 지수의 오류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경영제언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경영자문을 확대하는 등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보고안건 증대 등을 통해 이사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은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가 반영된, 그리고 중장기 목표, 전략목표, 전략과제, 성과지표로 등으로 구성된 전략체계를 명시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혁신이행, 조직문화, 한식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6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관리하고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현안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기관장 계약과제나 기관 전략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출된 현안과제는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류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한식진흥원은 임직원 설문 및 인터뷰, 전문가 자문,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미션, 비전, 핵심가치 등 가치체계의 적정성을 진단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비전을 변경하였다. 또한 반부패 서약, 해외한식당협의체 워크숍 개

최 등 가치체계의 내재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특히 정부, 산업계, 문화관광,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한식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기 수립된 한식산업 발전전략을 참고하되 기관 차원의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최적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석, 중장기 로드맵,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 과제, 실행과제, 추진조직,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된 명시적인 중장기 전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매년 전략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의 경영전략에 ESG 요소를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영전략의 하위 전략으로서 ESG 경영 전략을 운영하여, 중복 업무 추진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ESG 경영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로 제시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점수는 ESG 경영 전반을 포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ESG경영혁신위원회 산하 에너지지킴이, KFPI봉사단, 청렴지기 활동에 실무직원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관은 경영제도 혁신, 조직문화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향후에는 환경분석 및 전년도 미흡했던 실적을 반영하여 개선과제 혹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별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8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별점 0.1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8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96.56 전년대비 향상도 : 100.00	97.25	1	0.972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91.03점으로 우수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95.56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100.00점을 8:2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7.25점으로 총점 1점 중 0.972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한식진흥원은 이해관계자별 공감과 참여를 위한 맞춤형 소통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구독자 레시피 기고란을 신설해 매월 구독자 레시피를 소개하고, 임직원 브이로그, 한식특과원 밥돌이가 간다 등 영상 코너를 신설해 한식 사업 및 기관 업무 등을 소개하는 등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매거진, SNS 채널별 신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실적이 향상되었다.

- 다만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정보공개 확대 등 국민소통 지표와 관련하여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 전년도 지적사항 혹은 미흡한 실적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선 과제 혹은 전략과제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표나 전략과제에 따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도출해야 할 것이며, 전략체계 상에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국민소통 결과가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실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	0.700	0.923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1	1	100	0.3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한식진흥원은 정원 50인 미만 기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해당기관에 해당되어 편람상 당해연도 평가대상 전 기관 평균점수를 부여하여 0.623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목표치 1명 대비 실적치 1명을 달성하여 0.300점을 획득하였다.
- 한식진흥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0.623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0.300점을 획득하여 총 0.923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한식진흥원은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전년 대비 5명 증가시킨 점, 한식문화공간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슨트(한식해설사)를 21명 선발한 점, 청년인턴을 기준 2명 대비 3명으로 초과채용한 점, 초과근로 감축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한 점 등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유급 수유시간 규정화 및 수유 환경개선에 노력한 점, 그리고 고졸적합직무를 개발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초과근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22년 5.1h/월 → '23년 4.5h/월로 감소한 점은 인정되지만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 기관은 '21년부터 현원을 초과한 정원('21년 현원 42명·정원 43명, '22년 현원 44명·정원 46명, '23년 현원 44명·정원 43명)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구조 분석 및 소요 예측을 통한 정현원차 최소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차사용은 '23년 99.61% 사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21년부터 지속적으로 100% 미달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청년인턴은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3명 이어서 향후 청년인턴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대제 변경과 시간선택제 신청, 그리고 탄력정원제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업무효율성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양성평등 문화 관점에서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21년부터 '23년까지 1명인 점은 남성근로자 육아휴직도 전체 대상자 대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분석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고, 고용의 질 개선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임신·출산 지원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측정하여 환류 계획(성과목표, 성과달성도 등 포함)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여성관리자 비중 50% 유지, 무기계약직(공무직) 채용절차 및 근로조건의 동일 운영, 임금피크제 대상자(1명)에 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를 2일 → 3일 확대한 점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저소득층·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전히 필요한 점, 직원의견조사(EOS: Employee Opinion Survey)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직원의 생산성 및 근로 생활의 고용의 질 향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존중 인식개선 조사와 자녀돌봄휴가 장려 등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방안(만족도 조사 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받은 중장기 일자리 창출 계획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목표의 명확한 제시를 위한 노력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추진 노력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내부 일자리와 외부(민간) 일자리를 구분하여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및 중장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내부 일자리(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와 외부 일자리(핵심-위탁사업 등)를 구분하여 중장기 이행 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은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력관리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탄력정원제 및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81.81	1	0.818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우수	1	1.0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81.81점으로 0.818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권고 2건, 통보 2건으로 총 94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25%로 우수 기관에 해당하여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한식진흥원은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CEO 주관 안전경영 선포(8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2건 제정, 협력사 포함 131명이 참여한 안전교육 추진, 근로자 안전일터 조성 위험성 측정방식을 기존 9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 그리고 노사협의회 안전 중 안전·보건 2건에 대한 이행조치 완료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안전관리 서비스에서 현지 발생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황 파악과 상담서비스 및 긴급 지원에 필수적인 서비스 준비정도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에 대한 효과성에 기반한 건강지원 서비스 및 정신건강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임산부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모든 근로자 안전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훈련 등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측정하여 당해연도 노력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안전전담인력으로 안전 및 소방(기계)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안전경

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운영 매뉴얼 수립 2건을 마련하는 점 등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임직원 화재예방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업무 공간별 세부 안전관리 기준 수립,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점검 및 조치 등에 대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난대비 전담인력 현황은 '22년 3명이 '23년에도 유지되고 있고, 재난대비 안전 예산 현황에 근거하여 전체 예산은 '22년 예산 102.7백만원 → '23년 96.3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일부 예산내역 중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이 '22년 8.4백만원 → '23년 3.0백만원으로 감소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전년도에 지적받은 위험성 평가 이후 개선 결과에 대한 위험수준 개선에 대해서 성과지표-성과목표-성과달성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화재와 감염병 등 재난유형별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아동·어린이·장애인·외국인·임산부·노인 방문객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안전 취약성을 분석하여 안전취약 대상과 난이도 있는 보호조치 활동을 연계하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근로자 안전 게시판이 아닌 참여형 근로자 내부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한 제도화를 통한 개선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분야별 보안교육을 총 4회 실시하고 100% 참여율을 보였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 강화 연 2회 실시한 점,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 등 통제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용 PC 내 불필요하게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0건 달성, AI·데이터·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에 따른 예산 확보(1단계 전환예산 353백만원) 과정을 통한 이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사이버 위협-물리적 보호 등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담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조직, 인력, 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외부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발굴한 취약점을 근거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매칭하여 개선된 효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600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4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5,090.97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92.09%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255.82%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565천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572천원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0.4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한식진흥원은 ESG 혁신 TF팀 신설 및 ESG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ESG 비전인 ‘한식진흥원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정하고, 환경경영 로드맵을 근

거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등이 연계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에너지 소비절감을 전사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75.3%인 점과 전 직원 대중교통 이용률이 86%인 점, 한식 교강사 대상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교육에 참여한 66명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임직원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식품부문 목표관리제를 정량화하여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환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환경경영 로드맵을 제시하여 ‘23년부터 ’ 26년을 구분하여 3단계의 환경경영로드맵을 제시하여 ‘23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감축목표 1.990tCO₂eq 대비 감축실적 4.864tCO₂eq 으로 목표대비 초과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 차원의 추진전략별 대표적인 정량화된 성과목표 및 달성도를 제시할 필요하고, 기관의 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활동의 정의와 국가환경보전 기여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에 대한 기관의 주도적인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이행정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이 협력기반의 환경문화 확산과 ESG 경영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등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중복성이 존재하여 분명하게 구분이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목표, 친환경 전략 사용 절감 목표, 그리고 재활용 목표 등을 제시하여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지역농산물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474,587원	0.20	0.200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65.25	0.25	0.250
여성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13.63	0.15	0.150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6.10	0.25	0.250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2.94	0.15	0.150
계			1.0	1.000
인정 점수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지역농산물구매 1인당 평균구매금액, 중소기업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지역농산물구매 1인당 평균구매금액, 중소기업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한식진흥원은 한식플랫폼 활용 협업을 추진하여 쿠킹클래스를 25회 추진한 점, 내국인 체험객 540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96.59%인 점, 지역 및 해외대학 협업 사업을 추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94.2점인 점, 그리고 해외대학(교육기관) 한식강사 지원 11개국 13개 기관 교육생 대상 만족도가 93.8점인 점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수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4회 개최하여 내외국인 총 84명 체험,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ESG 인증 2년 연속 선정, 종로구 취약계층 354가구 김장나눔 활동으로 종로구 우수기부기관 선정, 회사내 동아리 파파고 자율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장난감 등 171점 지원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회의실 등의 개방과 회의실 이용객을 위한 주차개방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이용 편의제공 노력과 지원을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선지급률을 80% 확대한 점, 청소용역 상생 협력에 있어 물가상승률 반영한 공고금액 69.9백만원으로 상향한 점, 하도급 지킴이 활용 100% 달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적용 의무화, 국가계약법 100% 이행, 그리고 우선구매 계약금액 4,320백만원으로 지속 확대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공개 경쟁 시 추정가격별 위원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제안평가 시 최고 최저 제외산출, 익명점수 공개 등도 도입하기를 권장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환경분석에 반영하거나 추진과제에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적, 성과 등이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한식진흥원은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하여 감사역을 설치하고 담당 직원을 배치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기관의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감사역으로 변화하여 조직 내부에서 기능과 역할이 변화된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제도)을 개편하고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규정정비(제도적 개편) 노력이 실제로 임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

에 발생시킨 성과를 점검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정정비와 같은 제도개편이 실제로 직원들의 윤리·청렴 의식 변화에 나타내는 성과를 점검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기관은 청렴문화 대·내외 확산 노력과 성과를 위해 갑질 근절 방안을 추진한 점이 확인된다. 이를 위해 23년 8월 기관장 반부패·청렴·갑질 근절을 선언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반부패 청렴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한 청렴 확산 활동을 추진한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조직문화 만족도가 향상된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문화 만족도가 상승한 노력의 성과로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기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클린신고센터)을 추진하였는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신고 편리성, 접근성, 활용성,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한식진흥원은 농업의 미래성장 사업전략-국정과제 이행-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방향을 설정하여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제안 총 16건 신규사업 발굴한 점과 외부전문가 5인 참여를 통해 신규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3건의 중점 사업을 도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예산 국제 미식행사 유치 예산 5억 확보, K-미식벨트 조성 예산 3.9억원 확보, 그리고 향토음식 복원 및 사업화를 위한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계 예산 5.5억원 확보, 그리고 한식진흥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승인 및 1~3단계 전환예산 603백만원 확보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매출액이 ‘21년 13,486백만원 → ‘22년 12,257백만원 → ’ 23년 12,088백만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기관은 부채비율 역시 ‘21년 21.81% → ‘22년 22.85% → ’ 23년 29.92%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예산편성시 사업타당성 확보에 대한 근거로 신규사업 발굴협의회 개최와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 활동과 심의기구 내실화, 조직역량 확충 관점에서 성과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특히 사업타당성에 대한 주관적인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의 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의 결과는 계량화하여 심의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재무위험 관리 지표 고도화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지표를 분야별, 중요성 관점에서 주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핵심위험지표는 중요도에 따라 성장성-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을 구분하여 대표 핵심관리지표를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수익률,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순차입금/총자산 등으로 가중치와 지표 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험신호 사전 감시 및 위기단계 진입시 조기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추정되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근거로 연도별 종합지표를 산출하여 위험요소별 모니터링에 따른 운영기준-비용절감-자산매각-사업조정-기타 조치사항-모니터링 주기-대응주체 등을 설정하여 재무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2023년 한식진흥원의 최종 예산액은 6,905백만원이며, 집행액은 6,215백만원으로 90.0%의 예산집행률을 기록하고 있고, 예산집행률이 전년 대비 11.1%로 상승하였지만 '23년도 1분기가 전년도 1.4%에 이어 1.8%인 점은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지출 총량을 관리하여 부양효과 또는 사업효과가 적거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추진기관 운영비, 20,210.908원 집행잔액 발생과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4,681,755원 및 한식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23,205,870원 지원금 미사용 반납 발생 등)은 성과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그 삭감분을 효과가 큰 쪽에 밀어주거나 신규예산 편성 시 자체 재원마련 방안을 타당하게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성과평가 기반의 신규 예산 확보에 대한 타당성 연계를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이해관계자 수요 파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간담회 등 행사 수준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와 피드백에 참여할 실적과 성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인 예산 이·불용에 대한 원인파악 및 조치 부분에 있어, 발생한 예산 이·불용에 대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원인으로 인한 이·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노력-실적-성과 등의 적극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 기관은 월 단위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달성시 사유 제출 등으로 추적 및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과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미흡 사항 발생 시 조치하는 체계(원인식별 체계, 보고체계, 추적·집중 관리체계 등)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운영한 노력과 실적, 그리고 성과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기재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을 실시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 외에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집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 및 집행 여부에서 단순히 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현황도 중요하지만 보다 혁신적인 수단을 발굴하여 핵심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100.00%	1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100.00%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100.00%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다.

④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한식진흥원은 경영전략의 실행력 강화 및 경영환경과 연계한 조직·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업 부서의 현안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한식확산기획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한식 연구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관의 기능조정과 고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중장기 전략에 따른 연차별 인력운용 계획 수립하였으며, 한식산업 인프라 강화, 한식산업 생태계 확장, ESG와 경영혁신 선도를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연도별로 인력증가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비록 기관의 성장과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력규모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다소 단편적으로 인력확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추가적인 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력의 재배치를 고려할 때 업무량분석, 업무효율화 등의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인력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체계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직무 연계성과 교육 자유도를 함께 높이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의프로세스를 신설한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개인의 교육 니즈와 조직의 니즈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현재 개편된 직무관련성 심의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교육훈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직원대상 역량진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량모델링 및 교육훈련 체계를 기관의 성과와 연계하는 접근이 추가로 필요하다.
- 기관은 점진적으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훈련의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의 성과를 교육시간 집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교육훈련의 성과(예: 현업적용도 등)를 점검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인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가자의 ‘공정한 평가수행 역량’ 을 강화하는 노력도 추가로 필요하다. 상급자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의 평가역량 관련 교육훈련 시행과 평가 공정성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한식진흥원은 직무분석을 위한 세부 평가요소 설계 및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영진, 근로자위원, 성과관리위원이 평가를 수행하여 직무급제의 수용성 개선에 기여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 연봉계약에 반영하고, 휴직후 복직직원, 계약직 직원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한 점이 확인된다. 노사공동 디자인TF를 운영하고, 직무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한식진흥원은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직무 중심 인사보수제도 도입 요구를 외부환경으로 분석하고 노사 인터뷰 및 직원 설문 등을 통한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전략적 시사점을 노사 신뢰를 통한 미래지향적, 실질적 노사협의체 운영, 노사현안 능동적 대응 추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에 ‘노사관계 전략 설명회’를 소통채널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소통방식에 관한 주요 활동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해당 소통채널의 목적, 활동결과, 실적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노사 간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실적보고서에는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활동과 다양한 소통을 모두 노사간 소통으로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어 노사간 소통의 영역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노노간 원활한 소통 및 역량 강화로 MZ세대 등 다양한 포용 및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사관계 관리의 성과로 조직문화 향상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록 점수의 향상이 있으나 조사목적과 내용이 노사관계의 성과로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환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① 한식 진흥기반 조성

(1)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

가. 평가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3년	(당해연도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목표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100%	목표대실적	100%	102.50%	100.00	7.0	5.9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가승인통계로 등록된 한식진흥원 ‘한식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내 이용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당해연도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 실적(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등재된 ‘한식산업 실태조사’ 다운로드 건수로 반영)과 목표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23년 신규작성 승인통계로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신규작성 승인통계 중 KOSIS 이용량 확인 가능한 유사 통계인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를 활용)를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한식산업 조사 이용량은 8,937.33건으로 22년 KOSIS 이용량 확인 가능한 유사 통계인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실적 8719.20건을 102.50% 초과함으로써 총점 7.0점 중 7.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9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

로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는 한식기록 집적 실적, 한식 국가통계 활용 실적, 한식포털 한식 콘텐츠 활용으로 설정하였으나, 한식기록 집적 실적 시 기록, 조사 등으로 국한되어 주관적 자료의 객관성을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3개 중에서 2개의 지표가 신규 사업 및 지표로 제시되었으나 산식 구성을 고려한 목표의 도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한식 진흥기반 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한식진흥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를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한식 산업 조사 활용도를 위하여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한식 통계조사 활용성 제고’, ‘한식포털 서비스 고도화’ 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ESG, SMART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은 한식데이터 집적, 조사·연구 활성화 및 정보 제공 방식 고도화 등을 통한 한식 진흥 기반 조성사업으로 정책 중요도가 크고 인력 및 사업비 비중, ESG 측면을 고려하여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대내외 사업 여건 변화 및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평가 데이터의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환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은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식의 계승과 발전, 지역 음식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하기 위한 주춧돌 사업으로서 향토음식 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지역 연계 미식관광 신사업을 검토, 한식 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 학술 연구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식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하였고 해외 한식당 조사시 워크롤링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성과로 기록, 조사 등으로 국한되어 성과지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지역음식 기록 수립시 구술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객관화된 정확성 평가 방안이 요구된다. 한식포털 유지보수의 난이도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지속가능한 예산 절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창업 관련 자료 배포시 외식산업에 국한되어 최근 글로벌 추세를 고려한 K-Food 산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식포털 콘텐츠 제공 목표대비 미달성 지표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및 최근 글로벌 추세를 고려한 한식 범위를 K-Food 영역까지 확대한 목표의 도전성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관의 한식 진흥 기반 조성사업에서 성과지표를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한식 기록 집적 실적’, ‘한식 국가통계 활용 실적’, ‘한식포털 한식 콘텐츠 활용도’로서 ‘한식 기록 집적 실적’ 및 ‘한식 국가통계 활용 실적’은 100%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나, ‘한식포털 한식 콘텐츠 활용도’는 미달성으로 향후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한식 브랜딩 전략 구축’, ‘한식 국가통계 품질 제고’, ‘한식 포털 운영 활성화’는 기관이 설정한 목표, 실적, 성과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한식 진흥 기반 조성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 결과’를 ‘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2년의 결과’를 ‘23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달성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식 진흥기반 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2 한식의 국내·외 확산

(1) 한식 체험 확산 노력

가. 평가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특점
'23년	①한식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60%+②한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실적×40%	목표부여(편차)	최고: 5,216 최저: 2,424	6,524	100.00	3.60	3.240
		목표대실적	100%	165.42%	100.00	2.40	2.16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한식 체험 확산의 노력에 따른 국내외 외국인 대상 체험프로그램 및 한식 문화공간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확산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참여실적과 한식문화공간 문화프로그램 참여실적을 측정하고 각각 0.6 및 0.4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국내외 한식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참여 실적의 경우 최고목표 5,216명, 최저목표 2,424명 대비 실적 6,524명으로, 최고목표 대비 125.08%를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치 3.60점 만점에 3.600점을 획득하였고, 한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실적의 경우, 목표 268명 대비 실적 444명 달성으로, 최고목표 대비 165.42%를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치 2.4점 만점에 2.400점을 획득하여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국내외 한식 확산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한식 체험 확산 노력을 성

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한식 체험 확산 노력은 외국인 한식 체험객 수, 한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실적으로 설정하였으나, 국내외 한식 체험 확산과의 성과목표 구분이 다소 모호하므로 명확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성과지표의 상향목표를 10%로 일괄적용 제시하였으나, 성과지표별로 중장기 목표를 고려한 목표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가. 평가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3년	①(한식당 지원 실적×50%) +②(관련 단체 지원 실적×50%)	목표대실적	100%	118.59%	100.00	3.0	2.550
		목표부여 (편차)	최고: 26.25 최저: 22.51	30.00	100.00	3.0	2.5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내외 한식 확산을 위한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및 결과(상향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당 지원 실적과 관련 단체 지원 실적을 측정하고 각각 0.5 및 0.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의 2023년 한식당 지원실적의 경우, 국내외 한식당 지원 목표치 275.73개소 대비 327개소 지원실적 창출로, 목표 치대 비 118.59%를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

치 3.00점 만점에 3.000점을 획득하였고, 한식 관련 단체 지원실적의 경우, 국내외 단체 지원 목표치 최고목표 26.25건, 최저목표 22.51건 대비 30.00건 지원 노력하여, 최고 목표치 대비 114.29%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치 3.00점 만점에 3.000점을 획득하여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1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국내외 한식 확산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은 국내 한식 확산을 목표로 한식 온라인 매거진 구독자수로 설정하였으나,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의 성과목표로 미흡하여 명확한 성과지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한식 온라인 매거진의 경우, 국/영문으로 제공되므로 외국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지표 및 목표설정 보완이 요구되며, 지역의 1-3차 산업 연계한 K-미식벨트의 경우 1-3차 산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근거 설정의 객관적 산식 제시 필요하다. 한식 온라인 매거진 구독자수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미달성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완이 요구되며 미식관광상품 TOP30의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해외 한식 확산 성과

가. 평가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3년	①(한식당 수혜자 만족도 성과×40%)+②(한식당 소비자 만족도 성과×60%)	목표대실적	100%	118.87%	100.00	1.20	1.020
		목표대실적	100%	99.44%	99.55	1.80	1.523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해외 한식당 지원사업 수혜자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 성과(상향지표)를 도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당 수혜자 만족도 성과와 한식당 소비자 만족도 성과 실적을 측정하고 0.4 및 0.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한식당 수혜자 만족도 성과의 경우, 만족도 목표치 80.43점 대비 실적 95.6점으로, 목표치 대비 118.87%를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치 1.20점 만점에 1.200점을 획득하였고, 한식당 소비자 만족도 성과의 경우, 2023년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결과 한식당 방문 만족도 목표치 90.91점 대비 실적 90.40점으로 목표치 대비 99.44%를 달성하여 평점 99.55점, 가중치 1.80점 만점에 1.792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543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국내외 한식 확산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해외 한식 확산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해외 한식 확산 성과는 한식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참여 실적,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당 방문 만족도로 설정하였으나, 해외 한식 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밀키트 등을 활용한 K-Food 산업적 측면에서의 지표 설정이 요구되며, 해외 한식산업의 품질관리는 한식당에 국한되어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표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당 방문 만족도 조사의 성과 지표가 목표대비 미달성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국제 미식 행사의 국내외 교차 유치를 통한 해외 한식 확산을 제안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4)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한식진흥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국내외 한식 확산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국내외 한식 확산을 위하여 ‘한식 체험 확산 노력’,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 ‘해외 한식 확산 성과’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ESG, SMART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한식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 및 행사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국내외 한식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력 및 사업비 비중이 높으며 ESG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가 가장 큰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대내외 사업 여건 변화 및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추진계획은 성과목표와의 연관성이 모호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환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국내외 한식 확산은 A50B 행사를 통해 외국인 다수 참석을 통해 한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민간 대관 확대를 통해 한식진흥원의 확산에 기여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효율화하여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K-미식벨트 조성시 1-3차산업 연계 방안 및 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해외 한식 산업 품질관리(질적 제고)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일부 미달성 성과지표의 경우, 보완 방안이 요구된다.

- 기관의 한식 체험 확산 노력은 한식문화공간 이음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개최를 통한 다각화를 모색하였다. 한식문화공간 이음은 국내외 관광객 및 어린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한식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고객 특성에 맞게 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다각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된다.
- 기관의 국내외 한식당·단체 지원 노력으로 지역연계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벨트 조성 전략을 수립하였고 한식 소비촉진 활동 강화를 위해 온라인 한식 매거진을 발간하였다.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한식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국산 식재료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만, 한식 온라인 매거진 구독자수는 미달성되어 한식 온라인 매거진이 국/영문으로 제공되므로 외국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지표 및 목표설정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1-3차 산업 연계한 K-미식벨트의 경우 1-3차 산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근거 설정의 객관적 산식 제시 필요하며 미식관광상품 TOP30의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 기관의 해외 한식 확산 성과로 해외 한식산업 품질관리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운영하였고, 해외 한식당 협의체를 통한 해외 한식당 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한식 위상제고를 위한 세계적 미식행사 A50B를 유치하여 국제 미식행사를 개최하였고 해외 한식 체험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식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도 개최하였다. 다만, 해외 한식 산업의 범위를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K-Food 산업 측면에서의 지표설정이 요구되며,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당 방문 만족도 조사의 성과지표가 목표대비 미달성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국제 미식 행사의 국내외 교차 유치를 통한 해외 한식 확산을 제안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관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사업에서 성과지표를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외국인 한식 체험객 수’, ‘한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실적’, ‘한식 온라인 매거진 구독자 수’, ‘한식프로그램 외국인 참여 실적’,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당 방문 만족도’로서 일부 성과지표는 100%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나, ‘한식 온라인 매거진 구독자 수’ 및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당 방문 만족도’는 미달성으로 향후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한식 갤러리 도슨트 신규 운영’, ‘K-미식벨트 조성 전략 수립’, ‘아시아 최고의 미색행사 A50B 한국유치’는 기관이 설정한 목표, 실적, 성과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한식 진흥 기반 조성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 결과’를 ‘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2년의 결과’를 ‘23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달성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1)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

가. 평가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3년	①(한식 조리 인력 양성 실적×40%) + ②(한식 교·강사 양성 실적×60%)	목표대실적	100%	113.97%	100.00	1.60	1.360
		표준편차	최고: 61 최저: 12	65명	100.00	2.40	2.04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상향지표)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조리인력 양성 실적과 한식 교·강사 양성 실적을 측정하고 0.4 및 0.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의 2023년 한식 조리 인력양성 목표치 1,288명 대비 실적 1,468명으로 목표치 대비 113.97%를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치 1.60점 만점에 1.600점을 획득하였고, 한식 교·강사 양성 최고목표치 61명 대비 실적 65명으로 목표치 대비 106.56%를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가중치 2.40점 만점에 2.400점을 획득하여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이 한식 산업 또는 한식 문화 진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는 점, 산출 지표가 의도한 성과와 긴밀하게 관련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되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코로나시기 이후라는 점, 한식에 대한 관심 고조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한식 교육 만족도

가. 평가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3년	①(한식 조리 관련 교육 만족도×40%)	목표대실적	100%	98.64%	98.92점	1.60	1.343
	+ ②(한식 교·강사 교육 만족도×60%)	목표대실적	100%	99.66%	99.73점	2.40	2.032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여 질적 성장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조리 관련 교육 만족도와 한식 교·강사 교육 만족도를 측정하고 0.4 및 0.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한식 조리 관련 교육만족도 목표치 4.71점 대비 실적 4.65점으로 목표치 대비 98.64%를 달성하여 평점 98.92점, 가중치 1.60점 만점에 1.580점을 획득하였고, 한식 교·강사 교육만족도 목표치 4.68점 대비 실적 4.66점으로 목표치 대비 99.66%를 달성하여 평점 99.73점, 가중치 2.40점 만점에 2.390점을 획득하여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375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조사방법, 조사시기, 조사대상의 특성상 평가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만족도라는 지표는 특성상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강한 지표이기에 전문인력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관련되는 성과 측정 지표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만족도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상태에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향상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도전적인면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한식진흥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 ‘한식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① 한식산업 미래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한식의 고급화 추진, 한식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한식산업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였다. ② 한식 인력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국내 미래 한식전문가 양성 지원, 해외 한식 전문인력 집중 육성을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자원 배분방향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평가 및 환류계획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예산삭감의 영향 하에서 직접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의 자부담 수익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 기획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범위 안에서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시급하고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심도 깊게 고민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한식산업 미래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식의 고급화 추진 사업을 추진하여, 미쉐린 셰프팀과 연계하여 10여종의 수출유망품목을 활용한 신메뉴 15종 개발 완료하였으며, 신메뉴 미디어 콘텐츠 17편 및 레시피 E-book 제작 및 보급하였다. (전체 영상 조회수 총 1.8만 회 이상 달성). 또한, 한식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한식당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5개 지역 해외 한식당 146개소 대상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실시(74.1톤, 636백만원)하였다. 그리고, 한식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유관단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한식당 운영 컨설팅에 대한 사후 피드백이 미흡한점, 영상 조회수 등이 기대 이하인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신메뉴 개발 등이 한식 미래 가치 제고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가 지원 노력이 요청된다.
- 기관은 한식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미래 한식전문가 양성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한식 교·강사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국 5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리 및 15개 교육기관 15개 한식 교육과정 지원(483명 참여)하였으며, 한식 교·강사 66명 전문 역량 강화 및 수료생 대상 워크숍 개최(58명 참여)로 후속 관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은 해외 한식 전문인력 집중육성을 목적으로 한식 전문인력 해외 파견 사업과 해외 한식당 한식인력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해외 22개국 30개 대학, 호텔, 재외공공기관, 해외한식당협의체 대상 30명 파견 및 현지 조리 인력 및 한식 애호가 2,087명 대상 한식 교육을 추진하였다. 다만, 해외 한식 인력 고용지원 사업은 계속 근무자가 26%에 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해결 불가능한 요소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재정분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한식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해 실적 달성으로 설립목적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지표는 계량 성과지표 4개, 비계량 성과지표 2개로 구성된다. 계량 성과지표 4개 가운데 3개는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고, 1개는 100%에 근접(99.1%)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취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식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개선과 같은 비계량 지표도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출 지표가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미흡하다. 특히, 한식 신메뉴 고급화 실적과 한식 교육 만족도 지표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한식 조리인력 양성과 관련한 사업은 기관의 제한된 예산과 조직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환류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공간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외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디지털플랫폼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자체평가를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23년의 사업결과를 '24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년도 경영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환류 활동에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한식진흥원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 기관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에 기초한 평가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체계 분석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컨설팅 진행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의 경영목표, 부서목표 KPI, 개인목표(MBO),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한식진흥원은 해당사항 없음

④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38%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10.750	2	1.595	16	12.345
	(1) 리더십	4	B+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B+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5	-			
	(3) 국민소통	1	B+	2	1.595		
	2. 사회적 책임	6	3.750	5	4.113	11	7.863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C	1	0.953		
	(2) 안전 및 재난관리	2	B0	2	1.364		
	(3) 친환경·탄소중립	1	B0	1	0.796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B+	1	1.000		
	(5) 윤리경영	1	B0	-			
	3. 재무성과 관리	8	4.000	3	2.969	11	6.969
	(1) 재무예산관리	8	C	-			
	(2) 재무예산성과	-		3	2.969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9.000	-		12	9.000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B+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B+					
(2) 노사관계	3	B+	-				
소계		40	27.500	10	8.677	50	36.177
주요 사업 (50)	1.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7	5.250	10	9.250	17	14.500
	(1) 입주기업 지원 성과	-	B	5	4.500		
	(2) 청년창업 지원 성과	-	A	5	4.750		
	(3)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			
	2. 비즈니스 지원 사업	6	5.250	8	7.200	14	12.450
	(1) 판로개척 지원 성과	-	B	5	4.500		
	(2) 인력양성지원 성과	-	B	3	2.700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A0	-			
	3. 기술 지원 사업	7	6.125	12	11.400	19	17.525
	(1) 장비활용 촉진 성과	-	A	7	6.650		
	(2) 제품 출시 성과	-	A	5	4.750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A0	-				
소계		20	16.625	30	27.850	50	44.475
합계						100	80.652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0.5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5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82.152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경영계약 성과지표 중 1개를 변경하였으며, 6개 성과지표 모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장애요인 파악, 극복대안 제시 등을 통해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분양기업 총 매출 1.6조원 달성,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청렴노력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기관은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활용한 임직원 대상 교육(4회)을 실시하였으며, 신입 이사에 대한 찾아가는 업무보고, 이사회 전용 사내 게시판을 활용한 이사회 관련 내용의 전 직원 공유 활동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였다. 다만 추진과제에 대한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사회 개최 건수와 보고 안전 증대를 통해 경영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사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으며, 조직 구성원 동기부여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관장 의지를 반영하여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였다. 향후에는 현안과제 도출 시 관련 성과지표도 명확하게 도출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가치체계 내재화와 관련하여 도시락 포럼, 팝업 전략 퀴즈 등 구성원들과 경영진이 기관의 비전·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

는 ‘식품전략 POWER-UP’ 프로그램을 신규로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소통대상과 같이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경영전략 이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연도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지표 수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하여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ESG 경영 등을 고려하여 전략과제를 고도화하였다. 다만 과제에 따른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여러 개로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ESG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SG 운영계획에 따라 ESG 경영 내부 인식도 조사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다만 인식도 조사와 별개로 ESG 내재화 수준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ESG를 기관 경영전략에 반영하거나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경영전략과 ESG 전략, 혁신전략 등의 과제 중복으로 경영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ESG 전략, 혁신전략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OEM 생산품 묶음판매 허용, 커피 등 비알콜음료 판매 허용 등 입주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기관은 혁신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성원 보상강화를 통해 경영혁신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전 직원과 입주기업을 1:1 매칭 하는 입주기업 돌봄 담당제를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돌봄 담당제 우수 활동 직원 5명을 선발하여 시상 및 포상함으로써 임직원 동기부여를 도모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별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6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별점 2.5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 합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99.41 전년대비 향상도 : 100.00	99.53	1	0.995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96.99점으로 우수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99.41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100.00점을 8:2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9.53점으로 총점 1점 중 0.995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정보공개 확대 등 국민 소통 지표와 관련하여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 전년도 미흡한 실적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에 따른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도출하여 운영한 점이 매우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업

무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였고, 도시락 포럼, 푸드츄어, 사회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또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및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공시 점검의 날, 국민신청실명제 등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관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우수’ 를 달성하였다.

- 다만 다양한 TF 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적 TF로 운영되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직급·부서·연령층이 융합될 수 있도록 TF를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99.33	0.7	0.653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100.00	0.3	0.3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99.33%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653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125.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내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에 대한 목표 설정을 연계한 '27년까지 공공 및 민간 일자리 목표를 설정, ESG 위원회 내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내부 일자리 점검은 경영혁신점검단 지정, 그리고 외부 일자리 점검을 위해

일자리 협의체 및 ESG 네트워크 등이 지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에 지적받은 공공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민간 일자리(핵심사업-조달 및 위탁사업 등)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장기 목표 제시와 중장기 성과 이행정도를 제시해야 하고, 근무제도 만족도가 3.8인 점과 직원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67.7%인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효과성 측정과 상주 용역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등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정현원차 충원율을 100% 달성한 점, 신입직원 채용이 최초계획대비 13명 증가한 점, 연차저축 및 장기연차 장래 신설한 점, 연차 소진율 2개년 연속 98% 이상 달성한 점, 그리고 임신기 여성 제도 활용이 100% 달성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직무능력중심 공정 채용과 공감 채용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간 Q&A 센터 운영, 응시자 맞춤형 공감채용 개선운영, 면접 응시자 대상 공감채용 사전 교육 및 면접위원 검증제 실시, 그리고 채용만족도를 9.0점 달성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직원의견조사(EOS: Employee Opinion Survey) 만족도가 낮은 평정 및 보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 해당 응답률이 69%인 점은 응답에 참여할 비율을 높여 적절한 직원의 생산성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전담 인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육아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데 육아의 경우는 '23년 2명(전년과 동일 실적), 퇴직준비는 '23년 1명 외에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대상자 대비 성과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 발굴과 이를 연계한 전담인원 채용에 대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전체 직원대비 38.4%인 점과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이 20.8%인 점, 그리고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를 답변한 비율이 67.7%로 다소 낮은 점은 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장애인 법정 의무 목표를 미달성한 점과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중장기 채용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사전 및 사후 조사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및

운영 내실화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관리자 목표가 ‘27년 34.5%인 점과 임원목표가 ’ 27년 30.7%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목표치의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76.35	1	0.76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보통	1	0.6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76.35점으로 0.764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개선 1건, 권고 3건, 통보 3건으로 총 88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50%로 보통 기관에 해당하여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도급관리 제도강화를 위해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제작 배포 및 교육,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인화성 약품장 등 구축하여 과기부 50백만원 사업예산 확보,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5건 실시, 안전보건 제안제도 내부평가 연동한 점, 담당자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필요부분 8건 중 7건 개선 완료 및 2건 ‘24년 개선계획 수립한 점, 그리고 민관합동 산단 안전점검 및 교육 등 4건 실시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전보건제 안제도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의식 향상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측정하여 성과를 정량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 편의시설은 주차구역 표지판 등 개보수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별 근로자의 안전 취약성을 분석하여 취약근로자 맞춤형 보호조치 활동을 발굴하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변화를 성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안전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안전관리 체계도입-안전관리 체계 정착- 안전관리 고도화 등을 설정하여 전략목표별로 수행과제를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관리규칙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지침 개정 2건,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2건 및 제정 2건, 전문인력 정원 전년 대비 1명 증원을 통한 8명 확보, 예산집행도 전년 대비 909백만원 증가한 3,592백만원 확보, 그리고 사업장

안전관리 상시점검 및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책임자 교육, 연구시설 근로자 교육, 안전 사고사례 교육, 도급사업 안전교육 등은 교육 대상자 확대와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관리 역량 수준에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 '23년 단계에서의 전략목표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27년 대비 중장기 이행률과 이행정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현황에서 예산(3,596백만원)대비 과도한 집행(3,952백만원)이 발생한 점과 일부 내역 중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와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에서 전년 예산 대비 예산이 삭감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기관장 주도로 사이버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2년 연속 95점 이상을 유지한 점, 개인정보 자가점검을 통해 6건 개선 및 98.65점 득점한 점, 그리고 보안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관리 개선 기준 등을 설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직원 위험성 인식 결과 81.5%인 점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사이버 위협-물리적 보호 등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담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정보보안 예산이 '22년, 222,000천원 →' 23년, 184,000천원으로 감소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악성메일 대응훈련을 통한 훈련-교육-점검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81.5%이지만 악성메일 의심 신고율은 100%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 관리실태 시범평가 자발적 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을 통한 정보보안 취약점을 64건 발굴하여 단기 35건은 조치 완료한 점은 인정되지만 관리적-기술적-위기대응 분야별 중장기적 개선 방향과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추진전략별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개선된 효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친환경 · 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478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318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595.13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28.66%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79.60%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478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40,904천원으로 전년 305,087천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기준금액인 174,386천원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0.4점 중 0.318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환경경영을 위한 대응조직 체계를 설정하고, 국민참여단을 신설하여 ESG 경영전략 환경부문 추진과제 92% 달성한 점, 그리고 환경부

문 세부추진계획 100% 이행 완료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내부 구성원 인식제고 노력을 통해 ESG 경영 설문조사 96.6% 달성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목표를 100%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친환경 및 탄소중립 가치선도를 위해 국내 네트워크와 국외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ESG 전략방향에 대한 기관의 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활동의 정의와 국가환경보전 기여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에 대한 기관의 주도적인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이행률 및 이행정도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의 친환경 설비 및 건축 등 투자확대, 환경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식품기업 스마트 전환기업 5개 확대 및 스마트 실증지원 250건 도출된 점, 그리고 친환경 기술지원 사례로 플라스틱 저감-재사용 용기-부산물 재활용 등이 도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환경문화 정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제품 구매 목표, 친환경 전략 사용 절감 목표, 그리고 재활용 목표 등을 제시하여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식품부문 목표관리제를 정량화하여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환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지역농산물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1,155,048원	0.20	0.200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97.70	0.15	0.15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3.53	0.10	0.100
여성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11.09	0.15	0.150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4.09	0.25	0.250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5%	22.83	0.15	0.150
계			1.0	1.000
인정 점수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지역농산물구매 1인당 평균구매금액,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지역농산물구매 1인당 평균구매금액,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역농산물 구매가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102백원

달성, 지역중소업체 구매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하여 2,208백만원 달성, 기업경영 애로 지원 만족도 94.6점 달성, 그리고 도내기업 직접 고용 연계 34개사 151명 성공,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실적 활동횟수가 전년 대비 125%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사회 동행 프로그램이 확대된 점은 인정되지만 활동 횟수나 참여인원에 대한 실적보다 실제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지역상생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비전 및 미션, 추진방향, 추진전략, 실행 과제, 소통 및 협력 채널 등을 제시하는 비전·전략체계도를 정립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지역농산물 판로지원, 지역기업 판로지원 등 지역 구매·지역상생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수의계약 운영기준을 재정립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 거래업체가 전년 대비 21.6% 증가하여 ‘23년 337개사를 확보한 실적과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내규정비-표준계약-공동도급-구매규격사전공개-청렴계약 등을 수행한 점, 하도급 지킴이 상생결제 지급액 101억원 달성한 점, 거래업체 부담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 요청 12.8%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모범거래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윤리경영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 및 8개 세부과제를 확정한 점이 확인된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윤리경영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으며, 추진목표와 ‘28년까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비록 기관은 4분야 8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실적과 구분되는 노력의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의 체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추진성과는 정례화하여 4회를 개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렴지킴이 제도의 운영 자체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어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윤리경영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 직원들의 인식 및 이해충돌 방지 이해도의 수준에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렴도 평가는 ‘22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23년 7.26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 이해도 수준은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23년 6.91점을 나타내고 있어 해당 조사지표의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기관은 윤리경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각종 인증제도를 통한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는 접근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의 인증이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3년 본예산은 48,197백만원과 이월예산 12,609백만원을 합쳐서 예산총액이 60,806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집행률은 '22년 74.2%와 '23년 76.1%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월액은 '22년 12,609백만원 → '23년 13,958백만원 증가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인 청년식품 창업센터 구축 사업은 총예산이 20,216백만원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은 87%와 예산대비 집행률은 37%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은 총예산 8,782백만원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이 72.9%와 예산대비 집행률이 48.0%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단순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계획대비 집행률이 61.3%와 예산대비 집행률이 49.0%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흡사항 발생 시 조치하는 체계(원인식별 체계, 보고 체계, 추적·집중 관리체계 등)를 설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관은 이월액은 총 전년 대비 증가한 13,958백만원으로 기업지원시설구축 '22년 7,300백만원 → '23년 9,882백만원 증가,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은 '22년 0원 → '23년 1,745백만원 증가, 그리고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은 '22년 0원 → '23년 2,641백만원 증가 등 이월액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관운영관리와 기업기술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이월액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월액 자체가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운영사업('22년 0원 → '23년 15백만원)과 소스산업화센터 운영('22년 91백만원 → '23년 113백만원), 그리고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 사업('22년 59백만원 → '23년 92백만원) 등에서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어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을 확인하였고, 3분기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집행기준으로 55.3%, 원인행위기준으로 6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22년 3분기말 시점 예산집행률 52.4%) 대비 연말 예산집행의 집중 현상이 일정 수준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공

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3년분기별 예산집행률이 청년식품 창업센터 준공예정('24.6)에 따라 건축예산이 이월되어 원인행위기준과 집행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1분기와 2분기 집행률을 관리하기 위한 상반기 부서(팀) 조기 집행률과 부서(팀) 예산집행률을 실적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76.1%인 점을 고려한다면 월별 부서(팀) 조기집행률과 하반기 부서(팀) 조기집행률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활동성 측면에서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총자산회전율과 공사 진행 및 기성고에 대한 조기집행률 지표를 지표로 설정하여 기관의 재무수치를 균형 있게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5.7% 증가, 사업비용 11.1% 증가, 당기순이익 49.8% 증가,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 감소 영향으로 49.8%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재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목표는 전년 대비 3% 절감한 8,855백만원 편성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한 81백만원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국고 보조금 비율 하락에 따라 사업자부담 예산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집행을 위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복지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의 “만족한다” 는 비율이 67.7%인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재무적인 요소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의 갈등을 가족친화와 취미여가, 건강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강화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목표 대 실적	100.00%	98.73%	98.98%	3	2.969
사업비 예산현액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98.73%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98.98%의 평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2.969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한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가치, 전략목표, 경영목표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조직운영의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분석과정에서 체계성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전략전략, 경영목표, 중장기 조직·인력운영 방향의 논리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제시된 단기 운영계획과 중장기 운영계획은 내용의 추상성이 높고, 내용이 다소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제시한 ‘ESG 경영 내실화’가 조직인력 운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직과 인력운용의 개선 방향은 기관의 고유사업 및 미래 핵심사업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관의 어떠한 조직, 기능, 사업이 강화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채용에서부터 징계까지 인사제도의 여러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와 같이 각각의 제도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 인사관리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인사관리의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달성한 성과수준을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기관은 맞춤형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사업부문별,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계층별 맞춤형 역량교육을 위한 역량단계와 도출된 역량 내용의 분석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무핵심 역량, 리더십 역량을 제시하고 여러 하위 역량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하위 역량이 현재 기관의 니즈와 얼마만큼 부합하며, 또한 각각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성과 운영 효과성이 어떠한 수준인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3년 1월부터 직무급 도입을 위해 보수규정을 개정한 점이 확인된다. 전직원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노사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직무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9.5%→14.4%)과 적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신규사업과 직제개편 등으로 직무구성과 직무가치가 변화하는 상황을 점진하고 직무급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고도화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노사전략을 재수립한 점이 확인된다. 외부자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전략과제에 근거하여 실행과제와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사관계 만족도 수준이 ‘22년과 비교하여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점수 3.5점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

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은 효율적 소통채널 구축의 성과지표로 노사관계 만족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의 관리와 성과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노사관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역량, 전문역량, 리더역량을 구분하고 각각의 역량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다소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판단되며, 기관의 노사관계 관리 역량에서 강점과 약점,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역량 요소를 도출한 이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기관은 노사관계 관리 역량 중 리더역량으로 안전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리더의 노사관계 관리 역량과 안전담당 교육의 연계성이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 기관은 노사관계 관리의 성과로 외부 기관의 인증획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보조자료로 외부 기관의 인증결과를 참고하는 접근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인증획득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실적보고서에서 노사간 소통채널에 관한 내용이 노-사 간의 의사소통인지, 기관 내부의 일회성 행사 또는 직원간의 소통인지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노사간 소통채널을 중심으로 소통채널의 목적, 특성,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①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 입주기업 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text{입주기업 매출증가실적}/\text{입주기업 매출증가목표}) \times 80\% + (\text{입주기업 고용증가실적}/\text{입주기업 고용증가목표}) \times 20\%$	목표대실적	100.00%	297.15%	100.00	5	4.5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관리 등을 통한 고용창출 성과와 매출액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매출증가목표와 고용증가 목표를 측정하고 각각 0.8 및 0.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의 120%를 목표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의 2023년 입주기업 매출증가 달성도는 1.27, 입주기업 고용인원 증가 달성도는 9.78로 입주기업 지원성과 실적은 297.15%로 측정되어 목표치 100%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5.0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5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주요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입주기업지원성과가 청년창업지원성과에 비해 중요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가중치는 청년창업지원성과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되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매출증가 목표는 식품제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고용증가 목표는 일반 취업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 평가 방식에서 도전적 요소가 다소 아쉽게 나타난 것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청년창업 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창업건수+제품출시건수)/ 청년창업지원팀수	목표대실적	100.00%	102.07%	100.00	5	4.7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지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창업 지원 성과를 측정하고 전년도 실적의 110%를 목표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창업건수는 10건, 제품출시 건수는 30건, 청년창업지원팀수는 57팀으로 지원성과 실적은 70.17로 측정되어 지원 목표 68.75의 102.07%를 달성함으로써 총점 5.0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7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품목제조건수를 제품출시건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과 같은 성과 창출을 위한 다른 제도적 노력의 보완을 기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4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한다.

(3)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 ‘클러스터활성화’를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로 ① 식품 창업·벤처 육성, ②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 ③ 식품클러스터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정하고 총1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종합순위 2순위로 지정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자원 배분방향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평가 및 환류계획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클러스터의 이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주요사업의 세부내용 간 관계 및 분류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면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향후 클러스터(산업환경 등), 비즈니스(기업지원 중 기술이외부분), 기술지원(기술적인면)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요사업 간 체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식품 창업·벤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식품 창업·벤처 보육 환경 조성하고, 창업 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과정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한 것, 식품벤처센터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여러 기업 지원 대책을 수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육성지원으로 실질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식품벤처센터 운영 고도화·성장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 하였으며, 매출액과 고용증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클러스터 활성화인지, 비즈니스 지원인지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사업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장기 전략체계 하에서 주요사업의 체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였다. 고객 소통으로 입주기업 성장 걸림돌 발굴하였다. 클러스터 내부 기업과의 소통확대, 그리고 농림부, 지자체 등 클러스터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기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예산 확보를 통해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 기관은 식품클러스터 디지털 전환 지원노력을 하고 있다. 분산 운영 중인 식품정보의 통합화로 적기·적시 활용하여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국내 식품산업 정보부터 협업기업 찾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푸드e음)을 통해 AI 활용, 민간 비즈니스 협업 창출 지원: ‘원료, 장비, 분석, 전문가 매칭 등을 수행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지원 하고 있으며 이것의 수혜를 입은 기업이 매출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디지털정보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하여, 플랫폼간의 적절한 연계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및 이용자 활용 극대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클러스터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해 실적 달성으로 설립목적 및 중

장기 경영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지표는 계량 성과지표 4개, 비계량 성과지표 6개로 구성된다. 계량 성과지표 4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취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6가지의 비계량 성과지표도 클러스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표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 고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벤치마킹을 수행 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식품진흥원 산·학·연 네트워킹을 활용한 ‘고충처리 자문단’ 등 다양한 애로사항(경영, 회계, 법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존재는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산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등 클러스터의 지향을 지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요청된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설문 응답대상자가 소수임에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개방형 설문 등을 통해 미처 고려하지 못한점을 추가적으로 응답 받아 성과 창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클러스터활성화 사업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자체평가를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23년의 사업결과를 '24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창업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 기존의 사업에서 수행하는 환류 장치가 정책 계획이나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비즈니스 지원 사업

(1) 판로개척 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begin{aligned} & \text{참여기업 목표달성도} * 0.4 \\ & + \\ & \text{매칭성과 목표달성도} * 0.6 \end{aligned}$	목표대실적	100.00%	141.40%	100.00	5	4.500
참여기업 목표달성도: 참여기업수/당해년도 목표 매칭성과 목표달성도: 참여기업수/당해년도 목표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식품기업 마케팅 지원 성과향상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과 지원을 통한 식품기업의 판로개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참여기업 목표달성도와 매칭성과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 각각 0.4 및 0.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의 120%를 목표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참여기업목표 달성도는 109%, 매칭성과 목표달성도는 163%로 판로개척 지원성과 실적이 141.4%로 측정되어 목표치 100.0%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5.0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5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되었으나, 판로개척지원과 관련한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산식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부정적 평가요소로 고려되었다. 향후 매칭성과가 실제 판로확대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고민이 필요하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기준 및 방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3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4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인력양성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현장실습지원성과 ×60%)+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 × 40%)	목표대실적	100.00%	101.15%	100.00	3	2.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식품분야 현장실습 및 실무형 교육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성과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현장실습 지원 성과와 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측정하고 각각 0.6 및 0.4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의 120%(현장실습 지원 성과) 및 당해연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의 목표(식품 전문인력 양성 노력)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현장실습 지원성과 달성도는 101.25%, 식품전문인력 양성 노력 달성도는 101.00%로 인력양성지원 성과 실적이 101.15%로 측정되어 목표치 100.0%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3.0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7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되었으나, 식품 실무교육 목표인원을 단순히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 목표치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되었으나, 취업률 증가목표를 전년대비 110%로 하였지만 실제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점, 증가목표는 실질 증가수준은 1.44%p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도전적으로 보기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3)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 식품산업 기업성장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정의되는 ‘비즈니스지원’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로 ① 신규 비즈니스 창출, ② 상생협력 비즈니스 확산, ③ 미래혁신 식품인재 양성을 정하고 계량 3개, 비계량 3개로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자원 배분방향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평가 및 환류계획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클러스터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주요사업의 대분류, 소분류의 세부내용 간 관계 및 분류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면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체계성의 결여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혼선을 가져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클러스터(산업환경 등), 비즈니스(기업지원 중 기술이외부분), 기술지원(기술

적인면)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요사업 간 유기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거래 활성화, 클러스터 잠재회원사 확대, 소비자접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푸드비즈온과 푸드폴리스마켓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B2B매칭 상담 지원을 통해 구매의향서 체결 금액을 전년대비 65% 증가 하였다는 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유통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수출상담회 대면참여율이 제고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푸드폴리스마켓의 온라인마켓은 일반 플랫폼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즈니스 지원과사업과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전략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푸드폴리스마켓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향에 맞게 플랫폼 운영방식을 재조정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통한 비즈니스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클러스터를 찾아오는 견학대상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상생협력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B2B 상생환경 조성, 상생협력 제도적 정비, 유관기관 사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업 공동 사업을 위한 제도정비를 통해 연계효과를 유도하는 것, 수출분야 22社, 내수 15社로 구성된 상생유통네트워킹 출범을 지원하는 활동, 클러스터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스위스 현지바이어 지원 사례처럼 ‘공공’ 과 ‘민간’ 협력으로 수출 성장 동력 확대해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은 미래혁신 식품인재 양성을 위해, 푸드테크 특화교육 지원, 인력공급 선순환 기반조성, 수요 맞춤형 인재매칭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자체, 대학 등 핵심 기관과의 협력과 상생으로 ‘인력수요 대응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표준현장실습 운영,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수행, 지역재취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학교와 학위 공동사업을 운영해서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미래혁신 인재 양성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미래식품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예를 들어 공모전을 활용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비즈니스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 달성으로 설립목적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지표는 계량 성과지표 3개, 비계량 성과지표 3개로 구성된다. 계량 성과지표 3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취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3가지의 비계량 성과지표도 비즈니스 지원 사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기에는 기관간 칸막이, 공공과 민간의 칸막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제도 간 장벽을 없애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기업에는 민간협업 바탕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공간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비즈니스지원 사업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자체평가를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23년의 사업결과를 '24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부성과평가 등 기존의 사업에서 수행하는 환류 장치가 정책 계획이나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즈니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0"로 평가한다.

3 기술 지원 사업

(1) 장비활용 촉진 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장비가동달성도(A) × 50% + 장비활용달성도(B) × 50%	목표대실적	100%	101.27%	100.00	7.0	6.6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장비가동 달성도와 장비활용 달성도를 측정하고 각각 0.5 및 0.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의 110%를 목표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장비가동 달성도는 99.96%, 장비활용 달성도는 102.58%로 장비활용 촉진 성과 실적이 101.27%로 측정되어 목표치 100.0%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7.0점 중 7.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6.6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기술지원사업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장비활용 촉진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장비활용 촉진 성과는 장비 가동 달성도 및 장비 활용 달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비활용 촉진 성과 중에서 장비 활용 달성도의 경우, 임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목표치를 전년 장비

가동률 대비 101%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표 설정의 다각화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4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한다.

(2) 제품 출시 성과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기술개발제품실적 × 60% + 네트워크제품실적 × 40%)	목표대실적	100.00%	105.91%	100.00	5	4.7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식품기업 기술·생산 지원을 통한 제품 출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술개발 제품출시 달성도와 네트워크 제품출시 달성도를 측정하고 각각 0.6 및 0.4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의 110%를 목표로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기술개발 제품출시 달성도는 104.05%, 네트워크 제품출시 달성도는 108.70%로 제품 출시 성과 실적이 105.91%로 측정되어 목표치 100.0%를 초과함으로써 총점 5.0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7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기술지원사업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제품 출시 성과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제품 출시 성과는 기술개발 제품 실적 및 네트워크 제품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여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기준 항목을 모두 통과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육성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품화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되는 성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4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 로 평가한다.

(3)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기술지원 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기술지원 사업을 위하여 ‘식품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미래먹거리 창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를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ESG, SMART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기술지원 사업은 미래유망식품 기술지원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식품기업 경쟁력 확보 및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사업으로 사업의 비중 및 인력 지방이 크고 정책 중요도, ESG 측면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대내외 사업 여건 변화 및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니터

링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환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은 식품기업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기술 성장 지원 및 식품 산업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 지원 강화와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관내 입주한 기업 뿐만아니라 권역별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장비활용 촉진 성과의 경우, 복합지표로 구성하여 달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신산업 분야인 푸드테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권역별 산학연 사업을 통한 전국 단위의 장비활용 촉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고령친화식품의 출시를 위한 규제 개선 및 토탈 기업지원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문코디네이터 사업 추진시 기술분야(5대)는 특화분야와의 연계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기능성표시 식품 분양시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장비활용 촉진성과 및 장비가동률 장비활용 건수의 경우, 기관에 입주한 기업의 소규모 시생산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도가 높아 기업 지원 사업에 부합되나 향후 장비 활용 달성도를 계량지표로 활용시 임계치 도달로 인한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표 설정의 다각화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축된 장비 인프라의 단순 활용을 넘어 맞춤 서비스를 통한 원천 기술 확보로의 연계는 기관의 우수한 실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제품 출시 성과를 통해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지원으로 푸드테크 분야 및 그린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 출시로 연계하여 매출 성장 116%, 수출 31배 향상 및 연속지원 기업 매출 155% 향상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에서 성과지표를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 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장비활용 촉진 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실적’, ‘제품 출시 성과’로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였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공백 없는 기술지원으로 기업 기초체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수요 대응 기술지원 강화’, ‘혁신역량 공조체계 강화’, ‘거점형 산학연 교류를 통한 혁신성과 창출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기술 교류 및 정보력 확보’는 기관이 설정한 목표, 실적, 성과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기술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 결과’를 ‘23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2년의 결과’를 ‘23년 환류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술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0”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능경합분야 기능으로 검사기능과 투자유치 등을 축소한 점, 핵심분야 집중을 위해 푸드테크-디지털식 식품-인력양성 등 혁신과제 이행 전담조직 신설, 인력은 5명 감축,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예산삭감과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삭감, 선택적 복리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절감 및 경조사비(화환) 미지급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조직 효율화 관점에서 기술지원처는 푸드테크지원처로, 투자유치팀과 기업동반성장팀은 기업협력팀으로, 그리고 관능평가-기호적 품질-식품 등 검사기관 등은 관능평가-기호적 품질로 정비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3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② 성과중심 보수체제 확대 노력과 성과

- 연공성 완화를 목적으로 보수체제 개편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무급개편과 직무등급간의 임금차이를 확대하기 위한 기관의 운영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과중심의 보수체제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연차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극행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4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68%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축산환경관리원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14	7.875	2	1.510	16	9.385
	(1) 리더십	4	C	-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6	C	-			
	(2-2) 정부정책 등 반영도	3	2.5	-			
	(3) 국민소통	1	D+	2	1.510		
	2. 사회적 책임	6	3.000	5	3.633	11	6.633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C	1	0.700		
	(2) 안전 및 재난관리	2	D+	2	0.983		
	(3) 친환경·탄소중립	1	B0	1	1.0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C	1	0.950		
	(5) 윤리경영	1	B0	-			
	3. 재무성과 관리	8	4.000	3	3.000	11	7.000
	(1) 재무예산관리	8	C	-			
	(2) 재무예산성과	-		3	3.000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12	7.625	-		12	7.625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7	B0	-			
	(1-2) 직무중심 보수체계	2	C	-			
(2) 노사관계	3	B+	-				
소계		40	22.500	10	8.143	50	30.643
주요 사업 (50)	1. 축산환경 관리사업	7	4.375	10	9.200	17	13.575
	(1)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	B	6	5.400		
	(2)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	A	4	3.800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			
	2.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7	5.250	9	7.739	16	12.989
	(1) 축산환경 개선 기술 활용도	-	B	3	2.700		
	(2)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	-	C	6	5.039		
	(3)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			
	3. 디지털 혁신사업	6	3.750	11	9.650	17	13.400
	(1)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정보 DB화	-	C	5	4.250		
	(2)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	-	B	6	5.400		
	(3) 디지털 혁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			
	소계		20	13.375	30	26.589	50
합계						100	70.607
가점 및 감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3	0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1	0.5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0.5
	총인건비 관리					(△2)	0
총계							71.607

1 경영관리 부문

1 경영전략

(1) 리더십

- 축산환경관리원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및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6개의 기관장 계약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축산환경 정보 데이터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최초 가축분뇨 처리 국가 통계로 등록하는 등 과제별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표성, 적정성, 도전성 관점에서 계약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환경 분야 전문인력 육성 성과를 교육 만족도 단일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이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전략체계에는 전년도 미흡한 실적이나 기관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항 형태 혹은 우선순위 과제 형태의 전략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또한 분명하게 도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 개최 횟수 확대, 보고 안전 증대 등을 통해 이사회가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5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관리하였다. 다만 일반 과제와의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출된 현안과제는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류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전략 기획 및 경영혁신

- 축산환경관리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션, 비전, 핵심가치 등 가치체계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략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전략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다만 기관은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 전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목표 도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의 대표성, 도전성,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과제에 따른 성과지표의 수를 보다 확대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체계 상의 모호한 단어나 부적당한 표현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비전과 연계한 미래대응 핵심사업 방향을 도출하였고,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능 강화를 시행하였다. 또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ESG를 기관 경영전략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지속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기관 경영전략, 혁신전략 등과의 중복으로 인해 경영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ESG 전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경영혁신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구성원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직급별 필수 혁신역량 교육, 선배와 동행하는 현장실습, 기본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기관 혁신을 위한 2023년 신규 추진사항으로 주요사업 전산화 및 통합 클라우드 전환, 직무급 도입,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향후에는 경영혁신 전략과제가 일반 경영전략과제나 ESG 전략과제 등과 중복되어 경영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별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사업효율화에 따른 인적자원 추가 활용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후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규사업을 3건 발굴하였으며, 적극행정을 통한 액비 웃거름 한시적 이용 허용을 관철시킨 점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국민소통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가중치	배점		득점
		벌점	득점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0점	1.0	0.600
		0 초과 1.5 이하	0.8	
		1.5 초과 5.0 이하	0.6	
		5.0 초과 10.0 이하	0.4	
		10.0 초과 20.0 이하	0.2	
		20.0 초과	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세부평점은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는 벌점 3.0점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 1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②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전년 대비 상승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100 - \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전년 대비 하락 시	$90(\text{기준점수}) + \frac{(\text{평가년도 조사결과} - \text{전년도 조사결과})}{\text{전년도 조사결과} \times 10\%} \times (100 - \text{기준점수})$

-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범위별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지수 및 조사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 환산 비율

등급	구간	비율
우수	고객만족도지수 90점 이상	8:2
양호	고객만족도지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7:3
보통	고객만족도지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6:4
미흡	고객만족도지수 80점 미만	5: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수준 및 개선실적

기준점수	점수	평점	가중치	득점
90	고객만족도 지수 : 86.37 전년대비 향상도 : 98.02	91.03	1	0.910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지수는 83.44점으로 보통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지수 86.37점과 전년대비 향상도 98.02점을 6:4 비율로 환산한 결과 평점 91.03점으로 총점 1점 중 0.910점을 획득하였다.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투명성 제고 노력(비계량)

-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오류가 많았던 가축분뇨 통계를 전수 및 표본조사를 통해 일원화함으로써 국가통계로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정보 제공 다각화, 축산환경지도서비스 제공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 기관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원24 서비스 운영, 농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였다. 다만 전년 대비 소통 채널 개선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 소통, 정보공개 확대 등 국민소통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분석, 내부 역량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의 소통 성과를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개선과제 혹은 전략과제를 명확하게 도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목표와 과제에 따른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명시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환류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국민소통 결과가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새로운 성과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소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책임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①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실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부여	-	-	137.50	0.7	0.7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	-	100.00	0.3	0.0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각의 가중치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 단,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두 배로 산정한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137.50%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700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0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축산환경관리원은 ESG 경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외부 자문위원 8명을 구성하고, 장애인 고용실적 등 사회분야 8개 목표를 수립한 점, 장애인 근로자 100% 채용, 사회형평적 가산점 5개로 신설 및 확대한 점, 청년인턴 6명 채용,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 선도기관에 적합한 '27년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일자리 추진방향-추진과제-성과

목표를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성과목표를 정량화하여 '23년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27년 대비 중장기 이행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일자리 창출 전략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및 중장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내부 일자리(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와 외부 일자리(핵심-조달-위탁사업 등)를 구분하여 중장기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를 분석하고, 교대제 변경과 탄력정원제 도입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일자리 나눔에 대한 업무효율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실시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과 달성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4년 연속 정현원차 zero인 점과 유연근무제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18명으로 확대된 점,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행, 퇴직준비 기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한 점, 4년 연속 가족친화기관 인증받은 점, 육아휴직-남성육아휴직-자녀돌봄휴가-육아시간 등 지원으로 전년 대비 일·가정 양립 제도 220% 증가한 점과 연장근로시간 전년 대비 14.6% 단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다양한 근로 형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일자리 창출 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관련 환경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대제 변경 실적과 성과, 탄력정원제 실시에 따른 실적과 성과 등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능력중심 채용-투명 채용-공감 채용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100% 준수한 점, 계약직원 건의사항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기본급 5% 인상, 계약직원 대상 교육 확대, 기간 내 고용안정 노력 그리고, 장애인 고용-청년 고용은 정부목표 및 정부권고 기준을 초과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소득층 3개 분야 가점을 부여하였지만 저소득층-북한 이탈주민-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직무 적합 업무를 개발하고 채용목표를 설정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목표제를 달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여성 임원-관리자-근로자 별로 맞춤형 전략을 도출하여

여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체계도를 설정하여 교육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인재 육성과제를 도출하여 여성인재 중장기 목표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확대 노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 목표하에 중기목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되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1~3급 0%와 4급 11%인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여성 상급 관리자의 연차별 목표설정을 도전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그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중장기 여성인재 목표로 연계하여 중장기 이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계량 [2점]

가. 평가개요

구분	기준점수	평가결과	가중치	득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00	78.28	1	0.783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자체평가	-	미흡	1	0.200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평가결과 산정 방법

구분	산식	구분	기준	득점
보안지적 종류별 점수 환산	경고×5 + 주의×4 + 개선×3 + 권고×2 + 통보× 1	우수	상위 25%	1.0
		보통	중간 50%	0.6
		미흡	하위 25%	0.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점수를 가중치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감사 보안지적 종류별로 환산된 점수를 토대로 우수 (1점, 상위 25%), 보통(0.6점, 중간 50%), 미흡(0.2점, 하위 25%)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점수는 78.28점으로 0.783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감사 결과 개선 2건, 권고 3건, 통보 2건으로 총 86점을 기록함으로써 평가대상 8개 기타공공기관 중 상위 87.5%로 미흡 기관에 해당하여 0.2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노력 및 성과(비계량)

- 축산환경관리원은 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도입기-정착기-확산기 등을 설정하여 ‘23년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실행력 강화, 외부 안전기관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TBM(안전점검회의) 도입을 통한 작업장 안전강화 등을 구분하여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원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 안전보건협회와 위탁 계약을 통한 안전점검을 월 2회 실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건의함 설치, 그리고 폐수 창고·비료분석실 등 주요 사각지대 안전표시 등을 설치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일자리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한 정량화된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중장기 이행정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건의함 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성 측정과, TBM 도입에 따른 활성화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안전교육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측정하여 성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임신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 취약성을 분석하여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난이도 있는 보호조치 활동을 발굴하고,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로 재난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 상향 및 관련 교육-훈련-평가 등 궁극적인 효과 달성 정도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각 부서별 실·부장 관리감독자로 지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한 점, 사업 부서별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한 점,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안전협회와 현장 안전점검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인 9개를 발굴하여 개선을 완료한 점, 그리고 수계지역 내 야적퇴비 등 자연재난 대비 야적퇴비 비닐덮개 23건을 제작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농식품부 취약점 점검 평가 우수 달성한 점과 국정원 보안성 검토 승인 100% 완료한 점, 그리고 농식품부 보안검사 지적점수 전년 대비 40.5%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사이버 위협-물리적 보안 등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담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조직, 인력, 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외부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발굴한 취약점을 근거로 추진전략별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개선된 효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3) 친환경·탄소중립

①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량 [1점]

가. 평가개요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이행실적 대비 실적 100% 완료했을 경우 만점 부여)	0.6	0.600
녹색제품 구매실적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구매실적 70% + 전년대비 향상도 30%로 평가)	0.4	0.400

나. 평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기관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이행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환경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70%, 전년대비 향상도 30%를 합산하여 0.4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4,000 tCO₂-eq로 해당연도 총 36.36%를 감축해 이행년도 감축목표율인 36% 대비 101.01% 감축에 성공해 총점 0.6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다.
- 또한 기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9,328천원으로 전년 16,850천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인 18,132천원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0.4점 중 0.400점을 획득하였다.

②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비계량)

-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 이용확대, 그리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 등 CEO 방침에 따라, 주요 여건 분석 및 국정과제를 연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깨끗한 축산환경 구현, ESG 환경경영 강화 등 추진과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에너지화 신규시설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17,938tCO₂eq 추가 감축한 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고체연료 생산 시범사업 선정(100톤/일, 118억원)한 점, 화석연료 사용 절감으로 연료비 82백만원 절감한 점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30년까지 기관의 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활동의 정의와 국가환경보전 기여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에 대한 기관의 주도적인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깨끗한 축산환경 구현, 그리고 ESG 환경경영 강화 등에 대한 중장기 이행 정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등유 미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247Co₂eq 감축한 점, 비점오염원 교육·홍보 유공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한 점, 그리고 TN(총질소) 오염 부하량 100%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구성원 환경보호 의식 내재화 수

준 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객(입주업체)의 친환경, 탄소중립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요소 조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운영 성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계량 [1점]

가. 평가개요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득 점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62.25	0.25	0.25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공사 제외)	14.59	0.15	0.150
여성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42.29	0.15	0.150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5.89	0.25	0.250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5%	15.40	0.15	0.150
계			0.95	0.950
인정 점수				0.95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을 산정하고 자체평가 기준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중소기업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의 구매총액 대비 비율,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 대비 비율이 모두 자체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총점 1점 중 0.950점을 획득하였다.

② 지역사회발전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과 성과(비계량)

- 축산환경관리원은 유부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 생태환경 클린봉사단 50명 참여, 유관기관 협업 사랑의 나눔 PC 100대 기부, 폐제품 45kg 자원순환활동 수익 1백만원 기부, 충남 당진시 지역협업체 운영 우수사례 발굴로 축산환경관리 유공 포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그리고 사회공헌기업 대상 ESG 부문 수상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관리원 청년 인턴 2명 유관기관 취업과 해외 기술교류 3개국 62명이 참여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 최초 축산환경특성화대학원 2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기대효과가 아니라 기관의 일자리 중장기 로드맵에 연계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달성정도, 그리고 청년인재 눈높이에서 체감형 일자리 창출 효과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축산환경 개선 만족도가 74.7%로 비교적 낮아서 해당 분석결과를 근거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공정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LEM형 모범거래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공정계약 문화 확산과 상생협력 거래모델 구축 등 추진과제에 따른 추진내용을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약기준 명확화를 통해 인지세 미납 등 가산세 부과 방지와 협력업체 계약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보증금을 인하(기준 10% → 5%)한 점,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 기업 법적 우선 및 의무 구매비율 100%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선금 지급률이 '22년 1,960백만원 → '23년 993백만원 감소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상생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비전 및 미션, 추진방향, 추진전략, 실행과제, 소통 및 협력 채널 등을 제시하는 비전·전략체계도를 정립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농산물 판로지원, 지역기업 판로지원 등 지역 구매·지역상생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축산환경관리원은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윤리경영체계를 수립하고 비전, 목표, 전략방향,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총괄 아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부정청탁금지담당관 등을 관리책임자로 하는 실행조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노력은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조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청렴시민감시관과 유관기관의 협력 등을 통해서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CEO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러 측면의 제도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윤리경영의 성과를 차원을 구분하여 점검하고 환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개최 횟수와 처리 건수 등의 실적에서 확대하여 윤리경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기관은 윤리준법경영가이드의 제작, 각종 규정의 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 제작, 매뉴얼, 규정·지침 등의 정비로 인해 직원들의 윤리·청렴의식 내재화 수준의 변화를 성과로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 중 점수가 일부 하락한 부분(지표)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재무성과 관리

(1) 재무예산관리

- 축산환경관리원은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경상경비는 3% 감축한 1,443백만원 대비 1,400백만원을 편성예산으로 확정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감축한 27백만원을 확보한 점,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비유동 부채비율 0% 목표를 달성한 점, 축산환경 정보 디지털화 예산을 전년 대비 487백만원 증가한 519백만원 확보한 점, 그리고 신규사업 재원으로 전년 대비 337백만원 증가한 413백만원 확보하여 전문가 양성 및 특성화대학 운영을 반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제로베이스 검토로 단계별 협의 시 구성원 재량 지출예산에 대한 원인을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1단계 실무진 교육- 2단계 부서별 심의-3단계 실무진 협의 - 4단계 주관부서 검토 - 5단계 타당성 평가 - 6단계 예산심의위원회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여 701백만원 감액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예산집행 관리체계로 1단계 집행계획 수립, 2단계 탄력적 예산운용, 3단계 집행현황 관리감독 등으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 및 주요세목 중점 관리를 수행한 점, 2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기반의 예산변경 필요시 신속한 예산조정 및 예산교부 확보율 관리,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연내 집행목표 100% 설정 및 성과분석/점검 등과 집행실적 분석 기반의 원인분석 등을 수행한 점이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업무추진비 중 회의비 및 행사 단가관리로 3백만원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백만원 냉·난방 등 에너지 관리비 절감, 출장여비 등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용역사업 통합 및 비교견적·입찰 의무화로 예산절감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집행률을 100%로 높은 수준이며, 불용은 전년도부터 주로 일반용역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22년 5,900만원 → '23년 4,3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리고 이월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괄재무예산(재무상태표)에 기반한 부채총계('22년 12백만원 → ('23) 16백만원) 변동과 해당 변동은 부처로부터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유동부채가 조금이라도 증가 또는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과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은 재무예산관리에 있

어 성과지표나 관리지표가 단순히 집행률만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재무위험 관리 지표 고도화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지표를 분야별, 중요성 관점에서 주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향후 추정되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근거로 연도별 종합지표를 산출하여 위험요소별 모니터링에 따른 운영기준-비용절감-자산매각-사업조정-기타 조지사항-모니터링 주기-대응주체 등을 설정하여 재무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월 단위로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와 전년 대비 비교하여 예산집행률에 미흡사항 발생 시 조치하는 체계(원인식별 체계, 보고체계, 추적·집중 관리체계 등)를 설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단순히 집행현황에 대한 관리가 아닌 사업계획과 연동한 조정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은 사업비 예산구조 개편을 실시하는 등 예산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편성·집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 결과 87.98점으로 90점 이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재무적인 요소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의 갈등을 가족친화와 취미여가, 건강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강화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계량) [3점]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100.00%	1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의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
현액으로 측정한 실적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은 2023년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100.00%의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100.00%의 평
점을 기록하였고 총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다.

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①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및 성과

- 축산환경관리원은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인사 운용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비전-전략목표-조직운영목표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조직운영의 방향을 핵심사업, 미래 성장사업 기반구축, 조직 효율이라는 전략 방향을 설정한 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관의 중장기 조직운영의 로드맵에서 단년도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중기 조직개편의 방향, 목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 기관은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운영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조직진단에 관한 내용을 Step1에서부터 Step4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직무분석, 운영방안 이행 등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Step2의 분석과 Step3의 분석의 세부내용이 조직운영목표와 세부과제 도출에 연계되는 논리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 비록, 조직진단의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있으나 SWOT분석, 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등에 근거하여 도출된 조직운영 전략들의 상대적 중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3년 조직의 직제 개편이 있었으며,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과 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안팀을 신설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성과와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실적보고서에서 기관은 환경관리부의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노력과 제시한 성과의 연계성 및 타당성에 관한 보완이 일부 필요하다.
- 기관은 조직의 기능조정 방향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핵심·미래사업에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 점검, 컨설팅 기능에서 인력이 감축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 업무에서

인력 2명을 감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축산농가의 확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업무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강점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여러 단계로 구분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NCS 기반의 100% 블라인드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개편 등의 활동 실적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기관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인사제도 개편의 실적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인사제도 운용의 전략과 가치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NCS 기반의 100% 블라인드 채용은 다른 많은 기관에서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하위직 직원들의 경우 자동승급제를 적용하여 급여상승과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견된다. 여러 인사제도를 개선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조직운영과 마찬가지로 인사제도 운용 또한 전략적 방향성과 가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합리적 인사관리 및 제도 운용의 성과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교육훈련 트렌드와 직원 니즈를 중시하여 교육훈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참여자의 니즈를 반영한 접근이 최근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의 노력과 접근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직원 개인의 니즈와 조직(부서)의 니즈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와 미래 기관에서 필요한 역량과 전문지식에 대한 진단을 통해 조직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니즈와 조직의 니즈가 균형적으로 연계되어 교육훈련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 및 성과

- 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에 관한 평가는 3가지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첫째,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게끔 보수체계를 개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노사합의

등 구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직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5개 직무 대분류를 도출하고 직무성과와 보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확인된다. 신규 조직 및 직무수행요건 등에 관한 기술서를 작성하여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확인된다. 전직원 대상의 직무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임금 테이블에 지급기준을 마련한 점이 확인된다. 기본급 대비 직무급 비중을 최대 21.5%로 설정하여 직무가치 보상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노사관계

- 축산환경관리원은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사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23년 직무급 도입을 위해 CEO 주도 노사공정 설명회 및 노사공동 개별 상담을 추진하는 등 현안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사 간 협력을 도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CEO의 강력한 의지와 소통 노력으로 여러 노사 현안 이슈들을 대처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직의 운영에 CEO 개인의 열정과 노력(예: CEO 즉문즉답, CEO 1:1 면담)으로 조직의 변화와 성과를 나타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사 간의 관계가 제도화되어 CEO의 교체 이후에도 제도적 지속성·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사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소통방식 및 소통채널별로 활용하는 목적과 성과를 사전에 정의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기관은 노무자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무안전별 상위법령 위법·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받으며 이행한 점이 확인된다. 노무안전의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적정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 내부의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무관리 관련 교육훈련의 참여 기회 확대와 역량강화의 수준을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기관은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관련하여 CEO의 관심과 노력이 높은 점이 확인된다. 비재무적인 후생복지를 발굴하여 운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제도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부문

① 축산환경 관리사업

(1)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가. 평가개요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평점	가중치	득점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	목표대실적	33.2만톤	33.2만톤	100.0%	100.00	6.00	5.4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기존 퇴비·액비화 중심에서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 비중을 확대하여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만톤)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가축분뇨 다각화 처리량은 33.2만톤으로 목표치 33.2만톤의 100.0%를 달성함으로써 6.0점 중 6.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깨끗한 축산농장의 개념에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이 부 적절한 측면이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10% 상향 정도로만 목표로 삼은 것은 도전적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평점	가중치	득점
[깨끗한 축산농장수(기존+신규+재지정)/전체농가수]×100	목표대실적	6.2%	6.4%	103%	100점	4.00	3.8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농장 스스로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축산농장을 육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깨끗한 축산환경 확대(%)를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전체농가수 대비 깨끗한 축산농가수는 6.4%로 목표치 6.2% 103.0%를 달성함으로써 4.0점 중 4.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3.8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깨끗한 축산농장의 개념에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년 목표가 1만호라 하더라도 여건 상황의 변화를 판단하여 보다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4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한다.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축산환경관리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및 가축분뇨 처리 관리방식 고도화로 정의되는 ‘축산환경관리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로 ① 가축분 처리 다각화, ② 환경친화 실천 축산농가 확대를 정하고 계량 4개, 비계량 4개의 총 8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탄소중립부와 환경친화부가 중심이 되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자원 배분방향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평가 및 환류계획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탄소중립의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가축분 처리 다각화와 환경친화 실천 축산농가 확대를 주요한 사업 목표로 잡은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기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의 개선 노력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양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소비자)이 그것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점, 선정기준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 축산업 양산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명칭, 목표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농축산 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신규 추진, 자원화조직체 운영 활성화, 공동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운

영 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 컨설팅으로 시설 운영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의 성과와 함께 실질적인 악취제거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관리로 인한 평가자료 검토·분석 등 이용·접근성 저하 및 업무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국내 최초 가축분 바이오차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설비 준공(2개소)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일부 계획 중인 사항을 구체적 협약 내용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여 실질적인 평가 대상이 부존재함은 부정적 평가요소로 작용하였다.

- 기관은 환경친화 실천 축산농가 확대를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농가 확대, 환경친화 축산농장 제도개선 및 지정 확대, 국민 축산환경 개선 만족도 제고, 환경친화축산농장 대국민 홍보와 같은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은 전년대비 15.6% 상승하고, 지정 확대로 저밀도 사육, 가축분뇨 적정 관리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여하였다. 또한,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홍보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이 환경친화 실천 축산농가 확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의 전략적 연관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친화 실천 축산농가 확대가 왜 미진한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체계를 재구성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축산환경관리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 달성으로 설립목적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지표는 계량 성과지표 4개, 비계량 성과지표 4개로 구성된다. 계량 성과지표 4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취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4가지의 비계량 성과지표도 축산환경관리 사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판단된다. 하지만, 축산환경개선만족도의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한편, 기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의 개선 노력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관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양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인증이 국민(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축산환경관리 사업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자체평가를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23년도 개선실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환류과정에서의 과학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과 자원의 투입 또는 국민 참여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2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1) 축산환경 개선 기술 활용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평점	가중치	득점
[성과 실적/ 성과목표(건)]×100	목표대실적	100% (12/12건)	100% (12/12건)	100%	100점	3.00	2.7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축산환경 개선 기술 발굴(평가), 해외교류 및 수출 등으로 현장적용 기술 전파, 축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축산환경 개선 기술 활용도를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기술 개발 및 수출 지원으로 산업 성장 유도를 위한 기술 활용 건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10건, 축산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2건 총 12건으로 목표치 12건의 100.0%를 달성함으로써 3.0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2.7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기술평가와 수출지원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지표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신규지표이기에 실적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성과목표를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3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2)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평점	가중치	득점
교육만족도(점)	목표대실적	82.6점	81.6점	98.8%	100점	6.00	5.039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축산환경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매년 만족도 점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 만족도(점)를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교육만족도 결과는 81.6점으로 목표치 82.6점 중 98.8%를 달성함으로써 6.0점 중 5.928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039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의 적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평가데이터의 응답률이 낮아, 데이터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 지표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준은 충족하나, 절대적 수치가 도전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실적추세에 비추어볼 때 도전적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축산환경관리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 축산환경 신산업 육성·지원 및 인력양성으로 정의되는 ‘산업인프라 활성화’ 를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로 ① 축산환경 분야 전문인력 육성, ② 축산환경 신산업 육성·지원을 정하고 계량4개, 비계량2개, 총6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하여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자원 배분방향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평가 및 환류계획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축산환경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축산환경과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산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제도지원 기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이후 활동과정에서 기관의 의도와 달리 개인의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축산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대응 최적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축산환경 교육 운영·관리 사업, 양분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하천지역 오염원 적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관련 분야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에 대한 신뢰도 향상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책

과 현장의 겹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별 교육거점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축산환경 전문인력 교육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만족도의 절대적 수준 자체가 높지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수료생의 만족도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 시험관리는 개선되고 있으나, 출제 이후 과정, 즉 민원제기에 대한 대응이나 문제 오류가능성 검토 등에 대한 환류제도를 마련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분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하천지역 오염원 적정관리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축산환경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농축산업 상생을 위한 경축순환체계 활성화 체계 구축 사업, 탄소중립형 축산환경산업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악취저감 극대화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사업, 현장실증형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신산업 영역을 도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퇴비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현장실증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여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산업인프라활성화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 달성을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지표는 계량 성과지표 4개, 비계량 성과지표 2개로 구성된다. 계량 성과지표 3개는 달성도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1개는 달성률이 100%에 다소 떨어진다. 2가지의 비계량 산업인프라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도 해당 주요사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판단된다. 향후 교육만족도의 응답률을 100%에 가까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만족도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요청된다. 또한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기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축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자체평가를 사업계획에 환류하였고, '23년의 사업결과를 '24년 환류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PDCA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영평가단이 지적한 만족도 조사 응답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교육시스템 만족도의 목표 수준이 낮고, 목표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환류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청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산업인프라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 로 평가한다.

3 디지털 혁신사업

(1)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정보 DB화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평점	가중치	득점
축산환경 정보 DB 구축률	목표대실적	85.0%	85.5%	101%	100점	5.0	4.25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축산환경 정보 DB 구축률(%)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축산환경정보 DB 구축실적은 87,556호로 목표 87,058호 대비 101%를 달성함으로써 5.0점 중 5.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4.25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디지털 혁신 사업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축산농가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는 축산환경 정보 DB 구축률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며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 목표설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차등)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2)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평점	가중치	득점
양분 발생량 조사 시·군/전국 시·군	목표대실적	70.0%	73.0%	104%	100점	6.0	5.4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질소, 인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의 근거자료를 마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축산농가 양분부하 map 작성률(%)을 측정하여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기관 자체평가 포함)

- 기관의 2023년 양분발생량 실적은 73.0%(조사 시·군 실적은 111개/전국 시·군 실적은 152개)로 목표 70.0%(조사 시·군 실적은 106개/전국 시·군 실적은 152개) 대비 104%를 달성함으로써 6.0점 중 6.000점을 획득하였고, 등급환산 점수를 반영한 득점은 5.400점으로 산정되었다.

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 의견

-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로 디지털 혁신 사업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은 양분 발생량 조사 시·군/전국 시·군 백분율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양분 삭감 수단 발굴 및 현장적용의 모니터링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세분화 하는 것을 권유하며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기반 구축 설정의 경우, 23년도 실적이 73%로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표의 적정성은 4개 기준, 목표의 도전성은 2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 로 평가한다.

(3) 디지털 혁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축산환경관리원은 설립목적,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혁신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혁신사업을 위하여 ‘축산환경 정보 DB화로 디지털 체계 구축’, ‘지역단위 양분관리 체계 구축’ 을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풀(Pool)을 구축하고, 전략연계, ESG, SMART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한 후,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디지털 혁신사업은 대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환경 관련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인력의 비중, 정책중요도, ESG 측면,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대내외 사업 여건 변화 및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고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환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디지털 혁신사업은 대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환경 관련 정보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의 핵심 주요사업으로 판단된다. 국가통계 승인을 통해 신뢰성 있는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의 경우, 목표대비 104% 달성하였으며 실용성 있는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23년도 실적으로 기준으로 초과 달성한 성과 목표의 경우, 24년은 상향 재설정이 필요하며 시험분석 항목 다양화를 위한 인력 확대를 및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진행 예정으로 표기된 추진 내용은 차년도에는 전략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 기관은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 성과는 국가통계 승인과 연계하여 축산환경조사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디지털 기반 축산악취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ICT 장비를 활용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축산환경개선 사업 관리 및 정보 디지털화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축산악취 관련 사업 전산화를 ESG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로 사료되며 축산악취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며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 목표설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차등)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기관은 축산농가 양분발생 MAP 작성을 통해 현장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양분 기초데이터를 수집하였고 GIS 기반 가축분뇨 유래 양분 발생량을 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양분삭감 수단 발굴 및 현장적용을 통해 ESG 측면에서의 우수성과도 제시하였다. 국내 최고 수준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 수집-분석-생산 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숙련도 향상 및 데이터 수집·처리 고도화 및 대규모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양분 삭감 수단 발굴 및 현장적용의 모니터링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세분화 하는 것을 권유하며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기반 구축 설정의 경우, 23년도 실적이 73%로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기관의 디지털 혁신사업에서 성과지표를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계량 성과지표는 ‘축산환경 관련 정보 DB화’, ‘가축분뇨

유래 양분발생량 산정' 으로서 모두 달성도 100%를 상회하였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축산환경 정보 통계화 노력',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양분 삭감 수단 발굴 및 현장 적용' 은 기관이 설정한 목표, 실적, 성과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농식품 디지털 혁신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22년 자체평가 결과' 를 '23년 사업계획' 에 반영하고, '22년의 결과' 를 '23년 환류계획' 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디지털 혁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0" 로 평가한다.

3 가감점 부문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축산환경관리원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

- 기관은 직무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급여의 연공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위해서 노사공동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한 기관의 노력의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③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이 확인되며,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 추진체계도를 제시하고 감사실, ESG전략팀, 운영지원팀을 전담부서로 설정하여 역할을 명시하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마련하고,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극행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총 1점 중 0.5점을 부여한다.

4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기준치	실적치	배점	득점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1.7%	1.58%	-2	0.0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7%)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할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다. 평가 의견

- 기관의 2023년도 총인건비는 2022년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